NABO
경제·산업동향&이슈

NABO
Economic·Industrial Trends & Issues

CONTENTS

경제·산업동향

경제·산업현안 | 2022년 경제정책방향 점검과 시사점
2022년 세계경제 전망과 위험 요인
미·중 무역분쟁의 현황 및 향후 영향 검토
장래 인구변화를 반영한 노동공급규모 전망

경제·산업이슈 | 환율이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본 원고의 내용은 저자 개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한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nabo Economic·Industrial Trends & Issues

경제·산업동향&이슈

2022년 1월호 통권 제25호

Contents

경제·산업동향 3

Ⅰ. 경제동향 6
Ⅱ. 산업·고용동향 34
Ⅲ. 해외경제 동향 80

경제·산업현안 97

Ⅰ. 2022년 경제정책방향 점검과 시사점 98
Ⅱ. 2022년 세계경제 전망과 위험 요인 104
Ⅲ. 미·중 무역분쟁의 현황 및 향후 영향 검토 113
Ⅳ. 장래 인구변화를 반영한 노동공급규모 전망 120

경제·산업이슈 127

Ⅰ. 환율이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 분석 128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PART 1

Economic·Industrial Trends & Issues

경제·산업동향

Ⅰ. 경제동향 ····· 6
1. 생산 ····· 6
2. 소비 ····· 8
3. 투자 ····· 10
4. 대외거래 ····· 16
5. 소비자물가 ····· 19
6. 금융시장 ····· 22
7. 재정수입 및 재정지출 ····· 30

Ⅱ. 산업·고용동향 ····· 34
1. 제조업 ····· 34
2. 서비스업 ····· 51
3. 에너지 및 원자재 ····· 57
4. 고용 ····· 67
5. 인구 ····· 73
6. 부동산 ····· 75

Ⅲ. 해외경제 동향 ····· 80
1. 미국 ····· 80
2. 중국 ····· 85
3. 유로지역 ····· 87
4. 일본 ····· 90

[전 세계 코로나19 현황] ····· 92
[주요 경제정책 동향] ····· 95

주요 거시·산업경제 지표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2020			2021						
	연간	3Q	4Q	연간	2Q	3Q	4Q	10월	11월	12월
전산업생산	-1.2	-0.9 (2.8)	-1.5 (1.6)	-	7.2 (0.4)	3.9 (0.5)	-	4.8 (-1.9)	5.3 (3.2)	-
광공업생산	-0.4	0.2 (6.0)	0.0 (2.9)	-	12.7 (-1.2)	5.1 (0.5)	-	4.5 (-2.9)	5.9 (5.1)	-
서비스업생산	-2.0	-1.7 (2.0)	-2.0 (0.9)	-	5.7 (1.7)	3.9 (0.9)	-	5.1 (-0.4)	5.3 (2.0)	-
소매판매액	-0.2	1.6 (-1.1)	-1.2 (0.9)	-	4.4 (2.7)	5.0 (0.1)	-	7.4 (0.1)	4.6 (-1.9)	-
설비투자지수	6.0	7.7 (2.2)	2.8 (0.8)	-	12.7 (0.7)	5.9 (-2.4)	-	2.9 (-5.4)	9.2 (10.9)	-
건설기성액	-4.1	-4.2 (-2.8)	-5.3 (2.5)	-	-5.3 (-2.4)	-6.1 (-1.8)	-	-0.1 (-1.2)	-5.6 (2.4)	-
수출(통관)	-5.5	-3.4	4.2	25.8	42.1	26.5	24.6	24.1	32.1	18.3
수입(통관)	-7.1	-8.7	-1.7	31.5	37.6	37.5	39.5	37.7	43.6	37.4
경상수지 (억달러)	752.8	240.0	322.4	-	215.2	257.9	-	69.5	71.6	-
실업률	4.0	3.6	3.7	3.7	3.9	2.8	2.9	2.8	2.6	3.5
취업자수 (천명)	-218	-314	-441	369	618	577	660	652	553	773
소비자물가	0.5	0.6	0.4	2.5	2.5	2.6	3.5	3.2	3.8	3.7
원/달러환율	1,180	1,188	1,116	1,145	1,121	1,158	1,183	1,182	1,184	1,184
국고채금리 (3년)	0.99	0.85	0.95	1.39	1.19	1.45	1.87	1.84	1.95	1.80

주: 1. ( )는 전기대비 증가율
2. 국고채 수익률, 원/달러 환율은 기간 평균 기준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산업통상자원부

경제동향

경제분석국

최근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 등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

■ **11월 중 생산활동은 단계적 일상회복과 일부 업종의 부품수급 차질이 완화되며 큰 폭으로 증가**

- 광공업은 차량용 반도체 수급 차질이 완화되는 등 자동차, 반도체, 기계장비 생산이 큰 폭(전월대비 5.1%)으로 증가
- 서비스업은 11월 중 단계적 일상회복 효과로 금융보험업, 숙박·음식점업 등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2.0% 증가

■ **수출 호조와 고용 개선세도 지속**

- 12월 수출은 이전 10월(24.1%)과 11월(32.1%)에 비해서는 낮지만, 여전히 전년동월대비 18.3%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냄
- 12월 중 전체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77.3만명 늘어 전월(55.3만명)에 비해 증가 폭이 확대

■ **그러나 12월 들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로 대면 소비활동과 경제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경기국면의 전환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

- 12월 중 구글 이동성지수와 소비자심리지수가 하락하였으며,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하는 선행지수순환변동치는 지난 6월을 정점으로 5개월 연속 하락세 지속

소비자물가는 농축수산물, 공업제품, 서비스 부문의 오름세가 지속되며 3%대 후반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2021년 연간 소비자물가는 전년대비 2.5% 상승)

■ **12월 중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3.7% 상승하여 전월(3.8%)에 이어 높은 수준의 상승률 지속**

- 농축수산물 물가는 달걀 등 축산물가격 상승세 지속, 채소류와 과실류의 작황 부진으로 전년동월대비 7.8% 상승
- 공업제품 물가는 국제유가 상승과 원재료 가격 인상 영향으로 석유류와 가공식품 물가의 상승폭이 확대되며 전년동월대비 4.7% 상승
- 서비스 물가는 개인서비스 물가를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2.6% 상승

12월 중 국내 금융시장은 경기둔화 우려의 증대로 국고채금리가 하락하였으나, KOSPI지수는 외국인 매수세 유입으로 상승

■ **국고채금리(3년 만기)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방역대책 강화 등으로 경기둔화 우려가 높아지며 전월(1.95%)보다 하락한 1.80%를 시현**

■ **KOSPI지수는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 순매수(3.1조원)에 힘입어 전월말(2,839)대비 4.8% 상승한 2,978을 기록**

■ **원/달러 환율은 월 상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월 중순 이후 미 연준의 긴축에 대한 우려, 유럽 경제 봉쇄조치 강화 소식으로 상승세를 보이며 전월(1,183원)보다 1원 높은 월평균 1,184원을 나타냄**

Ⅰ. 경제동향

1. 생산

11월 중 전산업생산은 자동차 등 일부 업종의 부품수급 차질 완화 따른 생산 증가와 단계적 일상회복 등의 영향으로 전월대비 큰 폭으로 증가

■ **전산업생산(3.2%)은 광공업(-2.9%→5.1%), 서비스업(-0.4%→2.0%), 건설업(-1.2%→2.4%), 공공행정(-8.8%→5.5%) 등에서 모두 증가 전환되며 전월(-1.9%)의 감소에서 벗어나 큰 폭으로 증가**

- 광공업생산은 제조업(-2.9→5.3%)에서 차량용 반도체 수급 차질 완화되며 자동차(11.3%)와 반도체(4.5%), 기계장비(5.7%) 등의 생산이 큰 폭으로 증가
- 서비스업생산은 주식 등 금융상품 거래 증가와 단계적 일상회복 등의 효과로 금융보험업(3.0%)과 숙박·음식업(5.6%) 등을 중심으로 늘어남
- 전년동월대비로는 건설업(-0.1%→-5.6%)의 감소폭이 확대된 가운데 제조업(4.6%→6.2%), 서비스업(5.1%→5.3%), 공공행정(7.6%→11.1%)에서 모두 전월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되며 5.3% 증가

[그림 1] 전산업생산 월별 추이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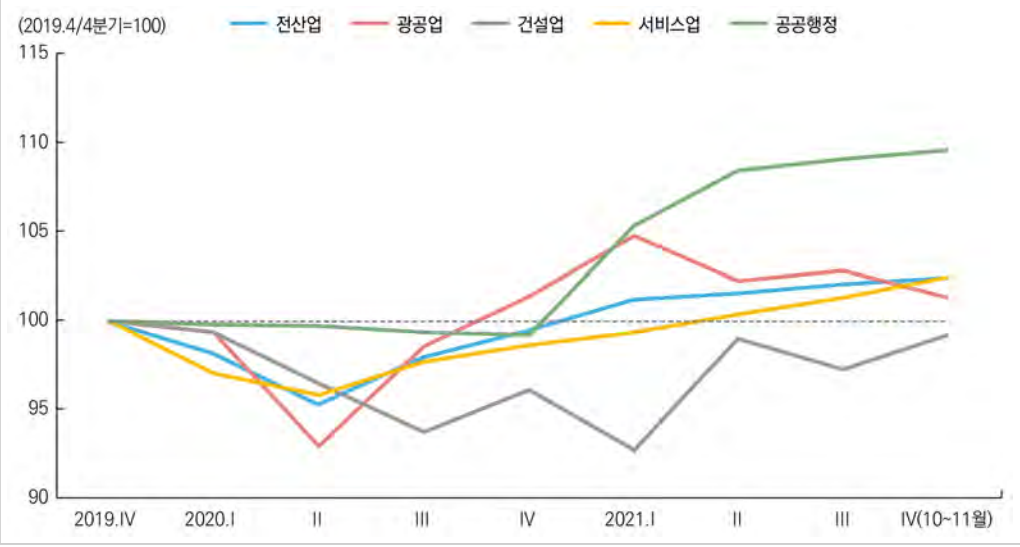
[그림 2] 부문별 생산 추이

자료: 통계청

4/4분기 들어 전산업생산은 10월과 11월 중 광공업 생산 증가세가 주춤한 가운데 서비스업 회복 지속과 건설업 부진 완화 등으로 3/4분기의 증가세를 이어가는 모습

- 4/4분기 들어 공급망 차질 등으로 제조업에서 증가세가 주춤한 가운데 경제활동 재개 등으로 서비스업에서 완만한 회복세가 이어지고 건설업 부진이 완화
- 오미크론 변이의 출현, 미국의 통화정책 조기 정상화 가능성 부각 등으로 성장세 지속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

[그림 3] 코로나19 이후 부문별 생산 추이(2019년 4/4분기=100)



주: 계절조정지수 기준
자료: 통계청

경기종합지수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3개월 만에 상승하였으나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5개월 연속 하락세를 지속하며 경기국면의 전환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

-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101.4)는 서비스업생산지수와 건설기성액 등에서 증가세가 나타나면서 전월(101.0)보다 0.4p 상승

■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101.3)는 재고순환지표, 기계류내수출하지수, 건설수주액, 수출입물가비율, 코스피 등의 구성지표에서 감소세가 나타나면서 전월(101.7)보다 0.4p 하락하였고, 지난 6월을 정점으로 5개월 연속 하락세가 지속**

[그림 4] 경기종합지수 순환변동치 추이

주: 1) 순환변동치는 종합지수에서 비경기적 요인(계절요인 및 불규칙요인)을 제거한 지표
2) 동행종합지수 구성지표: 광공업생산, 서비스업생산, 건설기성액, 소매판매액, 내수출하, 수입액, 비농림어업취업자수
3) 선행종합지수 구성지표: 재고순환지표, 경제심리지수, 기계류내수출하, 건설수주액, 수출입물가비율, 코스피, 장단기금리차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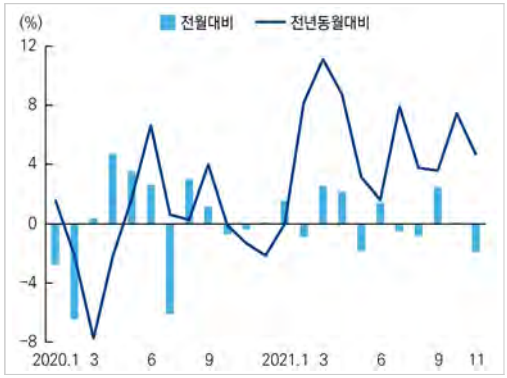
2. 소비

11월 소매판매는 소비심리 회복에도 불구하고 의복 및 가전제품을 중심으로 판매가 축소되면서 감소로 전환

■ **소매판매는 9월(2.4%) 및 10월(0.1%)의 증가추세가 반전되면서 전월대비 1.9% 감소**

- 2개월 연속 증가에 따른 기저 효과 반영
- 11월 중순 이후 확진자가 가파르게 증가하며 구글 이동성지수(소매 및 여가, 대중교통)가 크게 하락하고 의복 등 준내구재 판매가 감소(-5.7%)

[그림 5] 소매판매지수 증가율 추이



자료: 통계청

[그림 6] 구글 이동성지수와 신규 확진자수 추이

주: Baseline은 2020년 1월 3일~2월 6일 기준이며, 7일 이동평균 사용
자료: Google Covid19 Community Mobility Index, Our World in Data, 국회예산정책처

■ 비내구재는 화장품, 서적·문구 등의 판매가 늘면서 전월대비 0.4% 증가

- 화장품 판매는 위드 코로나 이후 증가한 면세점 매출과 코리아세일페스타(2021년 11월 1~15일)의 영향으로 전월대비 11.4% 증가
- 화장품 판매(전월대비, %): ('21.8월)1.2→(9월)11.3→(10월)-10.7→(11월)11.4

■ 준내구재 판매는 의복, 오락·취미·경기용품의 판매가 감소하며 전월대비 5.7% 감소

- 의류 판매는 3개월 연속 증가에 따른 기저 효과와 평년(7.6℃)보다 높은 기온(8.3℃)의 영향으로 부진
- 의류 판매(전월대비, %): ('21.8월)2.7→(9월)5.6→(10월)4.3→(11월)-10.9

■ 내구재 판매는 가전제품의 신규교체 수요가 감소하면서 전월대비 3.2% 감소

[그림 7] 재별 소매판매 증가율 추이

자료: 통계청

[그림 8] 소매업태별 판매 증가율 추이

자료: 통계청

12월 소비자심리지수는 월간 신규 확진자가 최고치(12월 평균 5,900명)를 기록하는 가운데 체감경기가 둔화됨에 따라 하락

- 소비자심지리수는 전월대비 3.7p 하락한 103.9를 시현
- 소비자심리지수를 구성하는 6개 항목[1]이 모두 하락하였으며, 소비자지출 전망이 1.6p, 향후 경기전망이 1.0p 감소

[그림 9] 소비자심리지수 추이

주: 장기평균치(2003년 1월 ~ 2020년 12월)를 기준값 100으로 하여 100보다 크면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임을,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
자료: 한국은행

3. 투자

가. 설비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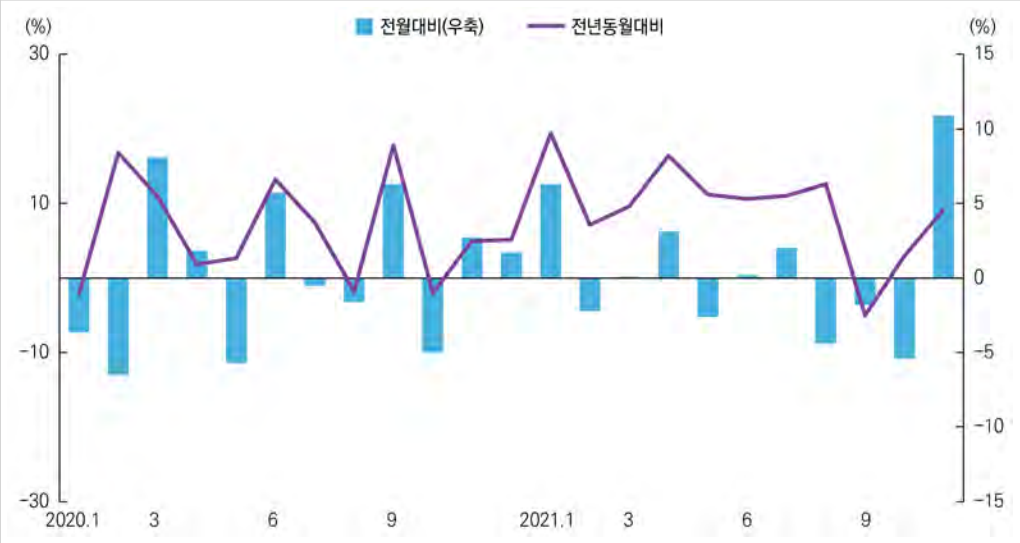
설비투자는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와 자동차 등 운송장비 투자가 모두 늘어나면서 전월대비 증가 전환

■ 11월 설비투자는 기계류와 운송장비에서 각각 10.1%, 13.6% 증가하며 전월대비 10.9% 증가

- 전년동월대비 설비투자는 자동차 등 운송장비(4.9%)에서 증가 전환되고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10.9%)에서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전체 9.2% 증가

1) 현재생활형편, 생활형편 전망, 가계수입전망, 소비지출전망, 현재경기판단, 향후경기전망

[그림 10] 설비투자지수 추이



자료: 통계청

■ 기계류 투자는 일반기계류(7.9%), 전기 및 전자기기(14.3%), 정밀기기(14.5%), 기타기기(7.3%)에서 모두 늘어나면서 전월대비 10.1% 증가

■ 운송장비 투자는 자동차(13.8%), 기타운송장비(13.4%)에서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하며 전월대비 13.6%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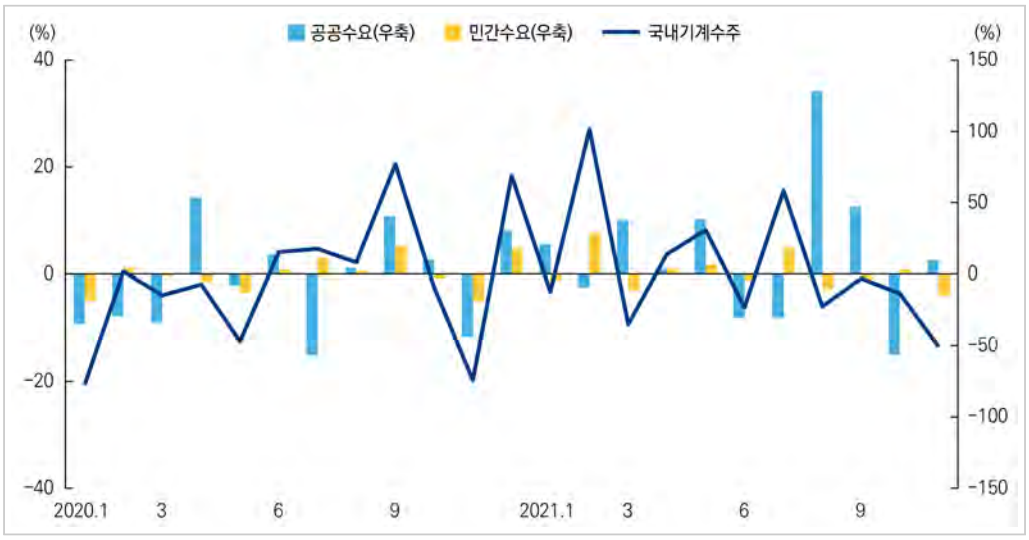
■ 11월 중 반도체(4.5%), 자동차(11.3%) 등 주요 광공업 부문 생산이 전월대비 증가하면서 신규 설비투자 수요를 촉진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는 전월대비 감소하였으나 기계류 내수출하와 기계류 수입액은 전월대비 증가

■ 11월 국내기계수주는 민간부문의 제조업(-20.0%)과 비제조업(-1.4%) 수요가 모두 감소하면서 공공수요(9.6%)의 증가 전환에도 불구하고 전월대비 13.5% 감소

■ 11월 기계류 내수출하(선박제외)는 전월(-8.7%) 큰 폭으로 감소한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전월대비 7.6% 증가 전환

[그림 11] 국내기계수주 전월대비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 11월 기계류 수입액은 반도체 제조용장비, 항공기및부품 등에서 늘어나면서 전월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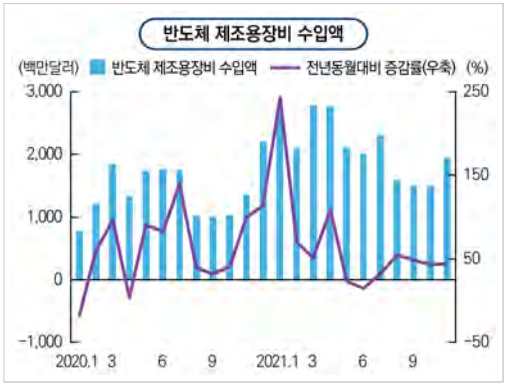
- 11월 중 기계류 수입액은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장비(-68.0%), 자동차부품(-3.8%) 등에서 줄어들었으나 반도체 제조용장비(31.0%), 항공기및부품(172.2%) 등에서 늘어나면서 전월대비 17.6% 증가
- 전년동월대비 기계류 수입액은 반도체 제조용장비(44.6%), 항공기및부품(429.4%) 등에서 늘어나면서 13.8% 증가

■ 12월 제조업 설비투자실적 관련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전월대비 소폭 상승한 99를 기록

- 제조업 설비투자실적 BSI: ('21.10월)98→(11월)97→(12월)99(수출기업 106, 내수기업 95)

[그림 12] 기계류 수입액 및 반도체 제조용장비 수입액 추이

자료: 무역협회, 통계청



자료: 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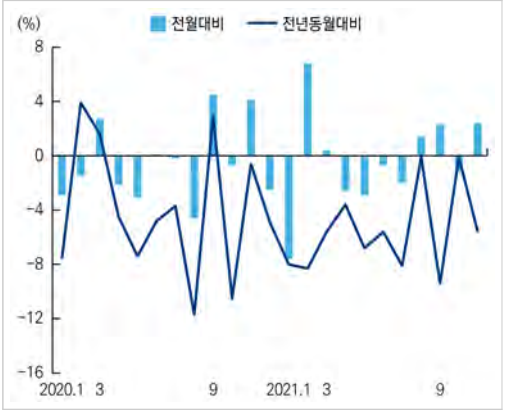
나. 건설투자

건설투자는 건축부문을 중심으로 증가하였으며, 비제조업 부문의 수주 정체가 계속되는 모습

■ **11월 중 건설기성(불변)은 토목 공사(-13.3%)의 감소에도 건축 공사(8.1%)가 늘어 나며 전월대비 2.4%(전년동월대비 -5.6%) 증가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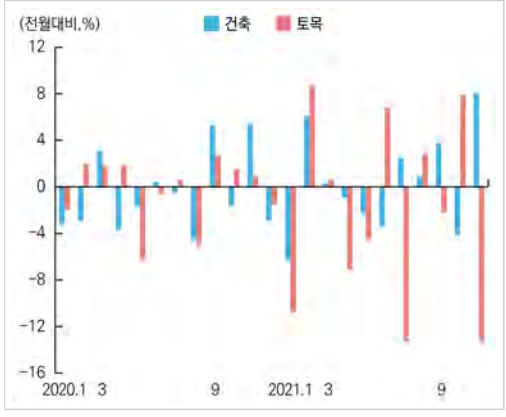
- 건설기성액(전월대비,%): ('21.9월)2.3→(10월)-1.2→(11월)2.4
- 건설기성액(전년동월대비,%): ('21.9월)-9.4→(10월)-0.1→(11월)-5.6
- 건축(전월대비,%): ('21.9월)3.8→(10월)-4.1→(11월)8.1
- 토목(전월대비,%): ('21.9월)-2.2→(10월)7.9→(11월)-13.3

[그림 13] 건설기성(불변) 추이



주: 2021년 10월 및 11월은 잠정치(p)
자료: 통계청

[그림 14] 공종별 건설기성(불변) 증감률 추이



주: 2021년 10월 및 11월은 잠정치(p)
자료: 통계청

■ **건축부문(경상)은 주거용(20.5%)과 비주거용(5.1%)이 모두 증가하며 전년동월대비 14.6% 증가**

- 건축(경상, 전년동월대비,%): ('21.9월)7.2→(10월)15.9→(11월)14.6

■ **토목부문(경상)은 일반토목(-11.9%), 전기기계(-24.7%), 플랜트(-13.0%)가 모두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14.5% 감소**

- 토목(경상, 전년동월대비,%): ('21.9월)-14.2→(10월)4.4→(11월)-14.5

[그림 15] 공종별 건축 추이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통계청

[그림 16] 공종별 토목 추이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통계청

■ **발주자별 건설기성액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각각 전년동월 대비 1.6%, 8.8% 증가**

■ **건설수주(경상)는 도로·교량 등 토목(10.5%)에서 증가하였으나 주택, 공장·창고 등 건축(-20.1%)에서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12.5% 감소**

- 건축 수주는 주택(-30.2%)과 공장 및 창고(-16.4)가 전년동월대비 모두 감소
- 토목 수주에서는 도로·교량이 전년동월대비 91.6% 증가하며 토목 수주 증가에 기여

[그림 17] 공종별 수주(경상) 추이

자료: 통계청

[그림 18] 발주처별 수주(경상) 추이

자료: 통계청

- 발주처별로는 공공부문의 수주가 주택 수주 감소로 37.2% 하락하고, 민간부문의 수주는 비제조업*의 수주 감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의 수주가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7.0%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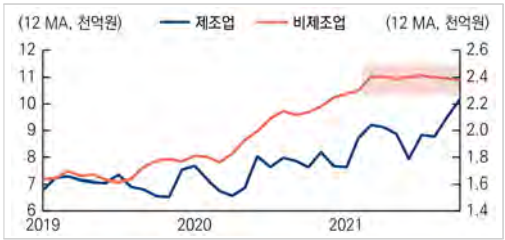
  * 비제조업은 운수·창고 및 통신업, 도소매, 금융 및 사업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건설업 등을 포함

- 비제조업 수주(경상, 전년동월대비,%): ('21.9월)-7.6→(10월)-4.3→(11월)-8.1

[그림 19] 공공부문 공정별 수주(경상) 추이

자료: 통계청

[그림 20] 비제조업 수주(경상) 추이 (12개월 이동평균)



자료: 통계청

[2021년 건설투자]

■ 2021년 건설투자는 토목 부문의 부진이 계속되며 3분기 연속 음의 성장률을 기록

- 2021년 건설투자는 건설자재 가격 상승과 기상여건 악화가 맞물려 부진한 모습
  - 2021년 11월 건설투자 디플레이터가 연초대비 9% 상승
  - 2021년 2/4분기 월평균 강수일수는 최근 5년 평균(8.7일)보다 긴 10.8일을 기록하여 조업에 차질이 발생
- 토목 부문은 기상여건이 악화되어 공사가 지연되며 부진한 모습을 보임
- 건축부문은 주거용 건축이 정체를 나타냈으나 4/4분기 들어 주택착공이 증가하며 개선되는 추이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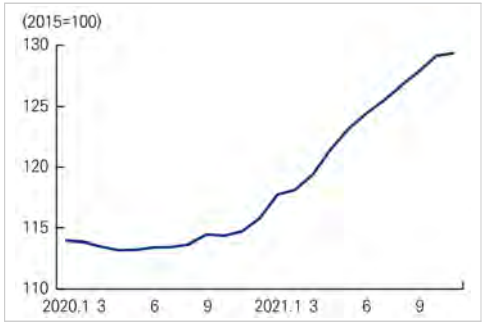
[건설기성 추이]

자료: 통계청

[공종별 건설투자 추이]

자료: 통계청

[건설투자 디플레이터]



자료: 통계청, 국회예산정책처

[주거용 건축 착공 추이]

자료: 통계청

4. 대외거래

가. 수출

수출은 전 세계 교역회복 등에 힘입어 2개월 연속 6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 경신

■ **12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8.3% 늘어난 607.4억 달러로 14개월 연속 증가**

- 수출증가율은 지난해 12월부터 수출이 증가한데 따라 기저효과가 약화되었고, 유가하락에 따른 단가 상승세 둔화 등으로 증가폭이 다소 축소
- 조업일수 영향을 배제한 일평균수출은 24.8억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5.9% 늘어 15개월 연속 증가

■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37.4% 증가한 613.2억 달러로 13개월 연속 증가세**

- 원자재 가격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는 가운데 내수회복과 수출경기 호조 등으로 1차산품(74.8%), 중간재(43.6%), 자본재(9.5%), 소비재(6.5%) 수입이 모두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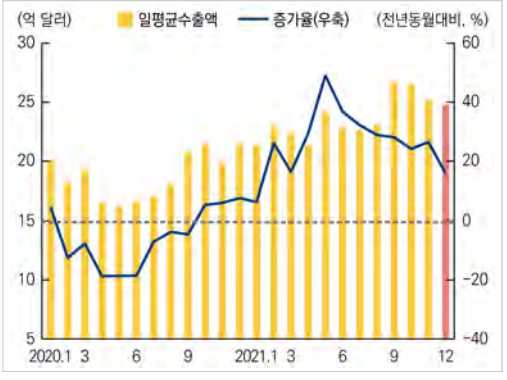
■ **수출보다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무역수지는 20개월만에 적자로 전환(5.9억 달러 적자)**

- 12월 교역액은 1,220.6억 달러로 역대 최대규모 달성

[그림 21] 수출입 증가율 추이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그림 22] 일평균 수출액 및 증가율 추이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9대 지역 수출이 9개월 연속 증가하였고, 4대 시장(중국, 미국, EU, ASEAN)으로의 수출액은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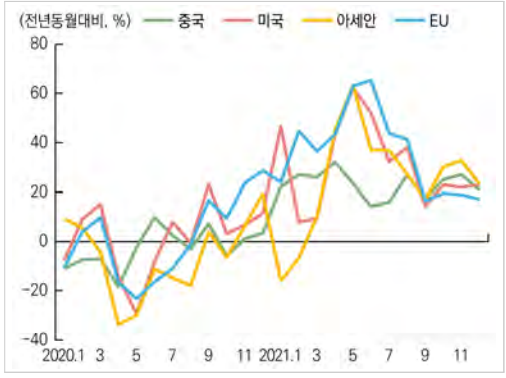
- 특히, 연말 소비시즌을 맞아 중국, 미국, 아세안 지역으로의 수출이 역대 1위 실적을 달성

- 미국으로의 수출은 제조업 및 건설경기 회복으로 일반기계 수요가 증가세를 지속하고 연말 소비시즌을 맞아 가전 수요가 늘면서 22.9% 증가(16개월 연속 증가)
- EU지역으로의 수출은 친환경차 신규 모델의 판매 호조로 자동차 수출이 증가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고부가가치 선박 인도 등으로 33.9% 증가(16개월 연속 증가)
- 중국으로의 수출은 스마트폰, 노트북 등 판매 호조로 반도체와 무선통신이 증가하였고, 현지 공장가동률이 확대됨에 따라 석유화학이 늘어나면서 17.1% 증가(14개월 연속 증가)
- ASEAN 지역으로의 수출은 반도체, 석유제품, 디스플레이 등이 호조를 보이면서 22.3% 증가(10개월 연속 증가)

[그림 23] 2021년 12월 중 지역별 수출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그림 24] 지역별 수출 증가율 추이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나. 경상수지

경상수지는 해상화물 운송수입 증가로 운송수지 호조세가 이어지면서 19개월 연속 흑자 기록

■ **11월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71.6억 달러로 19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전년동월 91.8억 달러 대비 축소**

■ **상품수지는 수출(596.5억 달러)이 수입(537.0억 달러)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59.5억 달러 흑자를 기록**

- 수출(27.1%)은 세계교역 확대로 호조세를 나타냈으나, 원유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입 증가폭(45.3%)이 더욱 커지면서 상품수지 흑자규모는 전년동월보다 40억달러 축소

[그림 25] 항목별 경상수지

자료: 한국은행

■ **서비스수지는 여행수지 적자규모가 증가하였으나, 해상화물 운송수입 증가로 운송수지 흑자규모가 확대되면서 전년동월보다 적자규모가 축소**

- 서비스수지 : (2020.11월) -9.8억 달러→ (2021.11월) -1.4억 달러
- 11월 운송수지는 선박 컨테이너운임지수(SCFI)와 항공화물운임지수(TAC)가 전년 동월대비 각각 143.0%, 88.8% 급등하면서 17.1억 달러 흑자를 기록
- 11월 여행수지는 해외출국자 수 증가 등으로 전년동월(-4.5억 달러)보다 적자폭이 확대된 4.9억 달러 적자를 기록

[그림 26] 운송수입과 SCFI[2] 지수 추이

자료: 한국은행, Shanghai Shipping Exchange, SCFI

■ **본원소득수지는 14.9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여 전년동월(4.8억 달러)에 비해 흑자폭이 확대**

- 배당소득수지가 전년동월 4.3억 달러 적자에서 6.7억 달러 흑자로 전환되고, 이자소득수지가 8.6억 달러 흑자를 기록

2) 상하이컨테이너 운임지수는 상하이거래소(Shanghai Shipping Exchange: SSE)에서 2005년 12월 7일부터 상하이 수출컨테이너 운송시장의 15개 항로의 스팟(spot) 운임을 반영한 운임지수

5. 소비자물가

소비자물가는 농축수산물, 공업제품, 서비스 등 주요 부문에서 상승세가 지속되며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이 3개월 연속 3% 상회

■ **12월 중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3.7% 상승하면서 2021년 10월부터 3개월 연속 3%대 상승률을 기록**

-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제외) 상승률은 공업제품 물가의 상승폭이 축소되었으나 농축수산물, 전기·수도·가스, 서비스 등 주요 품목에서의 물가 상승폭이 확대되며 전월보다 높아진 2.2%를 기록

[그림 27]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추이

자료: 통계청

[그림 28] 주요 품목별 소비자물가상승률 기여도

자료: 통계청

■ **농축수산물 물가는 축산물 물가의 높은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작황 부진에 따른 채소류와 과실류의 가격 상승으로 7.8%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

- 농산물의 경우 잦은 강우와 큰 일교차로 인한 작황 부진, 연말 수요 증가 등으로 채소류와 과실류 가격이 각각 10.0%, 7.3% 상승
- 축산물 물가는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의 영향으로 달걀(33.2%), 돼지고기(14.7%) 등의 가격 상승세가 유지되며 6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기록
- 농축수산물 물가상승률이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에서 차지하는 기여도는 전년동월대비 0.67%p로 전월보다 상승(11월 0.64%p→12월 0.67%p)

[그림 29] 농축수산물 품목별 상승률 추이

자료: 통계청

[그림 30] 석유류제품 가격과 국제유가 상승률

자료: 통계청, Bloomberg

■ **공업제품 물가는 국제유가 상승세 지속, 원재료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석유류와 가공식품 물가의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4.7% 상승**

- 석유류 가격은 11월부터 도입된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브렌트유 기준)가 전년동월대비 49.0% 오르면서 24.6% 상승
- 돼지고기, 밀가루, 원유 등 원재료 가격 인상 영향으로 라면, 유제품 등 가공식품 물가의 상승폭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10월 2.8%→11월 3.4%→12월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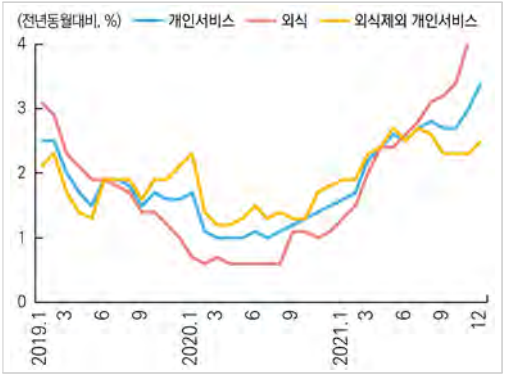
■ **서비스물가는 공공서비스 물가의 상승세가 둔화되었으나, 외식서비스를 포함한 개인서비스 물가의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전년동월대비 2.6% 상승**

- 공공서비스 물가는 휴대전화료(0.3%)의 상승폭이 둔화되면서 전년동월대비 0.9% 상승에 그침
- 개인서비스 물가는 연말 외식수요 증가, 농축산물 원재료 가격 상승 등으로 외식물가의 오름세가 확대(11월 4.1%→12월 4.8%)되면서 3.4% 상승

[그림 31] 품목별 서비스 물가 추이

자료: 통계청

[그림 32] 개인서비스 물가 추이



자료: 통계청

[2021년 소비자물가]

■ 2021년 연간 소비자물가는 전년대비 2.5% 상승하며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

- 2021년 소비자물가는 하반기로 갈수록 상승폭이 더욱 확대되는 양상을 보임(1월 0.9%→12월 3.7%)
- 품목별로는 기상악화, 가축전염병(AI, ASF) 확산 등으로 인해 농축수산물 물가(8.7%)가 가장 많이 상승하였으며, 국제유가 상승으로 공업제품 물가상승률(2.3%)도 높은 수준을 기록
  - 서비스 부문에서는 경기회복과 함께 외식 등 개인서비스 물가의 상승폭이 확대
- 2021년 소비자물가가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은 전년도 기저효과와 함께 코로나19 회복과정에서의 수요 증가로 상품(3.1%), 서비스(2.0%) 등 전체 품목에서의 물가가 상승한 데 기인
  - 최근의 글로벌 공급망 차질, 국제유가 상승 등의 현상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2022년 상반기에도 높은 물가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

[연간 소비자물가 추이]

6. 금융시장

가. 금리

국고채금리는 대내외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된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방역대책 강화 등으로 경기둔화 우려가 높아지면서 전월대비 하락

■ **11월말 오미크론 바이러스 등장으로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방역조치가 강화되는 등 경기 개선 흐름이 지연될 우려가 높아지면서 장단기물 모두 하락**

- 3년 만기 국고채금리(월평균, %): ('21.10월)1.84→(11월)1.95→(12월)1.80
- 10년 만기 국고채금리(월평균, %): ('21.10월)2.40→(11월)2.36→(12월)2.19

■ **또한, 11월말 한국은행의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12월 미국 FOMC 회의 종료로 대내외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면서 채권금리는 안정세**

- 11월 25일 한국은행은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하였으나, 국내 채권금리에 선반영되면서 12월 들어서 하향 안정화
- 미국 FRB는 12월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 규모 확대와 점도표 상 2022년 3차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등 긴축적인 모습을 보임
- 그러나 이는 시장의 예상에 부합한 수준으로 오히려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미국채(10년) 금리는 전월(1.56%)보다 낮은 1.46%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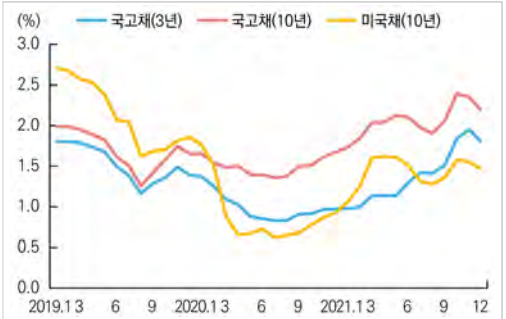
■ **다만, 월말 코로나19 경구 치료제가 승인되고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증상이 경미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발표되면서 채권금리는 상승전환**

- 12월말 국고채 3년물과 10년물은 각각 1.80%, 2.33%를 기록

[그림 33] 국고채금리(3년 만기) 추이

자료: 한국은행

[그림 34] 국고채 및 미국 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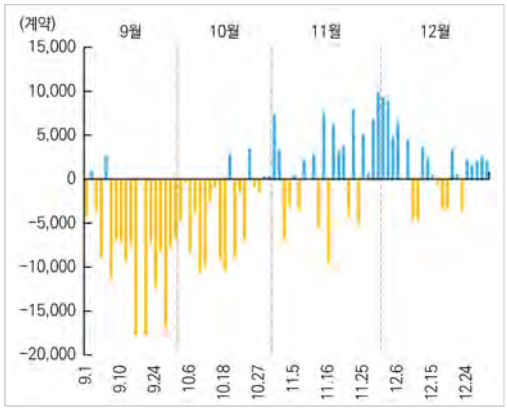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Bloomberg

■ **지난 2개월(9~10월) 간 외국인투자자들은 국고채선물을 대규모로 매도하여 금리상승을 주도하였으나, 11월 중순부터 매수세가 유입되며 순매수로 전환**

- 외국인 국고채선물 순매수(계약): ('21.10월)-74,099→(11월)29,848→(12월)34,637

[그림 35] 외국인의 국고채선물 순매수 추이



자료: 인포맥스

[그림 36] 단기금리와 스프레드 추이

자료: 한국은행

■ **단기금리는 한국은행이 8월에 이어 11월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하면서 상승세**

- 통안증권금리(91일물,월평균,%): ('21.10월)0.81→(11월)0.89→(12월)1.00
- CP금리(91일물,월평균,%): ('21.10월)1.20→(11월)1.34→(12월)1.54

[2021년 국고채 금리]

■ **2021년 국고채 금리는 3년 만기채의 경우 전년 0.99%에서 1.39%, 10년 만기채는 1.50%에서 2.07%로 상승**

- 2021년 국고채 금리는 코로나19 백신 공급, 국내외 경제지표 개선,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상승
  - 7~8월 중 델타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확진자수 증가, 국고채 수급 우려 완화 등으로 소폭 하락
  - 그러나, 9월부터 국내 기준금리의 추가인상 기대, 국내외 물가불안, 주요국 통화정책 방향 전환, 외국인의 국고채선물 대규모 매도 등으로 상승세

[연간 국고채 금리 추이]

자료: 한국은행

[월간 국고채 금리 추이]

자료: 통계청

2021년 12월 회사채 금리는 하락한 반면 11월 기업대출 금리는 대기업대출 금리와 중소기업대출 금리 모두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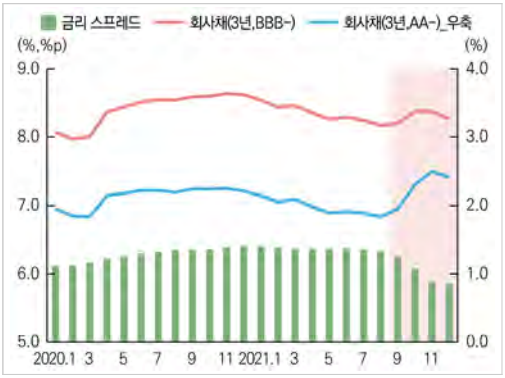
■ **2021년 12월 국내 회사채 금리는 한국은행의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에도 불구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관련 우려 등으로 하락**

- 12월 회사채 3년물(AA-) 금리는 전월 대비 8bp 하락한 2.41%, 회사채 3년물(BBB-) 금리는 전월 대비 11bp 하락한 8.26%를 기록
- 12월 회사채(3년,AA-등급)와 회사채(3년, BBB-등급)간 신용스프레드는 전월대비 3bp 하락한 585bp를 기록

■ **2021년 11월 기업대출 금리는 대기업, 중소기업 대출 금리 모두 4개월 연속 상승한 가운데 대기업이 중소기업대출 금리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며 대출 금리차는 축소**

- 11월 기준 대기업대출 금리는 전월대비 23bp 상승한 2.90%, 중소기업대출 금리는 전월대비 16bp 상승한 3.30%를 기록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대출 금리차가 전월 47bp에서 40bp로 축소
- 한편 11월 가계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6개월 연속 상승세를 나타내며 전월대비 25bp 오른 3.51%를 기록

[그림 37] 회사채 금리 추이



주: 회사채 금리는 월평균 금리
자료: 한국은행 통계시스템

[그림 38] 기업 및 가계 대출금리 추이

주 1) 예금은행 대출 기준
2) 신규취급액 기준
자료: 한국은행 통계시스템

[재원조달 방법에 따른 재정정책의 경제적 효과 차이][3)]

■ **재원조달 방법에 따른 재정의 경제적 정책 효과를 설명하는 대표적 이론은 케인지안 접근법과 리카디언 대등 정리**

- 전통적 케인지안의 이론에 따르면 가격이 경직적일 때 부채조달 재정지출(debt-financing)의 확대는 조세 조달(tax-financing) 재정지출에 비해 산출을 더 크게 증가시킴
  - 다만, 부채 조달 재정지출이 확대되면 공공저축이 감소하고 공공부채 수준이 상승하면서 이자율 상승을 초래하여 장기적으로는 민간소비, 투자, 산출 수준을 감소시킬 가능성
- 반면, 재원조달 방법의 차이가 재정의 경제적 효과의 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리카디언 대등정리도 존재
  - 민간 경제주체가 합리적이고 미래 지향적이라면 정액세를 가정할 때 재정지출 확대 시 재원조달 방법은 중요하지 않다는 주장
  - 한편 리카디언 대등정리는 충족하기 어려운 엄격한 가정을 전제로 하므로 현실적인 가정을 도입한 모형에서는 잘 성립하지 않는다는 단점

■ **기존 연구에서는 다양한 방법론을 활용해 재원 조달방법에 따른 재정의 경제적 효과 차이를 분석**

- DSGE를 이용한 분석 결과, Gali 외 (2007), Farhi 외 (2016), Hagedorn 외 (2019) 등은 부채 조달 승수와 조세 조달(tax-financing) 승수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부채 조달(debt-financing) 승수가 더 큰 것으로 결론

- VAR을 이용한 분석 결과에도서 Mountford 외 (2009)는 부채 조달의 승수가 조세조달 방법보다 더 큰 것으로 분석
- 그 외 실증분석 결과 Sheremirov 외(2015), Barro 외(2011), Norman 외(2016) 등은 조세조달(tax-financing) 승수보다 부채조달(debt -financing) 승수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반면 Ramey (2012)는 VAR 모형 분석 결과 재원조달 방법 간 유의미한 승수 효과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 Gemmell 외(2016)에서는 조세 조달 승수가 부채 조달 승수 보다 약간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기존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실증분석 간 결과가 다소 엇갈리나 부채조달(debt -financing) 시 경제적 효과가 조세 조달 대비 더 크다는 결과가 대체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남**

나. 환율

원/달러 환율은 외국인의 주식 순매수가 증가하면서 안정세를 보였으나 변이바이러스 확산으로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되면서 전월대비 소폭 상승

■ **12월 중 원달러 환율은 월평균 1,184원으로 전월(1,183원)에 비해 소폭 상승**

• 원/달러 환율(월평균): ('21.10월)1,182→(11월)1,183→(12월)1,184

■ **월초 외환시장은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과 미국 연준의 조기 긴축 가능성 등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의 주식 순매수가 큰 폭으로 늘면서 원화강세 양상을 보임**

• 외국인 코스피 순매수(10억원): ('21.10월)-3,573→(11월)2,579→(12월)3,353

■ **월 중순 이후 원달러 환율은 미 연준의 긴축 우려와 유럽 주요국의 경제 봉쇄조치 단계 상향조정 등으로 위험선호 심리가 약화되면서 1,192.9원까지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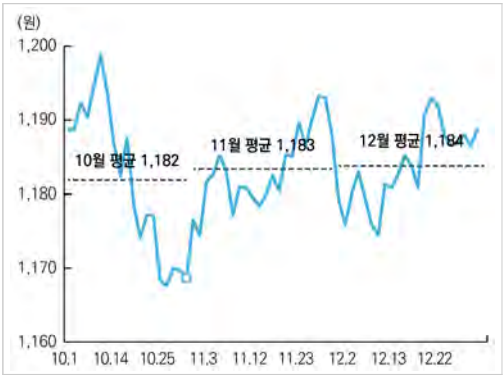
■ **월 중순 큰 폭으로 상승하였던 원달러 환율은 월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불안감이 다소 완화되면서 월말 1,188.8원을 기록**

• 또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Build Back Better" 법안* 통과가 불투명해지면서 미국의 경제회복이 둔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달러약세 요인으로 작용

* 복지확대, 기후변화 대책, 사회 인프라 건설 등이 포함된 2.2조 달러 규모의 지원책이나, 2021년 연내 표결이 사실상 무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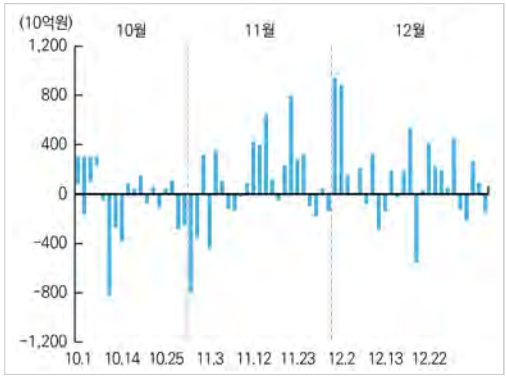
3) 김소영 외(2021), 「재원조달 방법을 고려한 재정지출 효과 분석: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등을 참고하여 작성

[그림 39] 원/달러 환율 추이



자료: 한국은행

[그림 40] 외국인 국내주식 순투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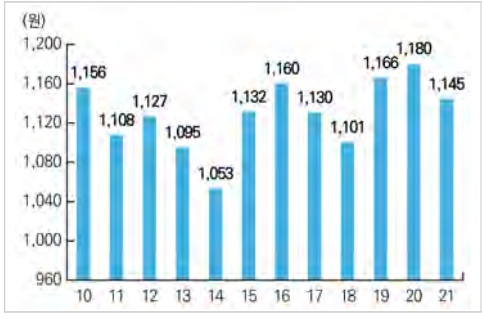
자료: 연합인포맥스

[2021년 원달러 환율]

■ **2021년 원달러 환율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경제 회복에 힘입어 전년에 비해 하락한 연평균 1,145원을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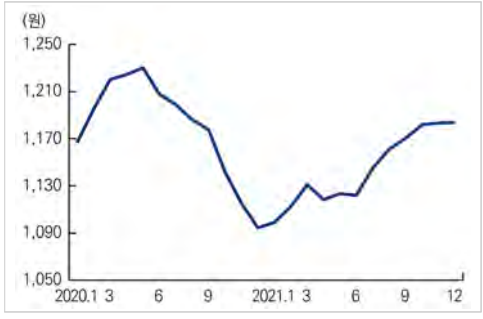
- 원달러 환율은 변이바이러스 확산, 미중 분쟁 격화, 미 연준의 테이퍼링 가능성 등이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경기회복, 경상수지 흑자 등에 힘입어 전년보다 하락
- 원달러 환율은 연평균으로 전년보다 하락하였으나, 연중으로는 상승흐름을 나타냄
  - 달러화 강세, 미 연준의 테이퍼링 조기 시행, 국내외 코로나 19 확산, 외국인의 주식순매도 기조 등으로 1월 1,099원에서 12월 1,184원으로 상승

[연간 원/달러 환율 추이]



자료: 한국은행

[월간 원/달러 환율 추이]



자료: 통계청

다. 주가

2021년 12월말 우리나라 주가는 외국인 매수세 유입 등으로 상승한 가운데 글로벌 주가도 세계 경기 회복세 등으로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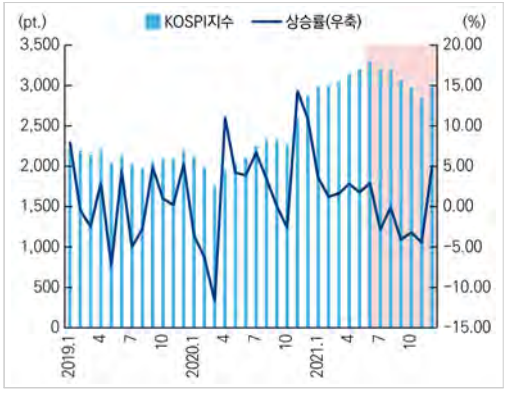
■ **2021년 12월 국내 주가는 코로나19 변이 관련 불확실성에도 불구 외국인 순매수 등으로 상승**

- 12월말 KOSPI지수는 전월말(2,839) 대비 4.8% 상승한 2,978을 기록
- KOSPI지수가 월말 기준으로 상승한 것은 2021년 6월 이후 처음

■ **외국인 투자자는 2021년 4분기 2021년 들어 처음으로 분기 기준으로 국내 주식을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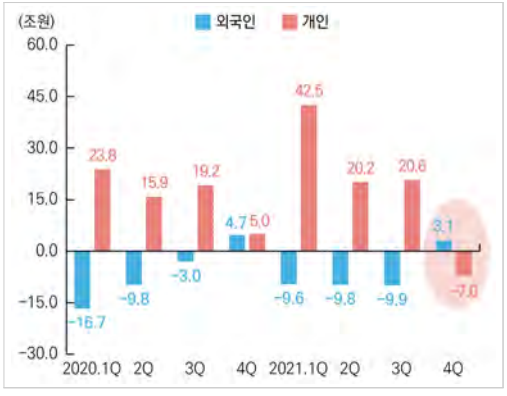
- 외국인 투자자는 2021년 1~3분기 총 29.3조원, 분기 평균 9.8조원의 국내 주식을 순매도 하였으나 4분기 3.1조원 순매수
- 개인 투자자는 7분기 연속 매수세를 지속하며 2020년 63.8조원, 2021년 1~3분기 83.3조원 순매수 하였으나 4분기 7.0조원을 순매도

[그림 41] KOSPI 주가 추이



자료: 한국거래소

[그림 42] 투자자별 순매수 추이



자료: 한국거래소

■ **12월 글로벌 주식시장은 산타랠리[4], 글로벌 경기 회복세 등으로 상승**

- 12월말 기준 선진국 주가는 전월 대비 4.2%, 신흥국 주가는 1.6% 상승
- 한편 12월말 기준 미국, 독일, 일본 주가는 전월 대비 각각 5.4%, 5.2%, 3.5%상승

4) 크리스마스를 사이에 두고 연말과 연초에 증시가 강세를 보이는 현상으로 크리스마스 전후로 기업들의 보너스가 집중되고 기업의 실적이 개선되면서 주가 역시 상승하는 상황을 의미

[그림 43] 글로벌 주가 추이

주: 선진국과 신흥국은 주가는 MSCI지수 기준
자료: Bloomberg

[그림 44] 주요국 주가 추이

주: 미국 주가는 다우존스지수, 일본 주가는 니케이 지수, 독일 주가는 DAX지수 기준
자료: Bloomberg

라. 신용위험

2021년 12월 우리나라 신용위험지표는 대내외 불확실성 완화 등으로 소폭 하락한 가운데 선진국과 신흥국 신용위험지표는 차별화

■ **2021년 12월 한국 신용위험지표는 미 연준의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 발표 등으로 통화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축소되며 소폭 하락**

- 2021년 12월말 기준 한국의 CDS프리미엄[5]은 전월대비 1.2bp 하락한 19.1bp를 기록

■ **글로벌 신용위험지표는 주요국의 경기 회복세와 대외불확실성 완화의 영향으로 신흥국 채권가산금리[6]는 하락, 미국 회사채 스프레드는 전월 수준을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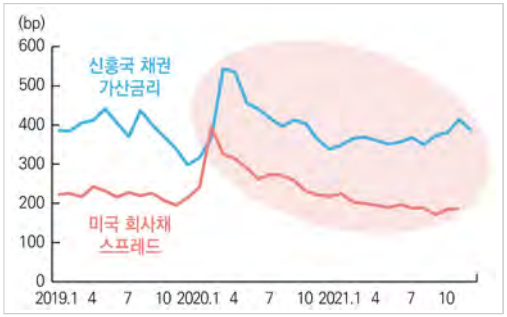
- 2021년 12월말 신흥국 채권가산금리는 전월대비 28.3bp 하락한 386.1bp, 미국 회사채 스프레드는 전월대비 0.8bp 상승한 186.0bp를 기록

5) CDS(Credit Default Swap)는 채권을 발행한 기업이나 국가가 부도날 경우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융파생상품으로 채권을 발행한 기관이나 국가의 신용위험도가 높아질수록 CDS 프리미엄은 상승
6) 신흥국 채권가산금리는 신흥국 채권인덱스(EMBI)와 안전자산인 선진국 채권인덱스 간의 금리 차를 의미. 금융 불안정성 확대로 안전자산 선호가 높아질 경우 신흥국 채권 가산금리가 높아짐

[그림 45] 한국 CDS프리미엄 추이

자료: Bloomberg

[그림 46] 글로벌 신용위험지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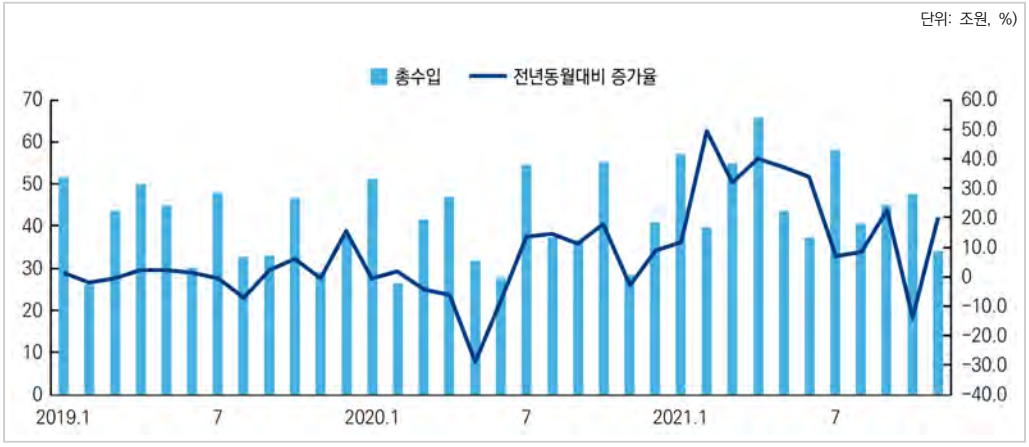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7. 재정수입 및 재정지출

중앙정부 총수입은 사회보장성기금,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증가

■ **2021년 11월 총수입은 34.0조원으로 전년동월대비 5.8조원(20.1%) 증가**

[그림 47] 총수입 추이



자료: 기획재정부「월간재정동향」

■ **국세수입은 16.0조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9조원 증가**

- 법인세는 1.5조원으로, 경기 회복에 따른 기업 영업실적 증가[7]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0.3조원 증가

7) 코스피 12월 결산법인 영업이익은 2020년 67.5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9.8%, 2021년 상반기까지 50.1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69.1% 증가

- 부가가치세는 2.1조원으로, 민간소비와 수입 증가[8]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0.3조원 증가
- 소득세는 10.3조원으로, 세정지원에 따른 기저효과[9]로 전년동월대비 0.6조원 감소
- 기타 세수 중 교통세가 1.3조원으로, 2020년 정유업체에 대한 교통세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기저효과로 전년동월대비 1.3조원 증가

■ **세외수입은 2.1조원으로, 대기업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공정위 과징금 수입(+0.3조원) 및 보건복지부 기타 경상이전수입(+0.1조원)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0.5조원 증가**

■ **기금수입은 15.9조원으로, 재산수입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3.3조원 증가**

- 사회보장성기금 수입은 11.5조원으로, 사회보장성기금 적립금의 자산운용수익 증가(+3.2조원)[10]와 고용회복에 따른 사회보험 가입자수 증가에 따른 보험료 증가(+0.2조원)[11]로 전년동월대비 3.2조원 증가

[표 1] 중앙정부 총수입 현황

(단위: 조원)

	2020년				2021년(잠정)			전년동월대비	
	추경	결산	11월	1~11월	추경	11월	1~11월	11월	1~11월
총수입	470.7	478.8	28.2	437.8	514.6	34.0	523.9	5.8	86.1
국세수입	279.7	285.5	14.0	267.8	314.3	16.0	323.4	1.9	55.6
- 소득세	88.5	93.1	10.9	86.5	99.5	10.3	106.6	-0.6	20.2
- 법인세	58.5	55.5	1.2	54.1	65.5	1.5	68.8	0.3	14.7
- 부가가치세	64.6	64.9	-1.9	64.1	69.3	-1.6	70.3	0.3	6.1
- 기타	68.2	72.1	3.9	63.1	79.8	5.8	77.8	1.9	14.6
세외수입	29.1	26.9	1.6	23.3	29.3	2.1	26.0	0.5	2.7
기금수입	161.9	166.2	12.6	146.7	171.0	15.9	174.5	3.3	27.8
-사회보장성기금[1]	95.8	100.0	8.2	89.6	99.5	11.5	114.1	3.2	24.5

주: 1) 국민연금·사학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의 기여금을 의미

자료: 기획재정부「월간재정동향」

중앙정부 총지출은 소상공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고용유지 및 고용안정망 강화를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증가

■ **2021년 11월 총지출은 37.1조원으로 전년동월대비 4.5조원(13.8%)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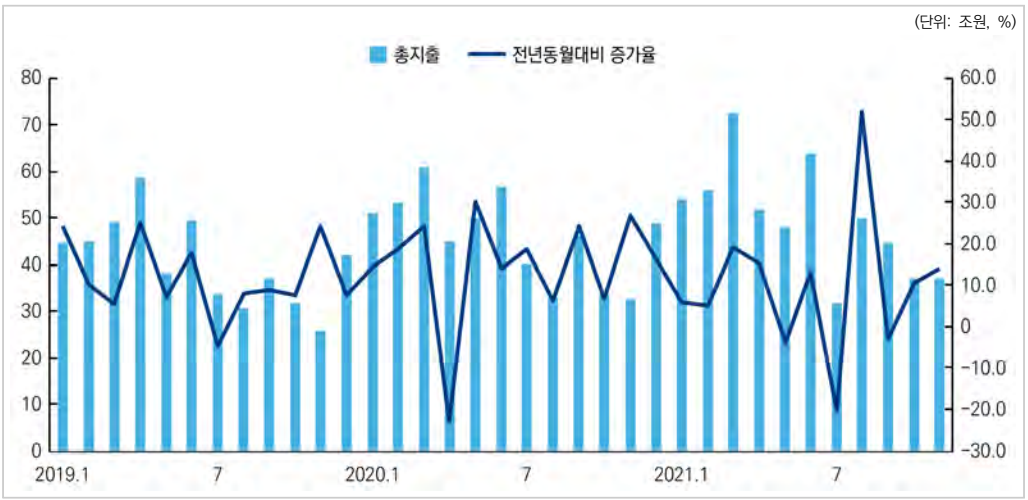
8) 민간소비는 2021년 1분기 전년동기대비 1.3%, 2분기 3.6%, 3분기 3.2% 증가하였고 수입액은 2021년 10월까지 누적 4,964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9.6% 상승

9) 종합소득세는 5월 또는 6월까지 신고하고 8월까지 납부하나 2020년에는 세정지원으로 11월까지 납부가 연장되면서 올해 소득세 납부액이 전년동월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10) 국민연금기금 운용수익률은 2021년 10월 7.63%로 전년동월대비 5.6%p 증가

11) 수출호조, 비대면 수요 증가,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으로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2021년 11월 1,467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4%(34만명), 전월대비 0.3%(5만명) 증가

[그림 48] 총지출 추이



자료: 기획재정부「월간재정동향」

■ **예산은 22.7조원으로, 보통교부금(+1.3조원), 신종감염 위기대응(+0.5조원), 건강보험가입자지원(+0.4조원)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2.3조원 증가**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전년동월대비 0.2조원 감소

■ **기금은 14.4조원으로, 공무원연금 퇴직급여지급(+1.2조원), 소상공인 손실보상(+0.4조원), 주택구입 전세자금지원(+0.5조원)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2.3조원 증가**

- 사회보장성기금 지출은 5.1조원으로, 국민연금 급여지급(+0.3조원)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0.3조원 증가
- 고용여건이 개선되면서 구직급여는 전년동월대비 0.1조원 감소

[표 2] 중앙정부 총지출 현황

(단위: 조원)

	2020년				2021년(잠정)			전년동월대비	
	추경	결산	11월	1~11월	추경	11월	1~11월	11월	1~11월
총지출	554.7	549.9	32.6	501.1	604.9	37.1	546.3	4.5	45.2
예산	377.5	374.4	20.4	347.9	409.7	22.7	368.7	2.3	20.9
일반회계	323.5	320.8	17.6	299.0	348.8	19.6	314.6	1.9	15.6
특별회계	54.0	53.6	2.8	48.8	60.9	3.1	54.1	0.3	5.3
기금	177.3	175.2	12.1	153.0	195.2	14.4	175.2	2.3	22.2
사회보장성기금[1)]	61.2	59.1	4.8	54.6	63.2	5.1	59.5	0.3	4.9
세입세출외	-	0.4	0.0	0.2	-	-	2.4	0.0	2.2

주: 1) 국민연금·사학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기금

자료: 기획재정부「월간재정동향」

산업·고용동향

경제분석국

11월 제조업 생산은 반도체 등의 호조로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고, 전월대비로도 증가

- 자동차(-3.5%)와 조선(-112.1%) 생산이 감소하였으나, 반도체(33.7%), 화학(7.0%) 등 여타 산업의 생산이 모두 증가함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6.2% 증가
- 전월대비로도 화학과 석유 산업 생산이 소폭 감소하였으나, 자동차(11.3%), 무선통신기기(11.8%) 등 여타 산업의 생산이 모두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5.3% 증가

12월 주요 11대 산업의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전월대비로는 감소

- 11대 주요 산업 중 조선(-49.0%)을 제외한 반도체(35.1%)와 철강(49.0%) 등 모든 산업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전년동월대비 20.8% 증가
- 전월대비로는 반도체, 자동차, 일반기계 산업의 수출이 증가한 반면, 조선(-59.7%)무선통신기기(-8.2%) 등의 수출이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1.7% 감소

11월 중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증가세가 이어졌고, 전월대비로도 증가

-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시행(11/1)으로 도매 및 소매(4.2%), 숙박 및 음식점(14.3%), 예술·스포츠·여가(18.5%) 등 모든 부문에서 생산이 늘어 전년동월대비 5.3% 증가
- 전월대비로도 금융 및 보험(3.0%), 숙박 및 음식점(5.6%), 예술·스포츠·여가(8.3%) 등 대부분의 부문에서 생산이 늘어 전체적으로 2.0% 증가

12월 석유, 천연가스 가격은 전월대비 하락한 반면 석탄 가격은 상승하였고, 농산물, 식품, 금속·광물 지수는 전월대비 상승한 반면 귀금속 지수는 하락

- 원유, 천연가스 가격은 전월대비 각각 8.8%, 16.3% 하락한 반면 동절기 발전·난방 수요 확대로 석탄 가격은 7.7% 상승하였고, 전년동월대비로는 모두 크게 상승
- 농산물(0.8%), 식품(1.2%), 금속·광물(2.4%) 지수는 전월대비 상승한 반면 귀금속 지수(-6.8%)는 하락하였고, 전년동월대비로는 금속·광물 지수(17.1%)를 제외하고 모두 하락

12월 중 고용은 코로나19 확진자수 급증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면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부진이 완화되며 전월에 비해 전체 취업자수 증가폭이 확대

- 전체 취업자수는 숙박음식업, 예술·스포츠·여가관련업 등을 중심으로 대면서비스업종에서 코로나19 충격 이후 처음으로 증가 전환되며 전년동월대비 77.3만명(2.9%) 늘며 전월(55.3만 명, 2.0%)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

12월 전국의 주택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및 전월세가격지수 변동률은 지난달 대비 상승폭 축소

- 주택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수도권(0.76%→0.33%) 및 지방(0.51%→0.25%)의 상승폭이 축소되면서 전국은(0.63%→0.29%) 상승폭 축소

Ⅱ. 산업·고용동향

1. 제조업

11월 중 제조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으며, 전월대비로도 증가

■ **자동차와 조선을 제외하고 반도체, 화학, 일반기계 등 여타 산업의 생산이 모두 증가하면서 11월 제조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6.2% 증가**

- 반도체 산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33.7% 증가하며 5개월 연속 30% 이상의 증가율을 유지하였고, 화학, 일반기계도 각각 7.0%, 5.8% 증가한 반면, 자동차(-3.5%), 조선 산업(-12.1%)은 감소폭은 완화되었으나 감소세 지속

■ **전월대비로는 화학과 석유 산업을 제외한 여타 제조업에서 모두 생산이 증가하여 제조업 전체적으로 5.3% 증가**

- 화학과 석유 생산이 각각 0.3%, 0.4% 감소하였으나,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주변장치 산업 생산이 각각 전월대비 11.3%, 11.8%, 13.0% 크게 증가

[표 1] 제조업 생산 동향

(단위: 2015=100, 전년동월대비 %)

산업별	2020			2021			
	9월	10월	11월	9월	10월*	11월*	전월대비
제조업(원지수)	113.0	109.6	111.7	110.7	114.6	118.6	5.3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7.6	-2.8	0.1	-2.0	4.6	6.2	
반도체	24.6	12.3	7.9	30.6	37.6	33.7	4.5
자동차	16.7	-4.0	0.2	-24.2	-13.3	-3.5	11.3
화학	1.9	0.5	-4.0	2.2	2.0	7.0	-0.3
일반기계	9.3	-1.4	8.8	1.5	7.5	5.8	5.7
철강	-0.1	-3.5	-1.3	2.7	2.4	0.7	1.3
조선	12.1	-0.8	0.4	-24.5	-13.7	-12.1	4.7
석유	-10.1	-2.8	-7.2	4.3	4.2	4.0	-0.4
섬유	0.5	-9.8	-4.6	-7.5	0.2	5.5	8.1
무선통신기기	-15.8	-22.1	1.0	12.3	9.1	9.0	11.8
가전	33.1	13.8	18.1	-5.4	5.9	9.3	1.8
컴퓨터 주변장치	-2.4	-1.3	-4.1	-19.3	-12.0	2.6	13.0

주: *표는 잠정치
자료: 통계청

2021년 12월 주요 11대 산업[1]의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전월대비로는 감소

■ **조선 산업의 수출이 전년동월대비 크게 감소하였으나, 여타 산업의 수출이 모두 증가함에 따라 전체적으로는 20.8% 증가**

- 반도체와 철강 수출은 각각 전년동월대비 35.1%, 49.0% 증가하며 여전히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한 반면, 조선 산업은 49.0% 감소
- 다른 산업들의 수출도 증가세는 유지하되 증가폭은 다소 감소

■ **전월대비로는 반도체, 자동차, 일반기계 및 철강 산업의 수출이 증가한 반면, 조선 산업의 수출이 크게 감소하고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주변장치의 수출도 감소하면서 전체 수출이 1.7% 감소**

[표 2] 수출 동향

(단위: 전년동월대비, %)

산업별	2020년				2021년					
	9월	10월	11월	12월	9월	10월	11월*	전월대비	12월*	전월대비
11대산업	1.9	-7.1	-0.2	10.7	21.2	29.4	39.9	9.1	20.8	-1.7
반도체	11.8	10.4	16.4	30.0	28.2	28.8	40.0	7.7	35.1	6.2
자동차	18.0	0.6	3.5	1.9	-5.8	-3.6	1.5	6.3	10.5	6.5
화학	-5.7	-14.2	-7.8	-1.4	52.3	69.1	69.2	-3.2	34.3	-1.3
일반기계	0.3	-10.9	-7.5	2.5	7.7	12.6	11.6	7.9	6.2	6.2
철강	1.5	-6.9	-4.7	-7.8	41.6	48.4	45.9	-0.7	49.0	7.8
조선	-3.6	-22.0	32.4	106.2	-40.4	6.5	237.5	128.6	-49.0	-59.7
석유	-45.0	-50.4	-48.8	-34.8	84.8	147.7	123.9	-3.6	79.2	-2.1
섬유	11.2	-15.9	-6.4	2.8	-3.8	21.9	17.0	4.4	11.1	3.9
무선통신기기	-13.0	-12.0	18.9	38.2	19.7	15.5	16.6	7.2	4.8	-8.2
가전	30.0	14.3	19.9	23.5	-4.1	13.8	21.0	-2.6	11.8	-2.2
컴퓨터 주변장치	17.6	5.2	15.5	23.0	30.2	212	31.9	13.3	16.7	-2.7

주: *표는 잠정치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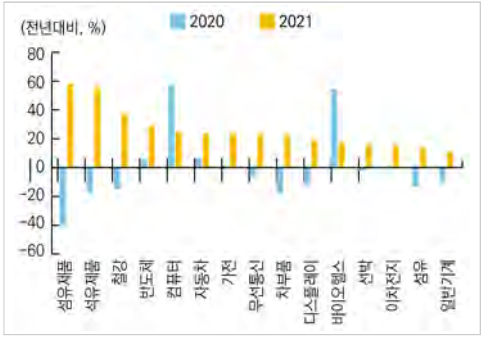
1) 자동차(수송기계), 반도체, 화학, 일반기계, 철강, 조선, 석유, 무선통신기기, 섬유, 가전, 컴퓨터 주변장치를 의미하며, 자동차는 자동차부품을 포함

[2021년 수출입 동향]

■ **2021년 연간 수출은 전년대비 25.8% 증가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였고, 수입액도 최초로 6천억 달러를 넘어서며 사상 최대 규모의 무역액을 기록**

- 2021년 연간 총 수출액은 6,445억 달러, 총 수입액은 6,151억 달러로 연간 무역규모는 1조 2,596억 달러를 기록
  - 수출은 2019~2020년 미중 무역분쟁과 코로나19 등에 따른 글로벌 교역 둔화로 인한 2년 연속 감소세에서 증가 전환
  - 무역수지는 294.9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13년 연속 흑자를 이어감
- 15대 주요품목 및 9대 주요지역으로의 수출이 모두 증가하며 지역별·품목별 고른 증가세를 보임
  - 반도체,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 수출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바이오헬스, 이차전지 등이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부각
  - 중국, 미국, EU, 아세안, 인도 등으로의 수출은 역대 1위 실적을 달성할 만큼 크게 증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 산업의 11월 생산은 국내산 반도체에 대한 대내외 수요가 늘어 증가하였으며, 12월 수출도 증가세가 지속

■ **11월 중 생산은 D램의 생산은 줄었으나, 신규 스마트폰 출시로 모바일 수요 증가와 파운드리 분야의 수율[2]개선이 이루어진 가운데 국내 시스템반도체에 대한 해외 고객사의 수요확대 등으로 시스템반도체 부문의 생산이 늘어 전년동월대비 33.7% 증가하였으며 전월대비로도 증가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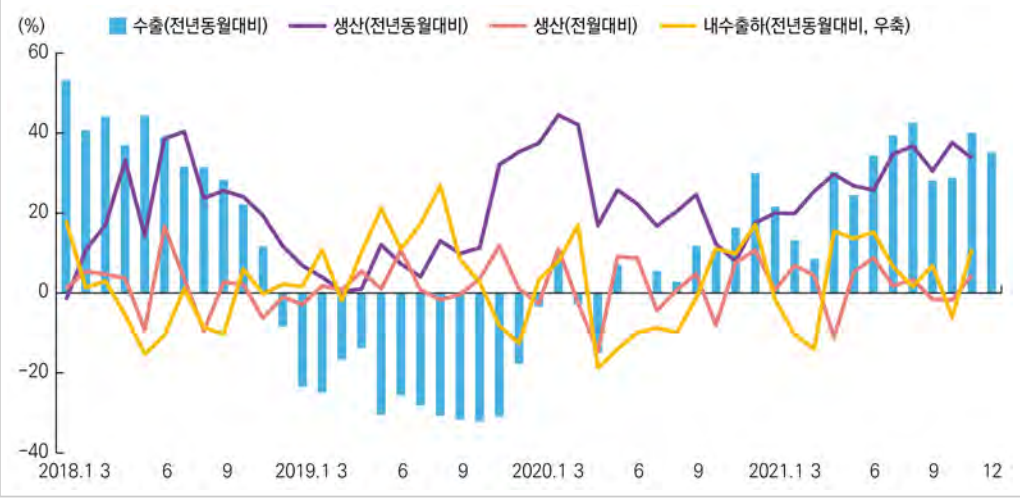
2) 투입 수에 대한 완성된 양품(良品)의 비율

- 생산(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9월)30.6→(10월)37.6→(11월)33.7
- 생산(전월대비) 증감률(%): ('21.9월)-1.6→(10월)-1.7→(11월)4.5
- 내수출하(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9월)6.8→(10월)-6.0→(11월)11.0

■ **12월 중 수출(127.8억 달러)은 D램과 낸드플래시 가격이 전년동월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IT 기기(모바일 등) 수요에 따른 판매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35.1% 증가하며 18개월 연속으로 증가**

- D램 고정가격(DDR4 8Gb, 달러): ('20.12월)2.85→('21.12월)3.71
- 낸드플래시 고정가격(128Gb 16Gx8 MLC, 달러): ('20.12월)4.20→('21.12월)4.81
- 수출(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9월)28.2→(10월)28.8→(11월)40.1→(12월)35.1

[그림 1] 반도체 산업 생산·출하·수출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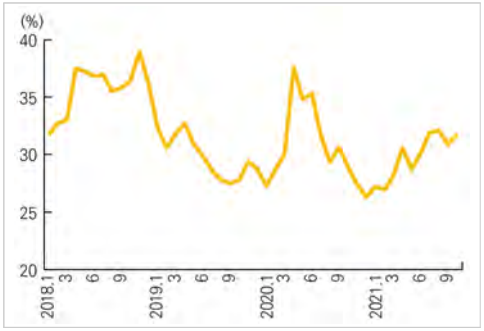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D램 가격·수출 변동 추이와 최근 반도체 수출 동향]

■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은 메모리 반도체의 비중이 높은 가운데, 메모리 반도체는 비메모리 반도체보다 가격 변동성이 크게 나타남**

- 반도체 수출 중 D램 수출비중은 약 30%를 나타내고 있으며, 비메모리 반도체보다 경기에 민감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특성상 D램 가격 변동은 국내 반도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큼

[반도체 수출 중 D램 수출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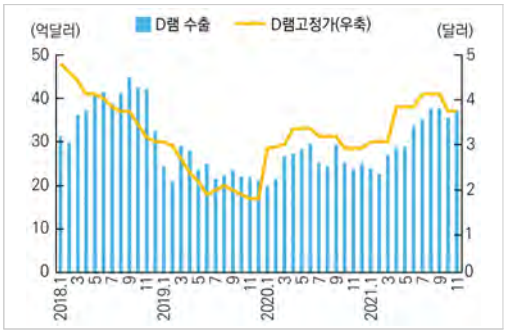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및 비메모리 반도체 매출액 증감률 추이]

자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최근 국내 반도체 수출은 대규모 서버교체의 수요, DDR5로의 D램 전환 등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확대와 시스템 반도체 성장 등으로 증가함**

- 2021년 11월 반도체 수출은 3분기 대비 D램 고정가격이 하락하였으나, 신규 스마트폰에 대한 모바일 수요와 시스템 반도체의 성장으로 상승세를 보임
  - 2021년 11월 반도체 수출은 3분기 대비 D램 가격이 하락하였으나, 2020년 5월 이후 증가세를 보이며 120억 달러를 기록
  - 메모리 반도체는 전년동월대비 47.2% 증가한 76.4억 달러, 시스템 반도체는 5G, IoT 관련 자동차·가전·통신장비의 수요 증가로 30.4% 증가한 39.0억 달러를 기록
  - D램 고정가격(달러, DDR4 512Mx8): ('21.1Q)3.00→(2Q)3.80→(3Q)4.10→(4Q)3.71

[D램 수출 및 D램 고정가격 추이]



[반도체 수출 및 D램 고정가격 추이]

주: DRAM: DDR4_8Gb_1Gbx8_chip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자동차 산업 11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감소하였으나 전월대비로는 크게 증가하였으며, 12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크게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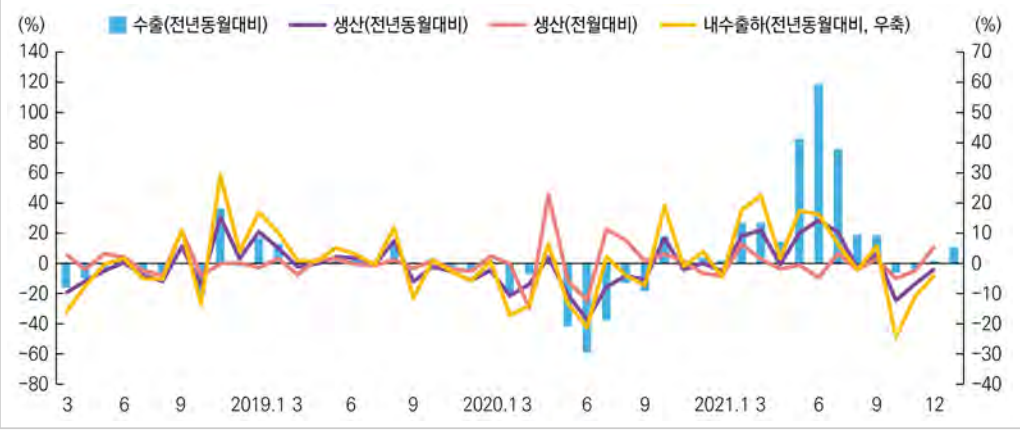
■ **11월 생산은 차량용반도체 수급난이 점차 완화되고 그동안 생산차질에 대한 생산 만회 노력(특근, 가동률 상향 조정) 등으로 생산 감소폭이 크게 줄어들어 전년동월대비 3.5% 감소에 그쳤고, 전월대비로는 11.3% 증가함**

- 전년동월대비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부문은 11.4% 증가한 반면,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과 자동차 부품 제조업 부문에서 각각 4.8%, 3.0% 감소함
- 전월대비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자동차 부품 제조업,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부문에서 각각 15.0%, 9.2%, 7.2% 증가함
- 생산(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9월)-24.2→(10월)-13.3→(11월)-3.5
- 생산(전월대비) 증감률(%): ('21.9월)-9.7→(10월)-4.8→(11월)11.3
- 내수출하(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9월)-24.0→(10월)-10.8→(11월)-3.6

■ **12월 수출은 차량용반도체 수급이 완전히 정상화되지는 못했지만, 국내 공장의 가동률이 점차 회복되고 유럽 등 주요시장에서 신규 출시 친환경차 모델이 좋은 반응을 이어가면서 전년동월대비 10.5% 증가함**

- 세부 부문별로 자동차 부문은 전년동월대비 17.3% 크게 증가한 반면, 자동차 부품 부문은 전년동월대비 1.0% 감소함
- 유럽·중국 등 주요 지역의 해외 현지공장 가동률이 정상화되지 못하면서 자동차 부품 수출이 소폭 감소함
- 수출(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9월)-5.8→(10월)-3.6→(11월)1.5→(12월)10.5

[그림 2] 자동차 산업 생산·내수출하·수출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화학 산업 11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으나 전월대비로는 소폭 감소하였으며, 12월 수출은 12개월 연속 전년동월대비 증가함

■ **11월 생산은 방한복, 의료기기, 의료의류 등 제조업에서 생산이 증가하면서 기초화학물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연말연시 플라스틱 포장재 수요 증가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7.0% 증가한 반면, 전월대비로는 0.3% 소폭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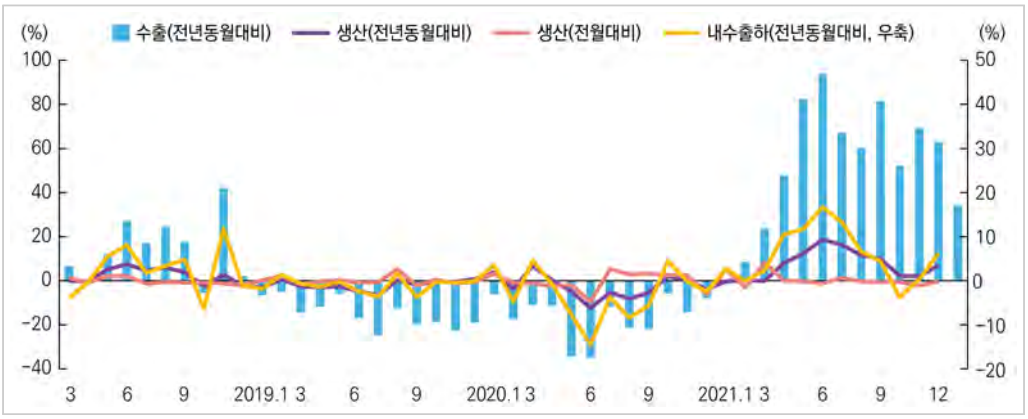
- 전년동월대비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에서 14.8% 감소하였으나 기여도는 -0.22%p로 화학 산업 전체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으며,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화학섬유 제조업,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에서 각각 14.6%, 4.6%, 4.4%, 2.4% 증가함(기여도 각각 4.68%p, 1.82%p, 0.07%p, 0.63%p)
- 전월대비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에서 각각 17.8%, 3.5%, 1.4% 감소(기여도 각각 -0.27%p, -1.27%p, -0.37%p)한 반면,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화학섬유 제조업에서 각각 5.2%, 1.3% 증가(기여도 각각 1.83%p, 0.02%p)함
- 생산(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9월)2.2→(10월)2.0→(11월)7.0
- 생산(전월대비) 증감률(%): ('21.9월)-0.6→(10월)-2.2→(11월)-0.3
- 내수출하(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9월)-3.7→(10월)0.3→(11월)6.2

※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도료, 인쇄잉크 및 매스틱, 비누, 세정 및 광택제, 화장품, 화약 및 폭발물, 접착제 및 젤라틴 유도체 등 완제품 상태의 각종 화학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

■ **12월 수출은 건설·자동차 등 전방산업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고 국제유가 상승과 함께 석유화학 수출단가도 함께 상승하면서, 전년동월대비 34.3% 증가함**

- 합성수지·고무 수출이 증가하면서 중국·아세안 등 주요 시장으로 수출이 대폭 증가함
- 수출(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9월)52.3→(10월)69.1→(11월)62.9→(12월)34.3

[그림 3] 화학 산업 생산·내수출하·수출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일반기계 산업의 11월 생산은 해외수요의 큰 폭 증가에 따른 수주 호조세로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고, 12월 수출도 주요 지역으로의 수출이 고르게 증가하며 전년동월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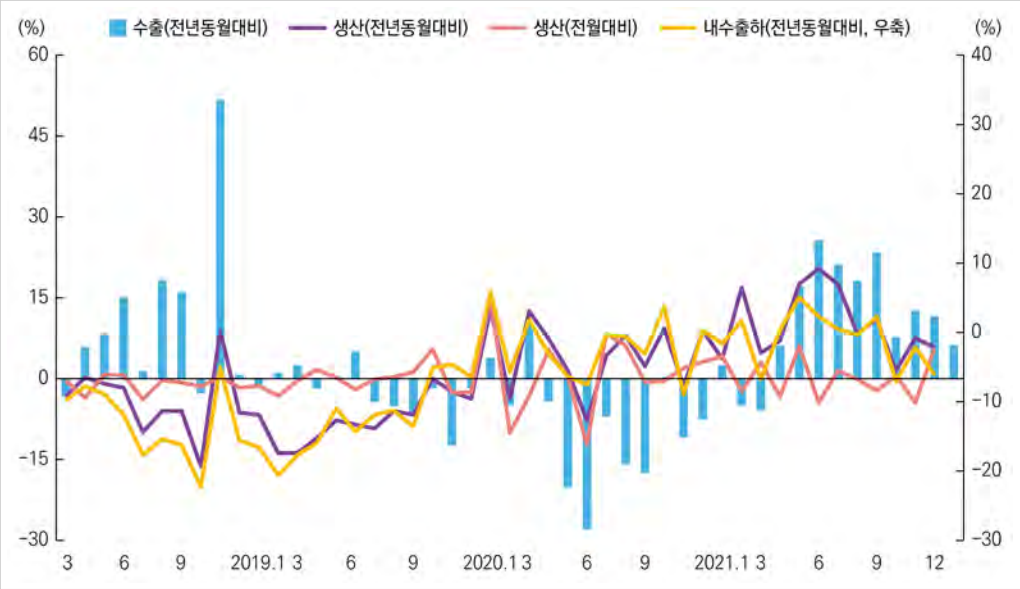
■ **11월 생산은 국내(9.1%)와 해외(76.9%)에서 모두 수주액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5.8% 증가하며 13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전월대비로도 5.7% 증가하였고, 내수출하도 전년동월대비 0.7% 증가**

- 생산(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9월)1.5→(10월)7.5→(11월)5.8
- 생산(전월대비) 증감률(%): ('21.9월)0.6→(10월)-4.4→(11월)5.7
- 내수출하(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9월)-0.5→(10월)5.8→(11월)0.7
- 수주액(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9월)70.9→(10월)17.3→(11월)46.6

■ **12월 수출은 세계 제조업의 경기회복과 주요국의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의 영향으로 공작기계와 건설기계를 중심으로 수출 증가세가 유지됨에 따라 역대 최고 수출액을 달성(50.3억 달러)하면서, 전년동월대비 6.2% 증가하여 10개월 연속 증가**

- 수출(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9월)7.7→(10월)12.6→(11월)11.6→(12월)6.2

[그림 4] 일반기계 산업 생산·수출·내수출하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철강 산업의 11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증가세는 둔화되었으나 전월대비로는 증가하였고, 12월 수출은 경기회복에 따른 국제 수요의 지속적 증대로 견고한 호조세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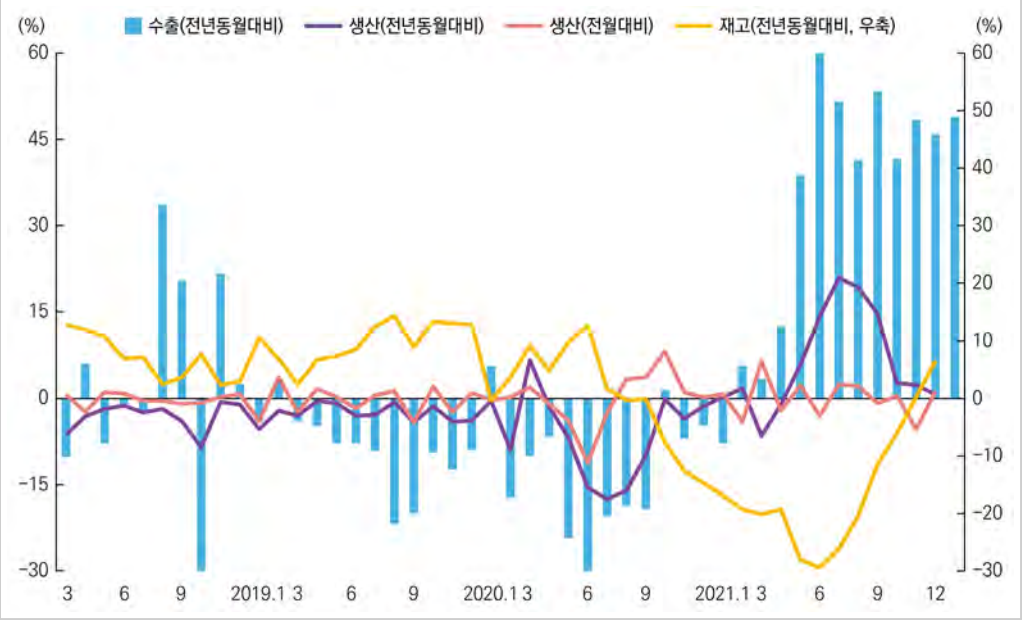
■ **계속되는 경기회복에 따른 지속적 수요에 힘입어 철강생산은 전년동월대비 0.7% 증가하였고, 국내 자동차·일반기계 등 전방산업의 회복세가 지속됨으로써 전월대비로는 1.3% 증가**

- 생산(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9월)2.7→(10월)2.4→(11월)0.7
  - 생산(전월대비) 증감률(%): ('21.9월)0.5→(10월)-5.3→(11월)1.3
  - 재고(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9월)-6.0→(10월)0.3→(11월)6.6

■ **원자재·원료의 가격급등에 따른 단가 상승과 해외 자동차·건설·기계 등 전방산업의 경기 호조, 고급철강 수요의 증대로 인하여 12월 철강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49.0% 증가**

- 수출(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9월)41.6→(10월)48.4→(11월)45.9→(12월)49.0

[그림 5] 철강 산업 생산·수출·재고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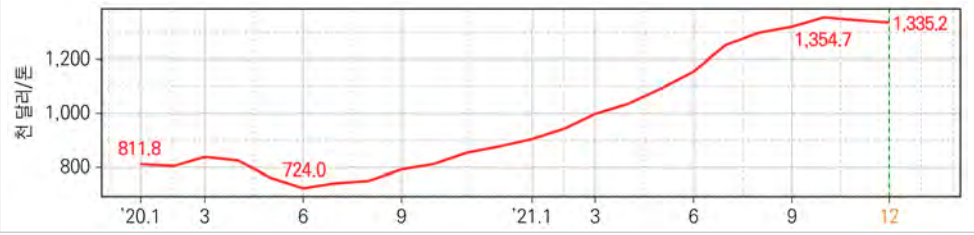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021년 한국의 철강 수출과 철광석 가격 추이]

■ 2021년 철강 수출은 원자재 가격 급등과 세계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 확대, 전방산업의 호조세에 힘입어 증가세를 보임

- 철강재 수출단가는 철광석 가격 급등과 함께 2020년 하반기부터 빠르게 상승하기 시작하여 2021년 12월 그 증가세가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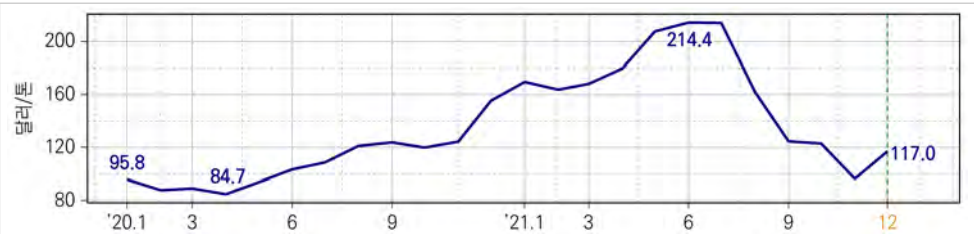
[철강재 수출단가 추이]



자료: 한국철강협회 자료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 세계경기가 회복되며 건설, 기계, 자동차와 같은 전방산업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수출이 전년대비 37.0% 증가
  - 일본: 중국의 정부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감산으로 국내산 철강재 수요 증가
  - 중남미: 자동차 제조용 냉·열연강판 판매 호조
  - 인도: 정부 주도 인프라 프로젝트 재개, 제조용 특수강 수요 견조
  - CIS: 극동지역 건설경기 회복으로 관련 원부자재 수요 증가
- 철광석 원자재의 가격은 2020년 5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상승세를 보임
  - 이 기간 동안 철광석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은 중국의 산업활동 재개에 따른 수요 증가, 중국의 철광석 수입 증가, 중국의 주요 항구 철광석 재고량 감소, 코로나로 인한 브라질의 철광석 생산 차질, 호주와 브라질의 수출 출하량 감소 등이 있음
  - 2021년 8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철광석 원자재 가격은 하락세를 보였는데, 이는 중국 정부가 탄소 저감을 위해 철강재 감산 규제 조치를 취함에 따라 수요 감소에 영향을 받음

[철광석 원자재 가격 추이]



자료: 세계은행(World Bank) 자료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조선 산업의 11월 생산은 2020년 수주감소의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감소세가 이어졌으며, 12월 수출도 기저효과로 전년동월대비 감소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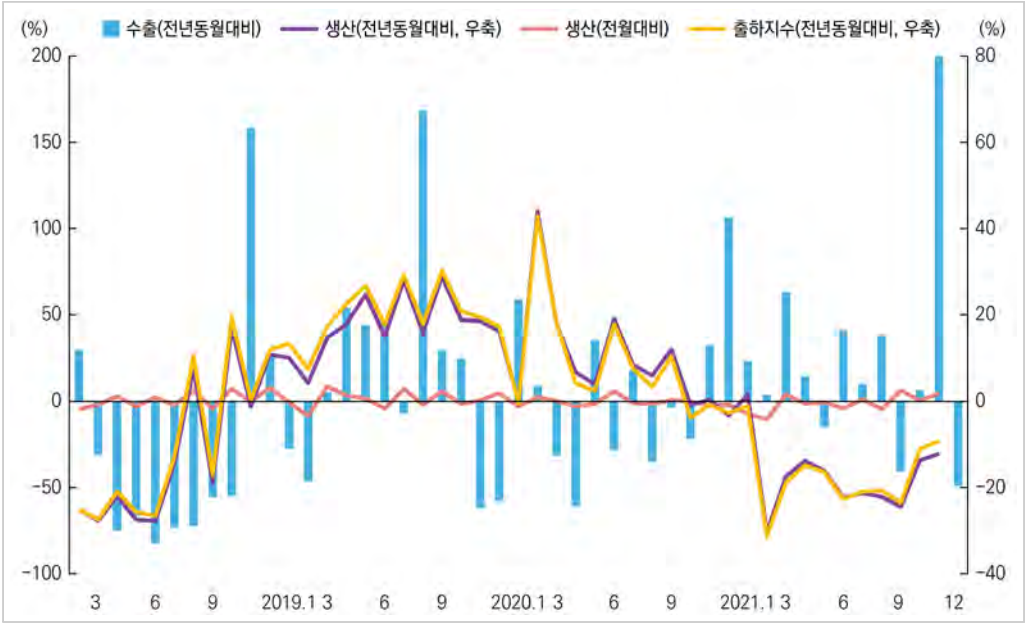
■ **11월 중 생산은 2020년 9월~11월간 국내 수주가 전년동기대비 3.7% 줄어든 영향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12.1% 감소하였으며, 출하도 9.1% 감소**

- 11월 수주는 전년동월대비 32.6% 감소한 110만 CGT(Compensated Gross Tonnage)를 기록
- 생산(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9월)-24.5→(10월)-13.7→(11월)-12.1
- 생산(전월대비) 증감률(%): ('21.9월)-19.5→(10월)-19.2→(11월)-13.2
- 출하(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9월)-23.5→(10월)-11.1→(11월)-9.1

■ **12월 중 수출(14.2억 달러)은 수출 증가폭(106.2%)이 컸던 2020년 12월(27.9억 달러) 기저효과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49.0% 감소**

- 12월에는 LNG 운반선 2척, LPG 운반선 2척, 컨테이너선 1척, 탱커 11척 등 수출
- 수출(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9월)-40.4→(10월)6.5→(11월)237.5→(12월)-49.0

[그림 6] 조선 산업 생산·수출·출하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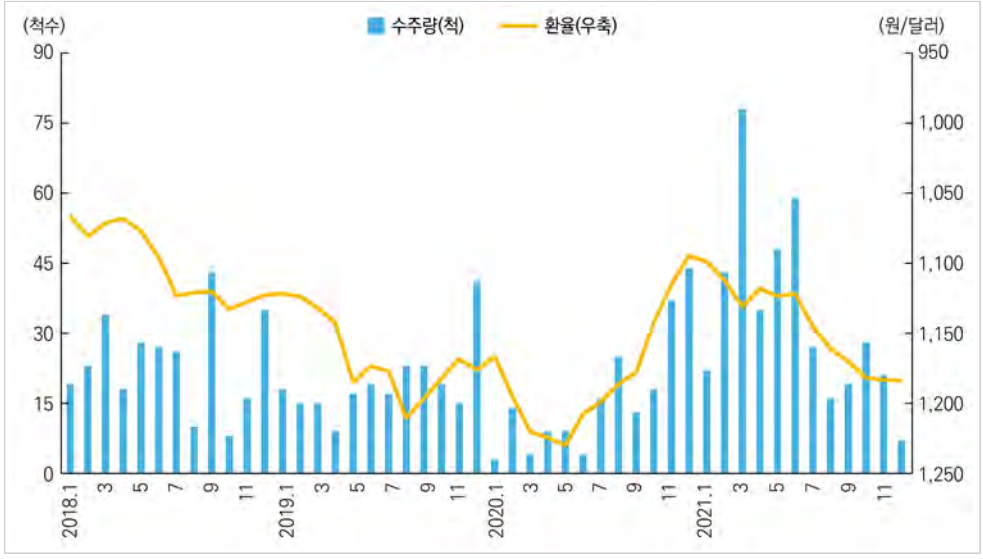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021년 조선 수주의 특징]

■ **2021년 우리나라 조선 수주량은 코로나19 이후 물동량 증가로 선주들이 발주량을 늘리고, 원화강세 효과 등으로 8년 만에 최대 실적을 기록**

- 2021년 글로벌 발주량은 4,696만CGT로 전년대비 94.6% 증가하였으며, 고부가가치 선박과 친환경 선박건조 기술을 보유한 국내 조선소는 글로벌 발주량 중 37.1%의 수주비중을 기록함
- 2021년 국내 수주량은 403척으로 전년대비 207척이 증가하였으며, CGT로도 1,744만CGT를 수주하여 전년대비 37% 증가하며 2013년 이후 최대실적을 기록함
- 2020년 말부터 원화강세가 나타나면서 국내 선박 수주량이 증가함
  - 국내 수주량은 원화강세 구간에서는 선박 수주량이 증가하지만, 원화약세 구간에서는 선박 수주량이 감소되는 움직임을 보임
  - 2021년 평균 원/달러 환율은 1,144.61원으로 2020년(1,180.01원) 대비 상승
  - 우리나라 조선업은 선박분야 기술과 기자재 생산의 국산화를 통해 원화선가를 기준으로 선박 수주협상이 이루어지므로, 원화가치가 상승하면 해외 선주들은 추가적인 외화선가 상승을 염두에 두고 발주를 늘리면서 국내 수주량이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냄

[조선 수주량과 환율과의 관계]



주: 환율은 원/달러(종가) 평균자료
자료: 한국은행, 산업통상자원부

석유 산업의 11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으나 전월대비로는 소폭 감소하였으며, 12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0개월 연속 증가함

■ **석유 산업의 11월 생산은 경기 회복에 따라 휘발유, 항공유, 윤활유 등의 생산이 증가하면서 전년동월대비 4.0% 증가하였으며, 전월대비로는 벙커C유의 생산은 증가한 반면, 납사※, 경유, 등유, 휘발유 등의 생산이 감소하면서 0.4% 감소함**

- 생산(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9월)4.3→(10월)4.2→(11월)4.0
- 생산(전월대비) 증감률(%): ('21.9월)-2.2→(10월)0.5→(11월)-0.4
- 재고(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9월)5.2→(10월)6.4→(11월)14.9

※ 납사(또는 나프타, Naphtha): 원유를 증류할 때 30~220°C의 비등점에서 얻어지는 탄화수소의 혼합체로 석유화학제품의 주 원료

[표 3] 생산 비중 상위 5개 석유제품별 11월 생산량, 비중, 전년동월대비 및 전월대비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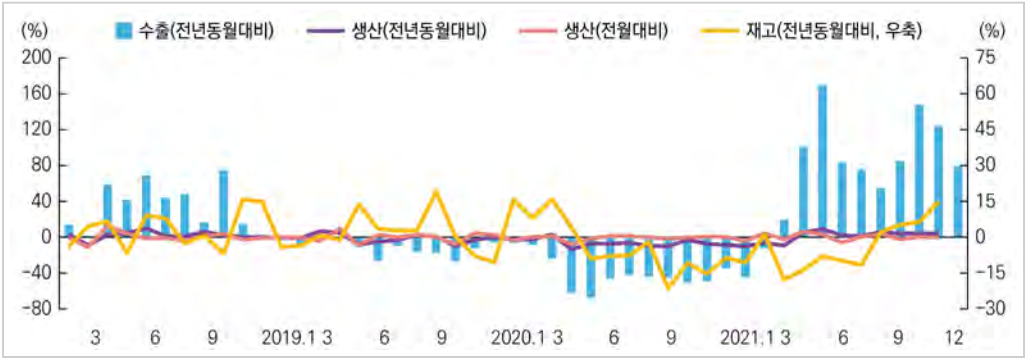
	경유	납사	휘발유	항공유	벙커C유
생산량(천Bbl)	28,094	23,488	14,669	8,082	6,753
비중(%)	28.7	24.0	15.0	8.3	6.9
전년동월대비(%)	2.0	3.2	21.4	25.4	6.7
전월대비(%)	-3.3	-5.8	-3.0	-4.4	13.9

자료: Petronet(한국석유공사)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12월 수출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국제유가가 소폭 하락하기는 하였지만 전년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이와 함께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석유제품 수출단가, 글로벌 에너지 수요 회복세 등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79.2% 큰 폭으로 증가함**

- 석유제품 수출 단가($/배럴): ('20.12월)49.8→('21.12월)73.0(전년동월대비 46.5% 상승)
- 수출(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9월)84.8→(10월)147.7→(11월)123.9→(12월)79.2

[그림 7] 석유 산업 생산·재고·수출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섬유 산업의 11월 생산은 재고가 꾸준히 감소하며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고, 12월 수출은 아세안·중국 등 주요 소싱 지역으로의 수출이 증가하며 전년동월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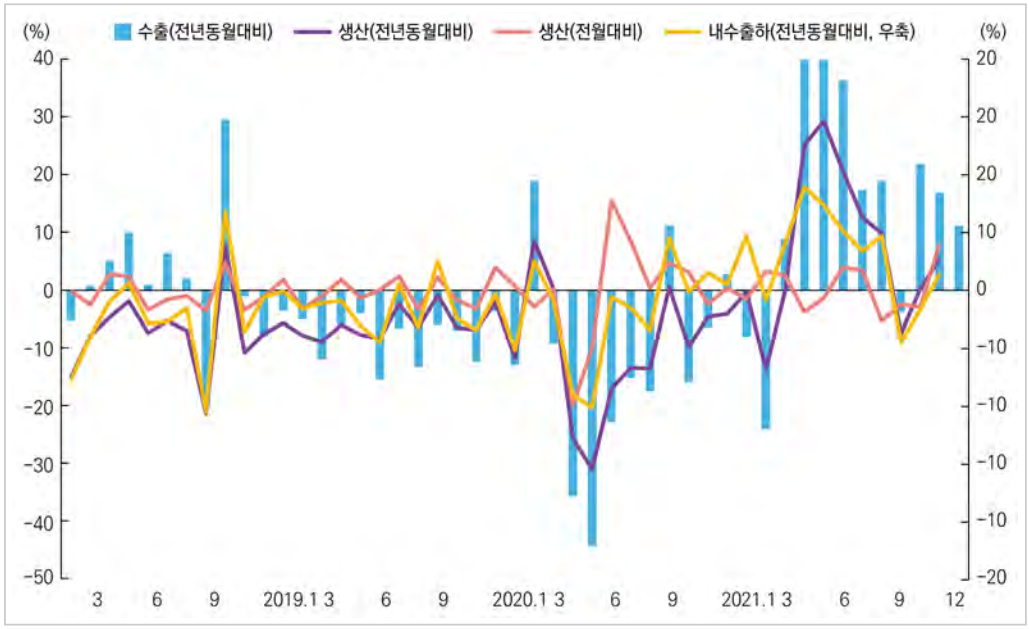
■ **11월 내수출하(2.9%)가 증가하고 재고(-0.2%)가 3개월 연속 감소하면서 섬유제조업의 가동율이 전년동월대비 큰 폭으로 상승(18.5%)함에 따라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5.5%, 전월대비 8.1% 증가**

- 생산(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9월)-7.5→(10월)0.2→(11월)5.5
- 생산(전월대비) 증감률(%): ('21.9월)-2.5→(10월)-2.9→(11월)8.1
- 내수출하(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9월)-9.0→(10월)-3.4→(10월)2.9

■ **12월 수출은 고부가기능성 섬유 수출로의 전환이 꾸준히 이루어지는 가운데, 한류 확산에 따른 국산 패션의류 수요 확대와 글로벌 의류 수요 회복 등의 영향으로 아세안·중국 등 주요 소싱 지역으로의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11.1% 증가하며 3개월 연속 증가**

- 수출(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9월)-3.8→(10월)21.9→(11월)17.0→(11월)11.1

[그림 8] 섬유 산업 생산·수출·내수출하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무선통신기기 산업의 11월 생산은 국내산 제품에 대한 수요 지속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증가세가 이어졌으며, 12월 수출도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가 늘면서 전년동월대비 증가세가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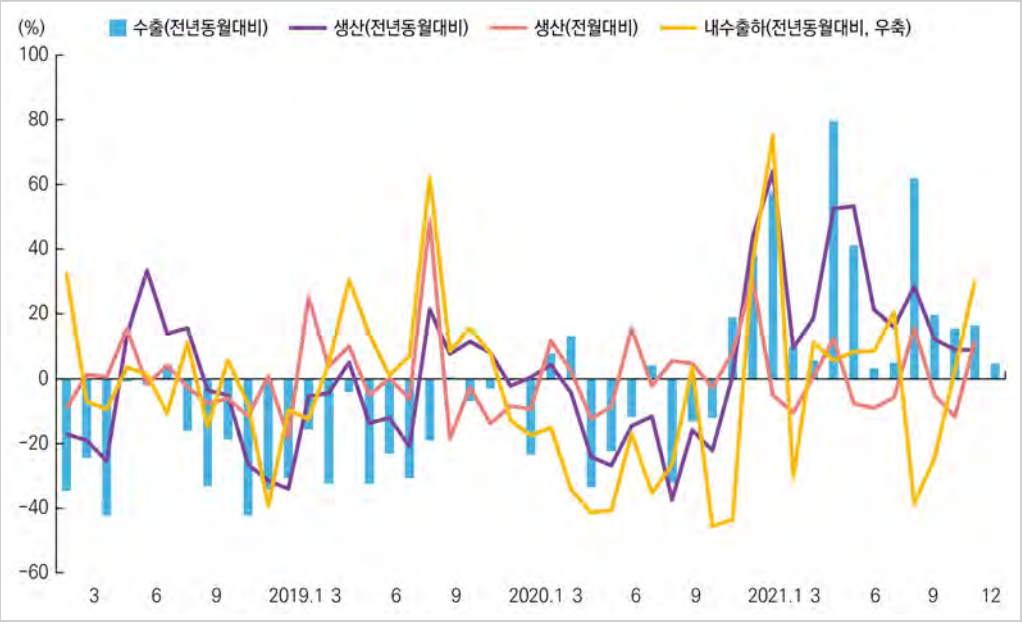
■ **11월 중 생산은 신제품에 대한 내수 호조로 전년동월대비 9.0% 증가하였으며, 전월대비로도 11.8% 증가로 전환**

- 생산(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9월)12.3→(10월)9.1→(11월)9.0
- 생산(전월대비) 증감률(%): ('21.9월)-5.0→(10월)-11.7→(11월)11.8
- 내수출하(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9월)-24.3→(10월)2.7→(11월)30.3

■ **12월 중 수출(15.4억 달러)은 국내산 프리미엄 스프마트폰 제품에 대한 글로벌 수요 확대와 5G 스마트폰 판매호조에 따른 부품 등의 대중 수출이 15.8% 증가하며 전년동월대비 4.8% 증가**

- 수출(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9월)19.9→(10월)15.5→(11월)16.6→(12월)4.8

[그림 9] 무선통신기기 산업 생산·내수출하·수출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가전 산업의 11월 생산은 계절가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으며, 12월 수출은 국내산 제품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이어지면서 증가세가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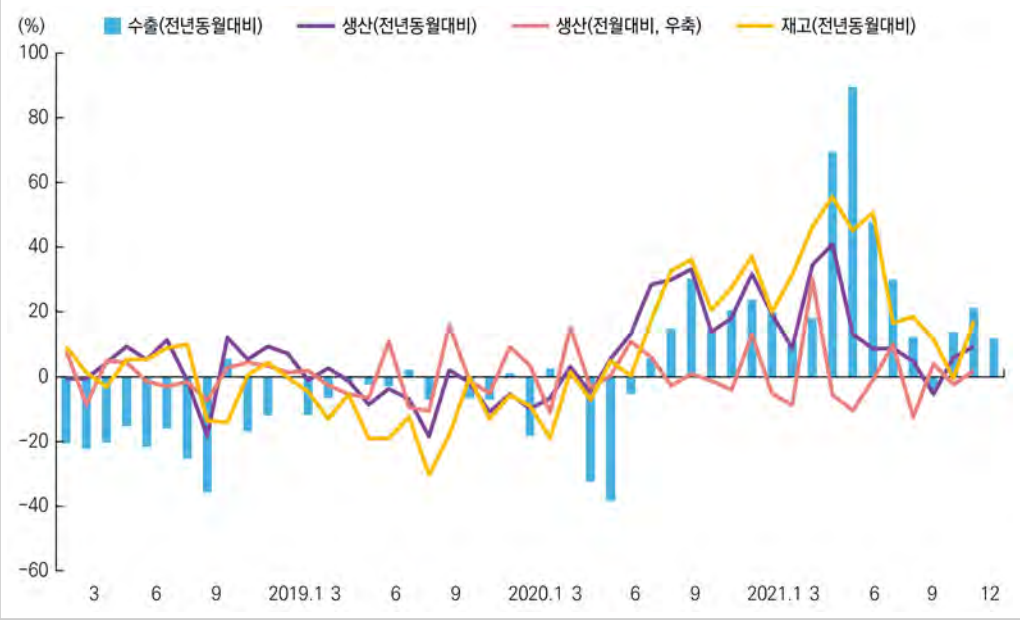
■ **기업들이 계절가전 소비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생산과 재고를 늘리면서 11월 중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9.3% 증가하였으며, 재고도 냉장고(7.3%), 김치냉장고(36.5%) 등을 중심으로 17.1% 증가하였고, 전월대비 생산은 전월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로 1.8% 증가로 전환**

- 생산(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9월)-5.4→(10월)5.9→(11월)9.3
- 생산(전월대비) 증감률(%): ('21.9월)3.9→(10월)-2.4→(11월)1.8
- 재고(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9월)11.6→(10월)-0.6→(11월)17.1

■ **12월 중 수출(7.6억 달러)은 전년동월대비 세탁기(30.7%), 냉장고(28.5%), TV(18.9%) 등 프리미엄 가전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31.3%) 등으로 수출이 증가하며 전년동월대비 11.8% 증가**

- 수출(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9월)-4.1→(10월)13.8→(11월)21.0→(12월)11.8

[그림 10] 가전 산업 생산·재고·수출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컴퓨터 주변장치 11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전년동월대비와 전월대비 생산 모두 증가하였고, 12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증가세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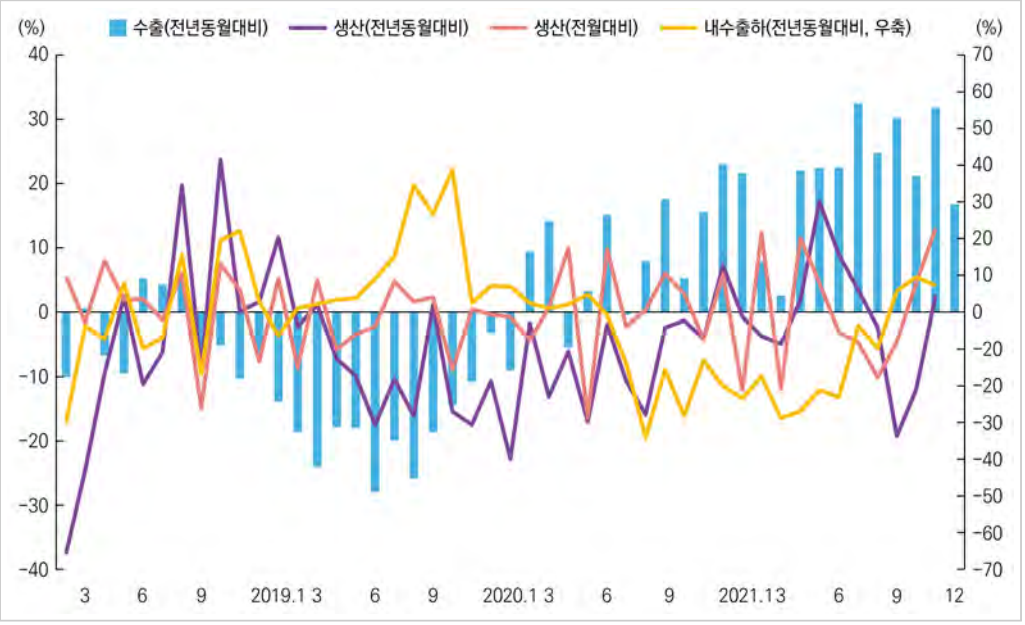
■ **물류 공급이 여전히 원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기와 비대면 수요 회복세에 따라 11월 컴퓨터 주변장치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2.6% 증가하였고, 내수출하량도 7.2% 증가하였으며, 전월대비로는 생산이 13.0% 증가**

- 생산(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9월)-19.3→(10월)-12.0→(11월)2.6
- 생산(전월대비) 증감률(%): ('21.9월)-4.6→(10월)4.5→(11월)13.0
- 내수출하(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9월)5.7→(10월)9.5→(11월)7.2

■ **해외 노트북·PC 등 비대면 수요와 SSD 탑재 수요 및 데이터센터 투자의 증가세가 둔화되며 12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6.7% 증가**

- 수출(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9월)30.2→(10월)21.2→(11월)31.9→(12월)16.7

[그림 11] 컴퓨터 주변장치 산업 생산·내수출하·수출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서비스업

서비스업 생산은 2021년 2월부터 전년동월대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1월에는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시행으로 모든 부문에서 증가하였으며, 전월대비로도 증가로 전환됨

■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시행으로 일상에 변화가 생기면서 서비스업 생산은 도매 및 소매, 숙박 및 음식점, 예술·스포츠·여가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모두 증가함**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주요 내용

-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으로 사적모임이 허용
- 숙박시설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내에서 예약 및 이용이 가능
- 영화관의 운영시간 제한이 풀리고, 음식점 및 카페 이용은 별도의 시간제한이 없어 가능 (미접종자 최대 4명)
- 스포츠 관람은 접종 구분 없이 경기장 수용인원의 50%까지 입장이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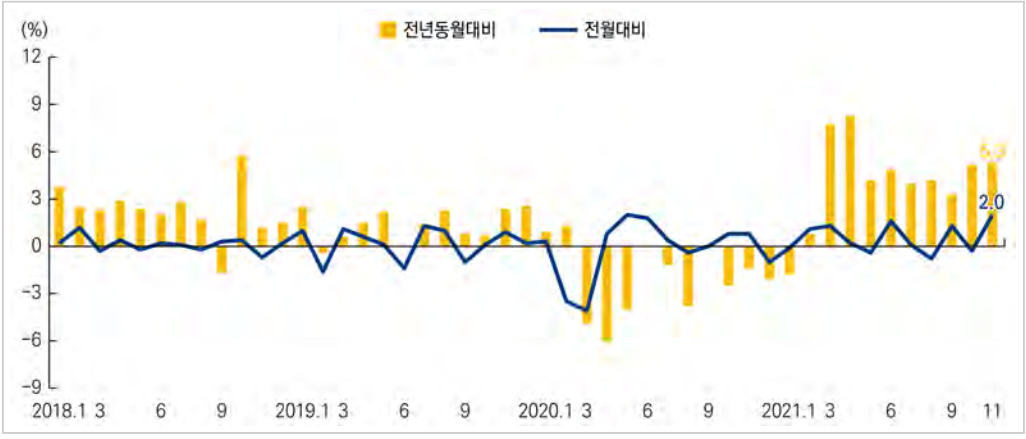
■ **11월 중 서비스업 생산은 도매 및 소매(4.2%), 숙박 및 음식점(14.3%), 예술·스포츠·여가(18.5%) 등 모든 부문에서 늘어 전년동월대비 5.3% 증가함**

- 서비스업 생산(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9월)3.4→(10월)5.1→(11월)5.3

■ **전월대비로는 도매 및 소매(0.8%), 숙박 및 음식점(5.6%), 예술·스포츠·여가(8.3%) 등을 중심으로 2.0% 증가함**

- 서비스업 생산(전월대비) 증감률(%): ('21.9월)1.4→(10월)-0.4→(11월)2.0

[그림 12] 서비스업 생산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4] 서비스업 생산 동향

(단위: 2015=100, 전년동월대비 %)

업종별	2020			2021			
	9월	10월	11월	9월	10월*	11월*	전월대비
서비스업(원지수)	106.9	106.4	108.8	110.5	111.8	114.6	2.0
서비스업	0.1	-2.5	-1.4	3.4	5.1	5.3	
도매 및 소매	3.0	-1.7	-2.5	0.3	3.8	4.2	0.8
금융 및 보험	19.8	14.0	18.3	4.6	7.0	4.6	3.0
교육	-5.3	-4.3	-3.2	2.2	1.5	2.0	1.4
보건 및 사회복지	-0.5	0.3	-0.7	4.3	3.4	3.9	0.1
숙박 및 음식점	-21.0	-15.2	-17.1	11.3	7.4	14.3	5.6
운수	-12.9	-14.8	-11.0	7.5	10.3	9.4	1.8
출판·영상·방송	1.1	-1.4	0.6	5.6	7.3	8.5	3.0
전문, 과학 및 기술	3.0	-1.9	-0.3	0.2	1.7	3.2	3.1
사업시설관리지원	-9.3	-11.7	-11.0	2.4	4.3	5.2	1.7
협회·수리·기타개인	-2.7	-8.3	-10.6	-0.6	5.2	5.2	-0.4
부동산 및 임대	3.0	-2.1	0.3	1.3	2.7	1.0	-0.1
예술·스포츠·여가	-33.1	-28.9	-30.1	15.5	14.1	18.5	8.3
하수, 폐기물 처리	10.8	2.9	2.0	-5.1	-4.0	0.5	2.8

주: *는 잠정치

자료: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11월 도매 및 소매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부문이 감소하였으나, 도매업과 소매업 부문에서 생산이 늘어 증가하였으며, 전월대비로도 증가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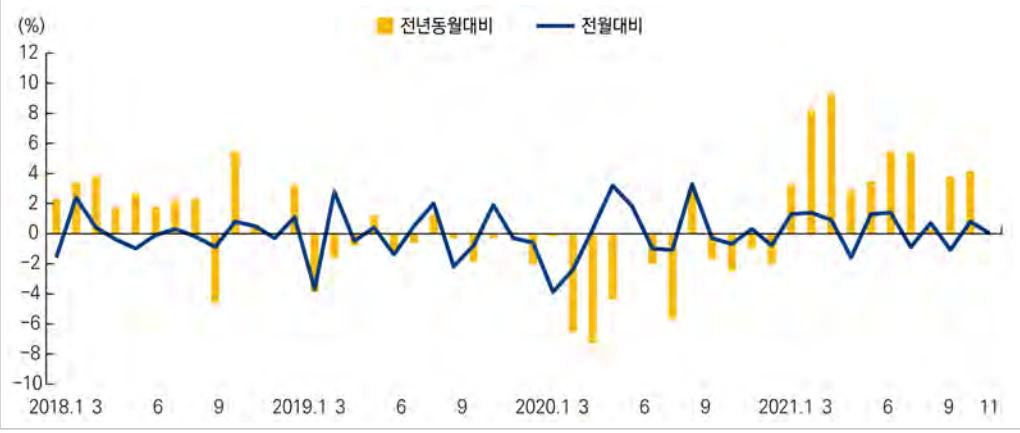
■ 11월 중 도매 및 소매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이 5.3% 감소하였으나, 도매업과 소매업 부문이 각각 3.8%, 6.9% 증가함에 따라 4.2% 증가

- 생산(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9월)0.3→(10월)3.8→(11월)4.2
-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부문 생산은 국내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등으로 자동차 판매업 부문이 10.8% 감소함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5.3% 감소
- 도매업 부문 생산은 가전 및 전기장비 도매업 등의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과 의복 및 신발 도매업 등의 생활용품 도매업 등이 각각 3.5%, 10.1% 증가함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3.8% 증가
- 소매업 부문 생산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인한 외식 수요 증가로 식품매출이 줄면서 대형마트, 슈퍼마켓 등의 생산은 9.0% 감소하였으나, 코리아세일페스타(Korea Sale FESTA)(11.1~11.15.) 등의 쇼핑행사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인한 방문객 수 증가로 백화점 부문이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등의 매출이 늘면서 전년동월대비 20.0% 증가하였고, 편의점 부문의 생산이 소량제품 판매 증가가 이어지면서 2.9% 증가함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6.9% 증가

■ **전월대비로는 소매업 부문이 3.3% 감소하였으나,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도매업 부문이 각각 5.1%, 3.2% 증가함에 따라 0.8% 증가**

- 생산(전월대비) 증감률(%): ('21.9월)0.7→(10월)-1.1→(11월)0.8
- 자동차 및 부품 부문 생산은 자동차 판매업과 자동차 부품 및 이륜차 판매업이 각각 3.3%, 8.2% 증가함에 따라 5.1% 증가
- 도매업 부문 생산은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과 음·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 등이 각각 2.7%, 7.4% 증가함에 따라 3.2% 증가
- 소매업 부문 생산은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이 3.0% 증가하였으나,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과 종합 소매업 부문이 각각 8.5%, 2.7% 감소함에 따라 3.3% 감소

[그림 13] 도매 및 소매업 생산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11월 금융 및 보험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및 전월대비 모두 증가함

■ **11월 중 금융 및 보험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4.6% 증가했는데,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보험업에서 각각 전년동월대비 2.0%, 0.9%(기여도 각각 -0.47%p, -0.12%p) 감소한 반면, 금융업에서 8.2%(기여도 5.16%p)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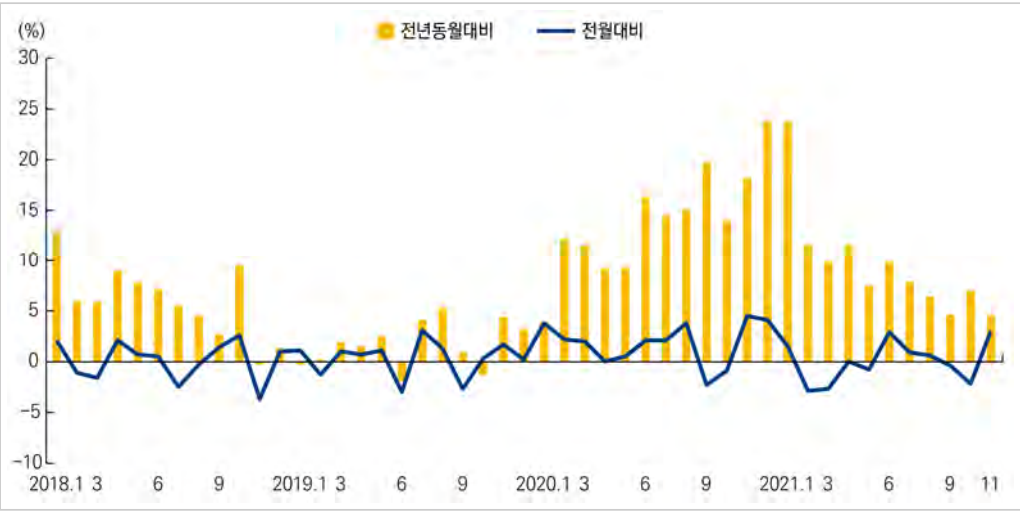
- 세부 부문 중 신용조합 및 저축기관, 금융리스업 부문에서 각각 전년동월대비 15.5%, 15.1% 증가하였으나,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부문에서는 2.8% 감소
- 생산(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9월)4.6→(10월)7.0→(11월)4.6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금융업, 보험업 및 연금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공되는 각종 관련 서비스활동을 포함하며, 소분류에 금융 지원 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세분류에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등을 포함

■ **전월대비로는 3.0% 증가하였는데,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금융업 부문에서 각각 10.5%, 1.6%(기여도 각각 2.10%p, 1.07%p) 증가한 반면, 보험업 부문에서 1.3%(기여도 -0.18%p) 감소함**

- 세부 부문 중 공제업에서 13.6% 감소한 반면, 세분류로 증권 및 선물 중개업을 포함하는 금융 지원 서비스업에서 11.0% 증가함
- 생산(전월대비) 증감률(%): ('21.9월)-0.4→(10월)-2.2→(11월)3.0

[그림 14] 금융 및 보험업 생산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11월 교육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도의 학원 및 교습소의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에 따른 기저효과로 생산이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으며, 전월대비로는 학원 등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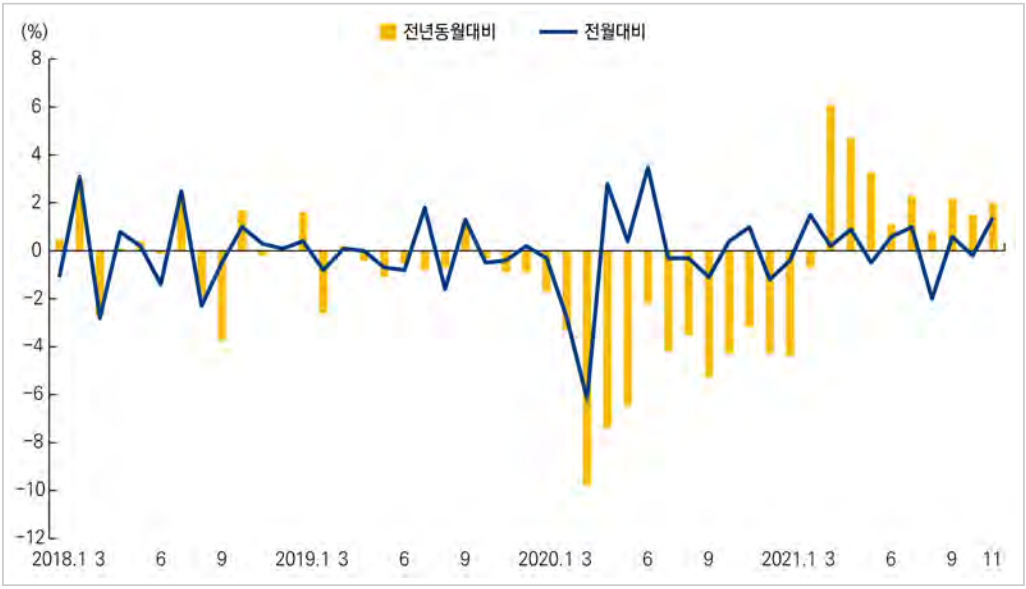
■ **11월 중 교육 서비스업 생산은 중등교육기관은 전년동월대비 1.2% 감소하였으나 초등 및 고등교육기관은 각각 1.0%, 0.4% 증가하였고, 작년 수도권 학원에 대한 집합금지에 대한 기저효과로 학원이 전년동월대비 12.5% 증가함에 따라 2.0% 증가**

- 생산(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9월)2.2→(10월)1.5→(11월)2.0

■ **전월대비로는 초등고등교육기관은 각각 0.5%, 3.7% 증가하였으나, 중등교육기관은 0.0%로 보합세를 나타냄에 따라 1.4% 증가**

- 생산(전월대비) 증감률(%): ('21.9월)0.6→(10월)-0.2→(11월)1.4

[그림 15] 교육 서비스업 생산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11월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생산은 보건업과 사회복지서비스업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으나, 전월대비로는 보건업은 소폭 증가하였고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정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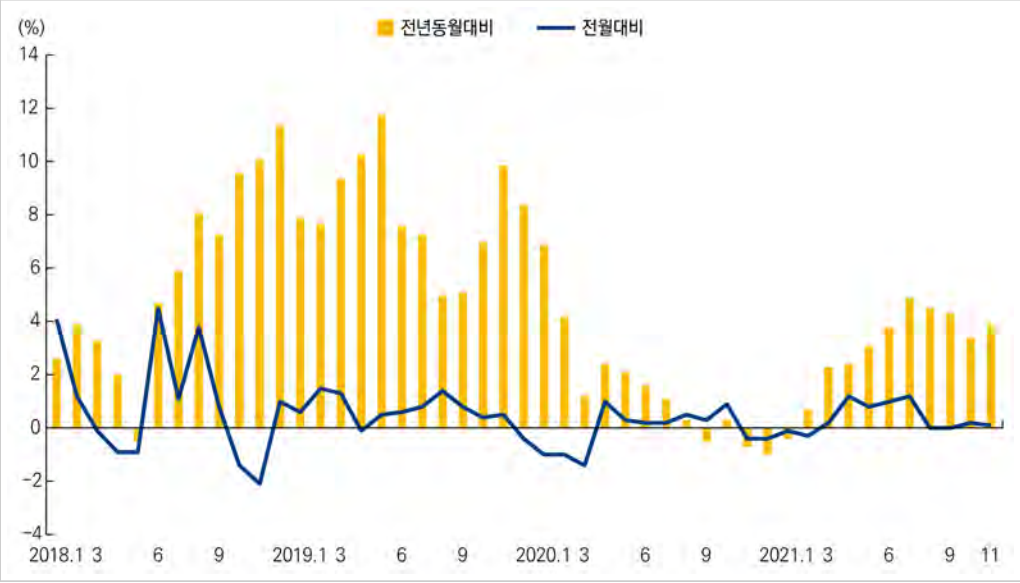
■ **11월 중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3.9% 증가**

- 병원(4.0%)과 의원(5.8%)의 생산 증가에 따라 보건업 생산이 4.2% 증가
- 거주복지시설(3.5%)과 비거주복지시설(1.9%)의 생산 증가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생산이 2.3% 증가
- 생산(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9월)4.3→(10월)3.4→(11월)3.9

■ **전월대비로는 병원(2.0%)의 생산은 증가하였으나 의원(0.0%)은 정체되어 보건업 생산은 0.1% 증가하였고, 거주복지시설(0.1%)은 소폭 증가하였으나 비거주복지시설(0.0%)의 생산은 정체됨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업 생산(0.0%)은 정체됨에 따라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생산은 0.1% 증가**

- 생산(전월대비) 증감률(%): ('21.9월)0.2→(10월)0.2→(11월)0.1

[그림 16] 보건 및 사회복지업 생산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11월 숙박 및 음식점업 생산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완화 효과가 이어지며 3개월 연속 전년동월대비 및 전월대비 증가세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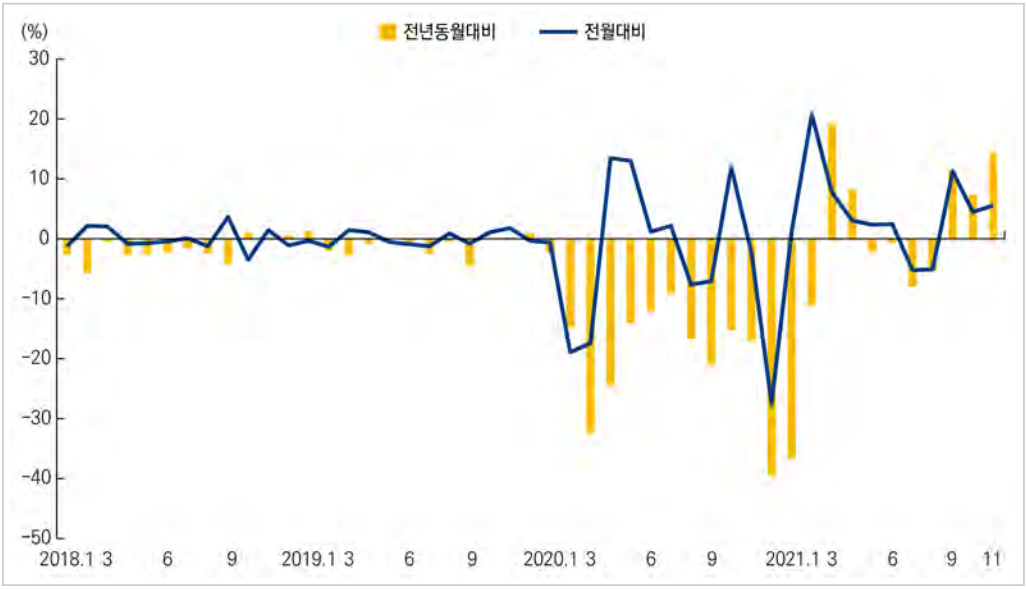
■ **11월 숙박 및 음식점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4.3% 증가하였는데, 숙박업 부문에서는 15.1%, 음식점 및 주점업 부문에서는 14.2% 증가**

- 세부 부문별로 살펴보면, 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외국식 음식점업, 비알콜 음료점업 부문에서 전년동월대비 각각 17.3%, 14.9%, 22.4%, 20.0% 증가한 반면, 주점업 부문에서는 26.0% 감소
- 생산(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9월)11.3→(10월)7.4→(11월)14.3

■ **전월대비로는 5.6% 증가하였는데, 숙박업 부문에서는 7.5%, 음식점 및 주점업 부문에서는 5.5% 증가**

- 세부 부문 중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부문과 음식점업 부문에서 전월대비 각각 10.7%, 3.9% 증가
- 생산(전월대비) 증감률(%): ('21.9월)11.3→(10월)4.5→(11월)5.6

[그림 17] 숙박 및 음식점업 생산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에너지 및 원자재

가. 국제 가격

전월대비 12월 석유, 천연가스 가격은 하락한 반면 석탄 가격은 상승하였고, 전년동월대비로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 모두 상승함

■ **12월 원유 가격은 배럴당 72.9달러로 전월대비 8.8% 하락한 반면, 전년동월대비로는 49.5% 상승함**

- 미국의 전략비축유 방출 계획 발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전 세계 확산 등으로 국제 유가는 전월대비 하락함
- 국제원유 가격(달러/배럴): ('21.10월)82.1→(11월)79.9→(12월)72.9

■ **12월 석탄 가격은 톤당 169.7달러로 전월대비 7.7% 상승하였고, 전년동월대비로는 104.3% 상승함**

- 중국의 석탄 가격 상한제 등 시장개입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동절기 발전 및 난방 수요 확대에 따라 석탄 가격이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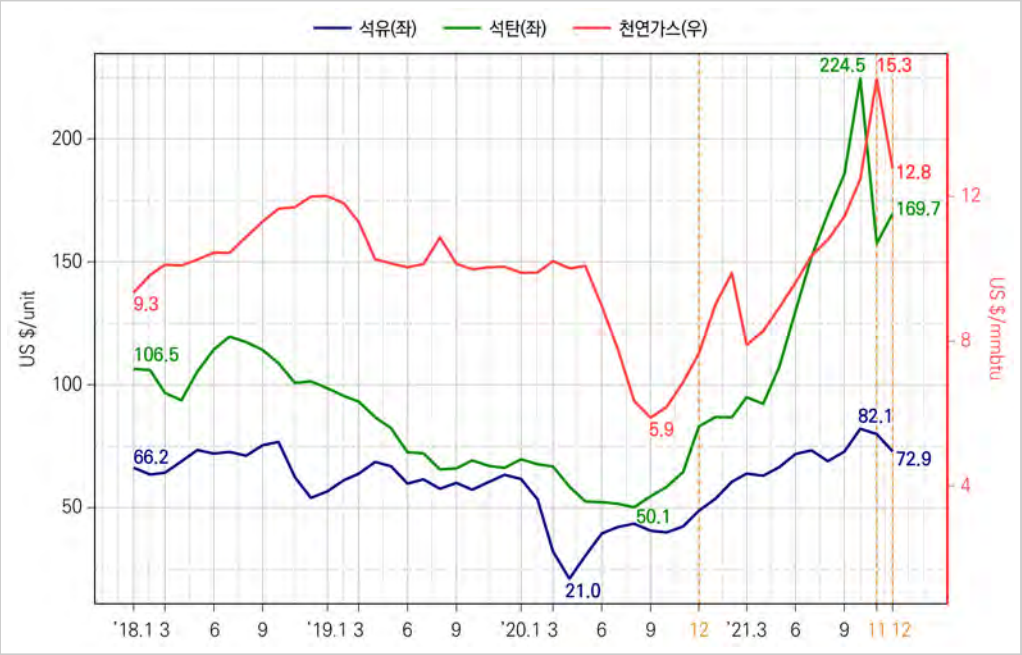
- 석탄 가격(달러/톤): ('21.10월)224.5→(11월)157.5→(12월)169.7

■ 12월 천연가스 가격은 백만비티유(mmbtu)※당 12.8달러로 전월대비 16.3% 하락한 반면, 전년동월대비로는 66.7% 상승함

- 미국 내 천연가스 가격은 전월대비 25.6% 하락한 반면, 유럽 천연가스 가격은 전월대비 37.7% 상승하였고, 전년동월대비로는 각각 47.0%, 549.4% 크게 상승함
- 겨울철 천연가스 가격은 재고 수준·기온에 대한 전망에 크게 영향을 받는데, 현재 미국 내 천연가스 재고가 과거 5년 평균치와 비슷한 수준이며, 최근 북미 지역이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기록하고 있고, 올 겨울 천연가스 수요가 예상보다 적을 것이라는 전망에 미국 내 천연가스 가격이 전월대비 하락함
- 러시아가 2022년 1월 미국,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유럽안보협력기구 등과 안보 협상을 앞둔 시점에서, 유럽에 대한 러시아의 공급이 급감하면서 유럽 천연가스 가격이 크게 상승함
- 천연가스 가격(달러/mmbtu): ('21.10월)12.5→(11월)15.3→(12월)12.8

※ 비티유(btu: british thermal unit, 영국 열량 단위): 질량 1파운드의 물 온도를 화씨 1도(1℉) 올리는데 필요한 에너지양

[그림 18] 국제 에너지 가격 추이



주: 에너지 품목별 단위가격은 달러로 표시하며, 석유는 배럴(bbl), 석탄은 메트릭톤(mt), 천연가스는 백만비티유(mmbtu) 단위당 가격임
자료: 세계은행(World Bank) 자료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12월 농산물, 식품, 금속·광물 지수는 전월대비 상승한 반면 귀금속 지수는 전월대비 하락하였고, 전년동월대비로는 금속·광물 지수를 제외하고 모두 하락함

■ 12월 농산물, 식품 지수는 각각 전월대비 0.8%, 1.2% 소폭 상승하였고, 전년동월대비로는 각각 1.8%, 6.5% 하락함

- 농산물 중 커피(Arabica 및 Robusta), 닭고기, 유채씨유, 대두유 등의 가격이 각각 전년동월대비 71.0%, 57.3%, 51.7%, 46.1%, 44.2% 크게 상승함
- 국제 커피 원두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국내 커피 음료 시장의 극심한 가격 경쟁으로 커피 소비자가에 즉각적으로 반영되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일부 유명 커피 전문점은 가격 인상을 검토 중임
- 농산물 지수: ('21.10월)109.6→(11월)111.1→(12월)112.0
- 식품 지수: ('21.10월)121.1→(11월)122.7→(12월)12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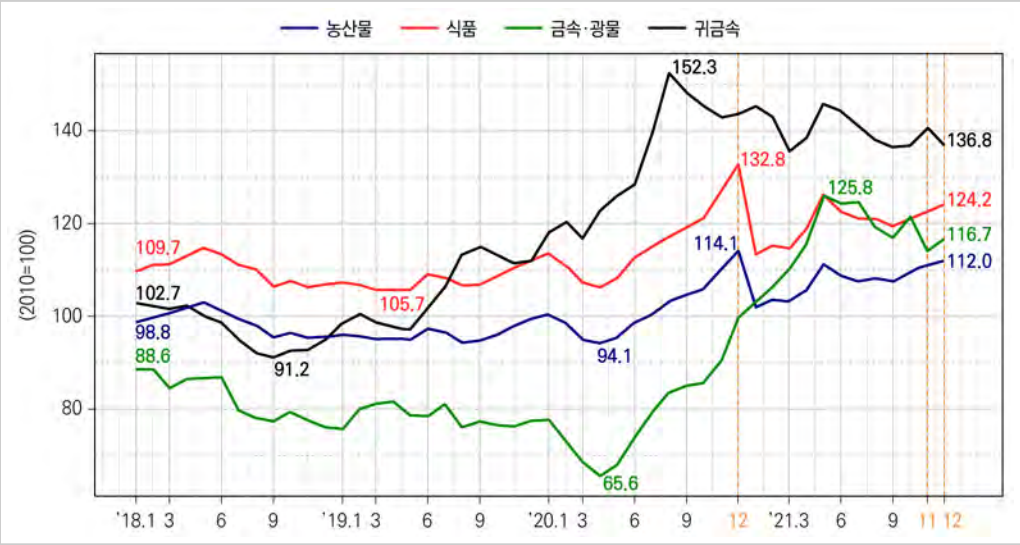
■ 12월 금속·광물 지수는 전월대비 2.4% 상승하였고, 전년동월대비로는 17.1% 상승함

- 전월대비 철광석, 아연, 알루미늄, 주석, 니켈은 각각 21.5%, 2.7%, 2.2%, 0.7%, 0.4% 상승한 반면, 구리, 납은 각각 1.8%, 1.2% 하락함
- 전년동월대비 철광석은 24.8% 하락한 반면, 나머지 주석, 알루미늄, 구리, 아연, 니켈, 납은 각각 99.8%, 33.8%, 22.3%, 22.9%, 19.0%, 13.9% 상승함
- 구리와 니켈은 낮은 재고 수준과 칠레 등에서의 생산 부진, 그리고 중국 등 지역에서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른 수요 증가로 가격 상승 압력이 작용함
- 금속·광물 지수: ('21.10월)121.4→(11월)114.0→(12월)116.7

■ 12월 귀금속 지수는 금, 백금, 은의 가격이 모두 하락하면서 전월대비 6.8%, 전년동월대비 9.8%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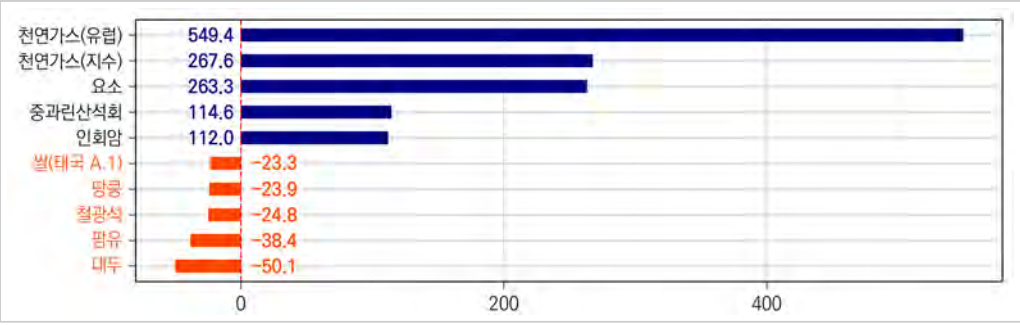
- 금, 백금, 그리고 은의 가격은 전월대비 각각 1.7%, 9.0%, 6.8% 하락함
- 귀금속 지수: ('21.10월)136.9→(11월)140.5→(12월)136.8

[그림 19] 원자재 가격지수 추이



자료: 세계은행(World Bank) 자료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그림 20]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상·하위 5개 에너지 및 원자재



자료: 세계은행(World Bank) 자료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그림 21] 전월대비 증감률 상·하위 5개 에너지 및 원자재

자료: 세계은행(World Bank) 자료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나. 국내 에너지 수요

2021년 10월 최종에너지※ 소비는 경기 회복에 따라 산업 부문에서 석유 소비가 많이 증가하면서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고, 전월대비로는 산업, 수송 부문에서의 소비 감소로 소폭 감소함

■ **에너지원별로는 석유, 전력, 도시가스, 부문별로는 산업, 공공, 가정·상업 부문의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여, 최종에너지 소비는 전년동월대비 7.1% 증가함**

- 액화천연가스(LNG) 에너지원의 최종에너지 소비는 전년동월대비 16.1%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영향은 크지 않음(기여도, -0.29%p)
- 에너지원별 소비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및 기여도(%p): 석유(12.2, 6.14), 전력(7.1, 1.37), 도시가스(4.1, 0.34), 열(-0.1, -0.00), 석탄(-1.8, -0.28), 신재생 및 기타(-4.9, -0.21), LNG(-16.1, -0.29)
- 부문별 소비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및 기여도(%p): 산업(9.6, 6.24), 공공(5.8, 0.13), 가정·상업(5.4, 0.79), 수송(-0.5, -0.09)

■ **가정·상업 부문에서 전력 수요가 감소한 반면 가정 부문에서 난방용 에너지 수요 증가로 도시가스, 열 소비가 증가하였으나, 산업, 수송 부문 등에서 전력, 석유, 신재생 및 기타, 석탄 등의 소비가 감소하면서, 최종에너지 소비는 전월대비 0.9% 소폭 감소함**

- 에너지원별로 도시가스, 열의 최종에너지 소비는 전월대비 크게 증가하였으나, 나머지 신재생 및 기타, 전력, LNG, 석탄, 석유의 최종에너지 소비는 감소함
- 부문별로는 산업, 수송, 공공 부문의 최종에너지 소비는 전월대비 감소한 반면, 가정·상업 부문 소비는 크게 증가함
- 에너지원별 소비 전월대비 증감률(%) 및 기여도(%p): 열(71.4, 0.32), 도시가스(31.3, 1.90), 석유(-1.4, -0.76), 석탄(-2.7, -0.38), LNG(-5.3, -0.08), 전력(-6.7, -1.36), 신재생 및 기타(-12.8, -0.55)
- 부문별 소비 전월대비 증감률(%) 및 기여도(%p): 가정·상업(9.1, 1.20), 산업(-1.7, -1.13), 공공(-4.2, -0.10), 수송(-5.0, -0.88)

※ 최종에너지는 산업, 수송, 가정·상업, 그리고 공공 부문 등 최종에너지 소비 부문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로, 최종소비자가 직접 사용한 1차에너지와 전환과정을 거친 2차에너지가 해당되며, 최종에너지 소비는 일반적으로 실물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로 사용됨

[표 5] 에너지원별 최종에너지 소비

(단위: 1,000 toe)

	2018	2019	2020	2021p			
				10월	9월	10월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합계	233,368	231,353	222,563	17,387	18,789	18,618	7.1	-0.9
전년동기대비	1.0	-0.9	-3.8	-4.5	5.8	7.1		
석탄	32,480	32,057	30,457	2,642	2,665	2,594	-1.8	-2.7
석유	116,831	116,125	109,344	8,742	9,952	9,810	12.2	-1.4
액화천연가스	2,038	2,909	3,602	314	279	264	-16.1	-5.3
도시가스	24,979	23,943	23,100	1,440	1,142	1,499	4.1	31.3
전력	45,249	44,763	43,797	3,360	3,854	3,598	7.1	-6.7
열	2,682	2,647	2,770	145	85	145	-0.1	71.4
신재생 및 기타	9,110	8,910	9,493	744	812	708	-4.9	-12.8

주: 2021년 자료는 잠정치(p)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월보」.

[표 6] 부문별 최종에너지 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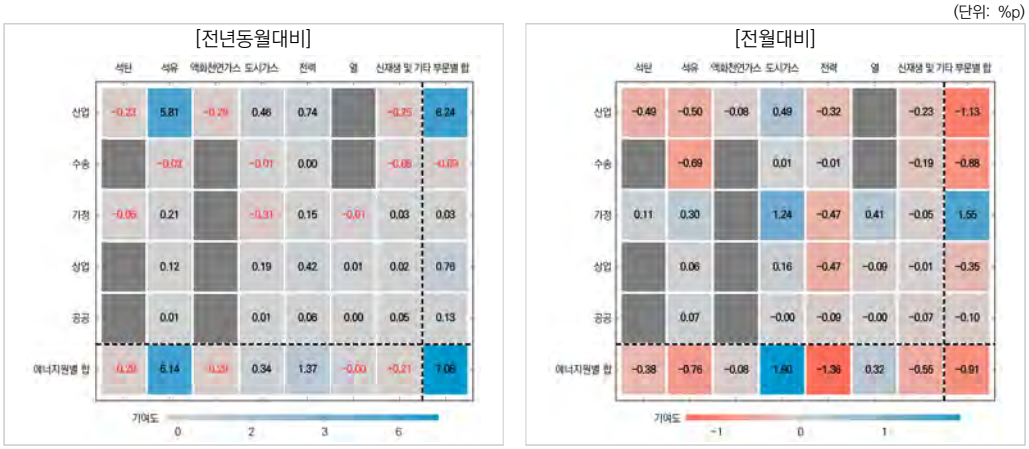
(단위: 1,000 toe)

	2018	2019	2020	2021p			
				10월	9월	10월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합계	233,368	231,353	222,563	17,387	18,789	18,618	7.1	-0.9
전년동기대비	1.0	-0.9	-3.8	-4.5	5.8	7.1		
산업	143,498	142,903	137,964	11,244	12,541	12,329	9.6	-1.7
수송	42,969	42,996	39,436	3,191	3,342	3,176	-0.5	-5.0
가정·상업	41,334	40,056	39,912	2,561	2,474	2,699	5.4	9.1
공공	5,567	5,399	5,251	391	432	414	5.8	-4.2

주: 2021년 자료는 잠정치(p)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월보」.

[그림 22] 최종에너지 소비 기여도 행렬

(단위: %p)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월보」 자료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다. 전력수급 동향

12월 전력 수급은 안정적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화력발전의 연료비가 크게 상승

■ **12월 공급예비력 12.8GW, 전력공급예비율 14.1%로 전력 수급은 안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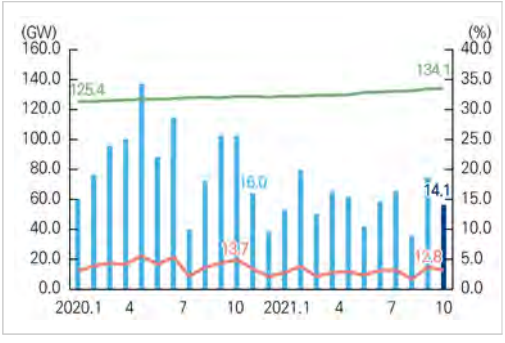
- 발전설비용량은 134.1GW로 전월대비 0.4%, 전년동월대비 4.3% 증가
- 12월 전국의 평균기온은 1.9℃로 평년기온(1.1℃)을 상회하였으나 12월 최대전력이 역대 12월 최고치(90.7GW)를 기록

※ 전력공급안정성은 공급예비력을 기준으로 하며, 공급예비력이 5.5GW 미만으로 낮아질 경우 냉난방온도 관리, 수요관리 제도 시행, 추가 발전소 가동 등 '전력수급 비상조치'를 시행하며 그 이상에서는 안정적으로 판단

■ **12월 에너지원별 연료비 단가는 수입산 석탄(유연탄)과 가스 발전을 중심으로 크게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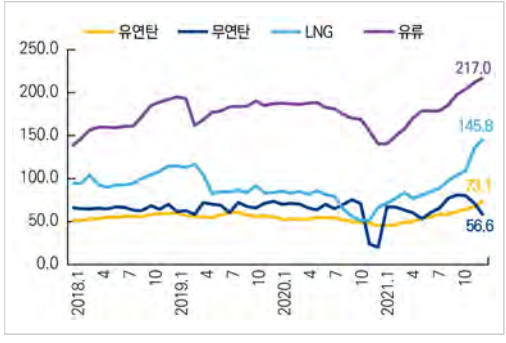
- 가스(LNG)발전 연료비단가는 145.8원/kWh로 전월대비 7.9%, 전년동월대비 121.4% 상승하였으며, 유연탄발전 연료비단가는 73.1원으로 전월대비 9.9%, 전년동월대비 63.7% 상승
- 유류발전 연료비단가는 217.0원/kWh으로 가장 단가가 높으나, 유류발전의 전력시장 비중이 0.3%로 작아 연료비 상승의 영향이 크지 않음
- 최근 연료비 단가 상승으로 인해 2021년 전력의 연료비는 전년 대비 약 27% 상승

[그림 23] 월별 발전설비용량 및 전력공급예비율



자료: 전력거래소

[그림 24] 에너지원별 연료비 단가



자료: 전력거래소

12월 전력거래량은 전년동월대비 및 전월대비 증가하여 역대 12월 중 가장 많은 전력을 생산했으며, 연간 전력거래량은 역대 최대인 2018년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

■ **총 전력거래량※은 전년동월대비 3.3%, 전월대비 14.6%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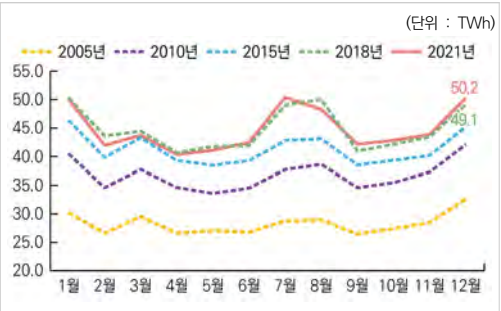
- 2021년 전력거래량은 전년 대비 4.1% 증가하여 GDP 증가율 전망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 전력 이용의 효율을 높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전력거래량은 전력거래소에서 운영하는 전력시장을 통해 거래된 전력량을 의미하며, 총 발전량에서 발전소의 소내소비량과 가정용 재생에너지 설비의 자가소비량 등은 제외한 통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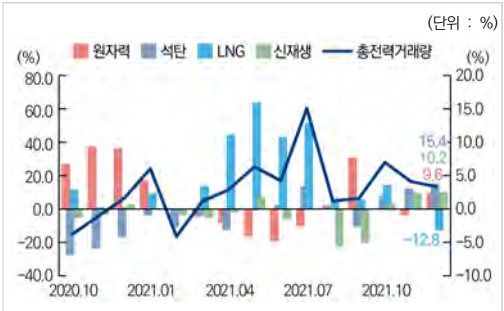
■ 전년동월대비 원자력과 석탄발전은 각각 9.6%와 15.4% 증가했으나 가스(LNG)발전은 12.8% 감소

- 전월대비로는 모든 에너지원의 전력거래량이 증가하여 원자력은 22.1%, 석탄은 12.3%, 가스는 10.1%, 신재생 및 기타는 11.4% 증가

[그림 25] 월별 전력거래량



[그림 26] 전년동월대비 에너지원별 전력거래량



주 : 전력시장에서 거래하고 있는 발전소의 연료원별 전력거래량으로 PPA 거래량은 미포함
자료: 전력거래소

[2021년 총 전력거래량 추이]

■ 2021년 총 전력거래량은 역대 최고를 기록한 2018년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

- 2012년 이후 GDP 성장률이 전력거래량 증가율을 상회하는 경향이 있음
  - 2011년 이전에는 전력거래량이 GDP보다 빠르게 증가
  - 2018년에는 폭염에 따른 냉방수요 급증으로 전력거래량이 3.1% 증가하여 GDP성장률 2.9%를 상회
- 2003년 GDP, 전력거래량, 총에너지소비를 1.0으로 설정할 때, 2020년의 GDP는 1.74, 전력거래량은 1.72, 총에너지소비는 1.35로 총에너지소비 증가는 감소세가 뚜렷한 반면, 전력소비량은 GDP와 유사한 추세로 나타남
  - 전력거래량과 총에너지소비는 2018년을 단기정점으로 2019-2020년에 연속으로 감소하였으나 2021년 경제성장률이 4.0%로 반등하면서 동조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정부가 2021년말 UN에 제출한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총에너지소비의 감소와 저탄소 전원확보가 필수적임

[전력거래량과 GDP 증가율 비교]

자료 : 통계청(GDP), 전력거래소(전력거래량), 국가에너지통계정보시스템(총에너지소비)

12월 신재생에너지원별 발전량은 태양광과 바이오를 중심으로 크게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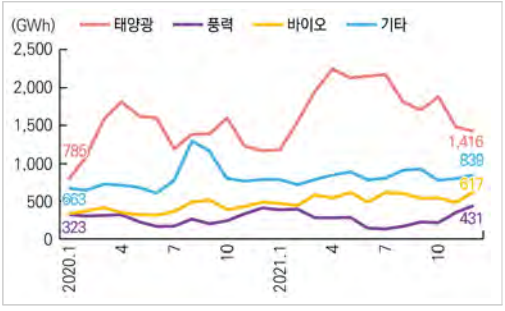
■ **신재생에너지의 43%를 차지하는 태양광은 전년동월대비 22.4% 증가했으며, 바이오(14.4% 비중)는 29.3%, 풍력(10.3% 비중)은 7.7% 증가**

- 일조량과 풍량 등 계절적 요인에 따라 전월대비 발전량은 태양광은 3.8% 감소하고 풍력은 26.8% 증가

■ **12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의 현물시장가격은 38,779원/REC로 전년동월대비 11.4% 상승했으나 전월대비로는 0.2% 하락하여 최근 가격 상승세는 멈춘 것으로 나타남**

- 거래량은 현물시장에서 보다 활발하여 전년동월대비 83.1%, 전월대비 21.7% 증가했으며, 계약시장 거래량도 각각 28.5%와 14.2% 증가

[그림 27] 신재생에너지원별 발전량



자료: 전력거래소

[그림 28]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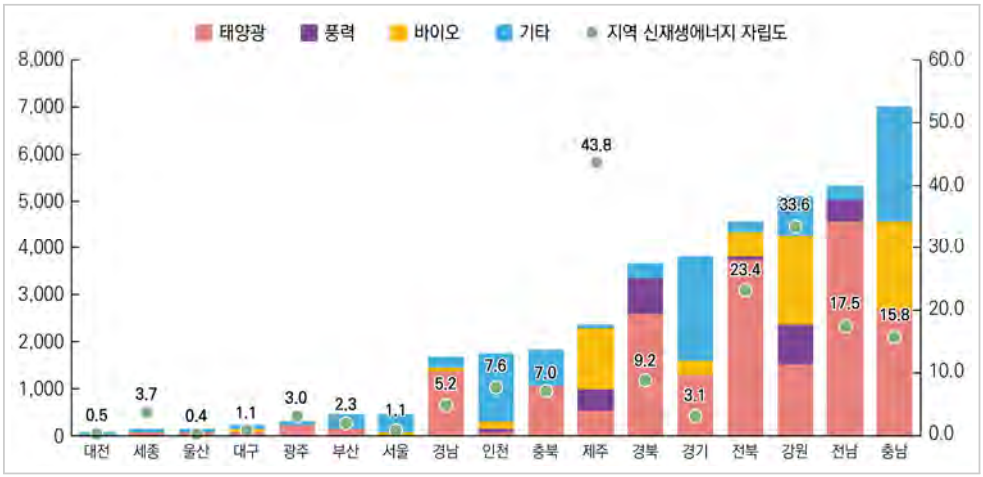
자료: 신재생원스톱사업정보 통합포털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충남, 전남, 강원, 전북에 집중**

- 태양광은 전남, 전북, 경북, 경남 등 일조량이 많은 지역의 발전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풍력은 강원, 경북, 제주, 전남 순으로, 바이오 발전량은 강원, 충남, 제주 순으로 많음
-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자립도는 제주도가 43.8%로 가장 높으며, 강원(33.6%), 전북 (23.4%) 순으로 나타남
  - 신재생에너지 자립도는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해당 지역의 전력판매량으로 나누어 산출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주: 1) 기타는 조력, 연료전지, IGCC, 수력에너지를 의미
2) 2021년 1~11월 지역별 전력판매량과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누계를 이용

자료: 한국전력

2021년 11월 전력수요는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이 완화됨에 따라 전부문에서 전년동월대비 증가

■ **전년동월대비 총 전력수요는 4.1% 증가했으며 가정부문 2.9%, 공공부문 1.5%, 서비스부문 4.5%, 산업부문 4.4% 증가하여 전부문이 고르게 증가**

■ **전월대비 총 전력수요는 2.4% 증가했는데, 산업부문(1.8%)보다 건물부문인 공공(6.1%)과 서비스부문(3.5%)의 증가가 큰 것으로 나타나 난방수요가 다소 증가한 것으로 추정**

[표 1] [표 7] 부문별 전력수요

(단위: GWh, %)

	2018	2019	2020	2021p			
				11월	10월	11월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계	526,149	520,499	509,270	41,147	41,838	42,830	4.1	2.4
전년동기대비	3.6	-1.1	-2.2	0.1	7.1	4.1		
가정부문	70,687	70,455	74,073	5,822	5,908	5,989	2.9	1.4
공공부문	24,569	24,458	23,623	1,909	1,827	1,937	1.5	6.1
서비스부문	147,189	145,816	142,881	10,996	11,100	11,485	4.5	3.5
산업부문	283,704	283,705	268,692	22,420	23,003	23,418	4.4	1.8

주 : 부문별 전력수요는 전력판매량을 의미하며, 2021년 자료는 잠정치(p)
자료: 전력통계속보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정리

4. 고용

12월 중 고용은 코로나19 확진자수 급증에도 불구하고 기저효과, 일부 대면서비스업종의 부진 완화 등으로 전월에 비해 전체 취업자수 증가폭이 확대

■ **12월 중 전체 취업자 수는 코로나19 확진자수 급증에도 불구하고 숙박음식업, 예술·스포츠·여가관련업 등을 중심으로 대면서비스업종의 취업자수가 지난 2020년 1월의 코로나19 충격 이후 처음으로 증가 전환되며 전월보다 증가폭이 크게 확대**

- 12월 중 전체 취업자 수(2,729.8만명)는 전년동월대비 77.3만명(2.9%) 늘며 전월(55.3만 명, 2.0%)에 비해 증가폭이 크게 확대
- 전체 취업자수의 계절조정 전기대비 증가폭도 6.3만명으로 전월(3.1만명)에 비해 확대
- 이는 코로나19 확진자수가 급증(11월 8.3만명→12월 18.4만명)에도 숙박음식업(11월 -17.5만→12월 6.6만), 예술·스포츠·여가관련업(11월 -2.2만→12월 3.2만) 등을 중심으로 대면서비스업종의 부진이 완화된데 주로 기인

[그림 29] 코로나19 확진자수와 대면서비업 취업자수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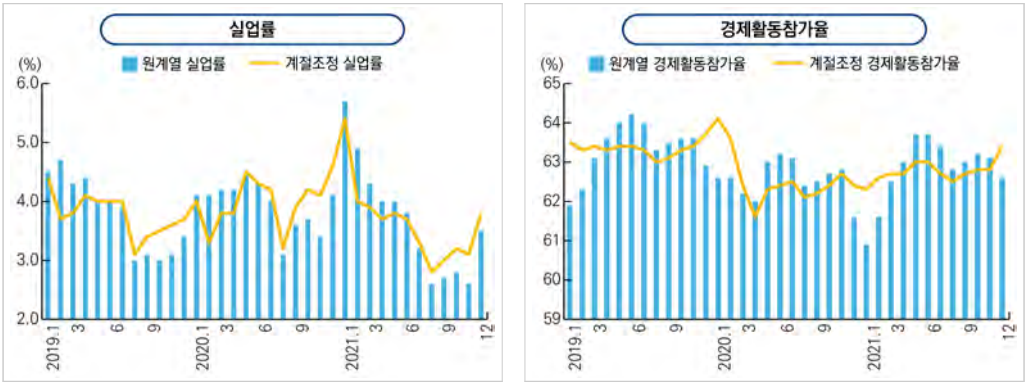
[그림 30] 월별 전체 취업자수 추이

주: 1) 대면서비스업종은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교육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운수창고업 등을 포함
자료: 통계청

■ **실업률(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 비율, 계절조정)은 경제활동참가율이 전월보다 큰 폭으로 상승하며 경제활동인구가 늘어 전월대비 상승 전환**

- 실업률(계절조정, %): ('21.10월)3.2→(11월)3.1→(12월)3.8
- 경제활동참가율(계절조정, %): ('21.10월)62.8→(11월)62.8→(12월)63.4
- 경제활동인구(계절조정 전월대비, 만명): ('21.10월)6.8→(11월)2.2→(12월)25.3

[그림 31] 실업률 및 경제활동참가율



자료: 통계청

■ **고용률(15세이상 인구 중 취업자 비율)은 기저효과와 양호한 취업자수 증가에 힘입어 전월보다 전년동월대비 증가폭이 확대되며 개선세 지속**

- 12월 원계열 고용률은 60.4%로 전년동월대비 1.3%p 상승하며 전월(0.8%p)보다 증가폭이 확대되었고, 계절조정 고용률은 61.0%로 전월과 동일한 상승폭(0.1%p) 유지
- 15~64세 고용률(OECD 비교기준)은 67.3%로 전년동월대비 2.0%p 상승하였고, 성별로는 남자는 76.1%(전년동월대비 1.8%p 상승), 여자는 58.4%(전년동월대비 2.2%p 상승

서비스업의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는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제조업 취업자 수는 11월 증가 전환 이후 2개월 연속 증가하였고, 건설업은 11개월 연속 증가

■ **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2021년 3월부터 큰 폭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12월에는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증가세가 확대**

- 서비스업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1.7월)44.1→(8월)43.6→(9월)63.2→(10월)59.2→(11월)45.8→(12월)66.0
- 전년동월인 2020년 12월이 코로나19 3차 확산의 영향으로 서비스업의 취업자 수 감소세가 크게 확대된 시기라는 점에서 2021년 12월의 증가폭 확대에 기저효과가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
- 보건복지업(+17.4만 명), 운수·창고업(+12.7만 명), 교육서비스업(+11.5만 명), 정보통신업(+8.2만 명) 등에서 취업자 수가 크게 증가

- 기존에 어려움을 겪던 숙박음식점업과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위드코로나 및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증가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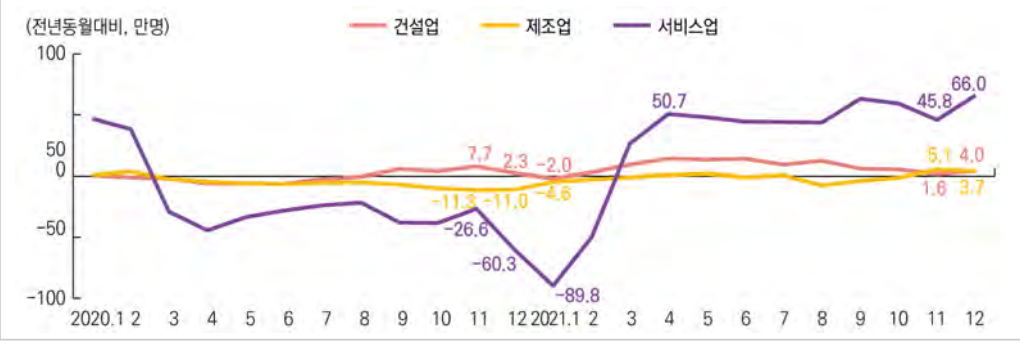
■ **제조업 취업자 수는 반도체 및 의약품 수출 증가에 힘입어 2개월 연속 증가**

- 제조업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1.7월)0.6→(8월)-7.6→(9월)-3.7→(10월)-1.3→(11월)5.1→(12월)3.7

■ **건설업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4.0만 명 증가하여 2021년 2월부터 11개월 연속 증가세를 지속**

- 건설업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1.7월)9.2→(8월)12.3→(9월)5.7→(10월)5.2→(11월)1.6→(12월)4.0

[그림 32]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 추이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60세 이상)과 청년층(15~29세), 40~50대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증가한 반면, 30대 취업자 수는 코로나19 이후 22개월 연속 감소

■ **청년층의 취업자 수는 기저효과의 영향 등으로 증가세가 확대되며 전년동월대비 26.6만 명 증가**

- 청년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1.7월)18.4→(8월)14.3→(9월)21.9→(10월)18.0→(11월)16.8→(12월)2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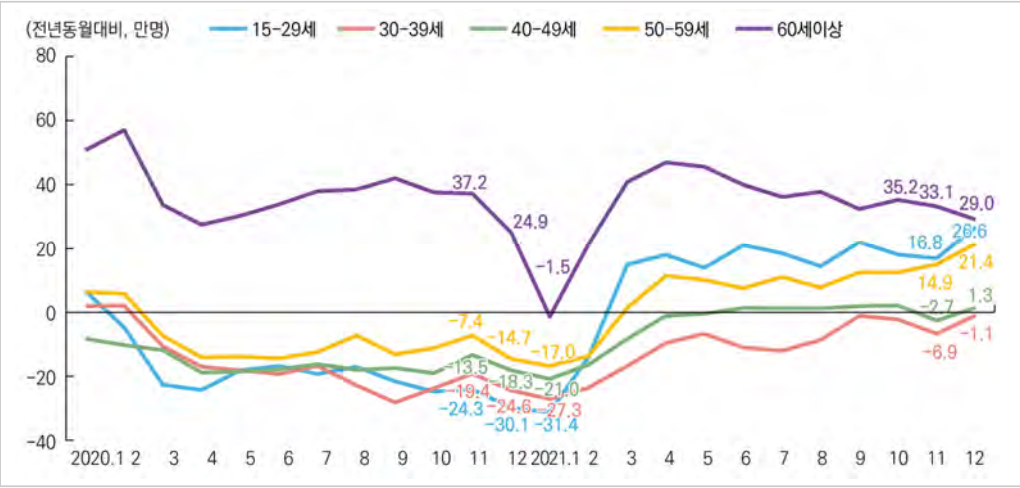
■ **핵심 노동연령대인 30~50대 취업자 수는 50대의 취업자 수 증가에 힘입어 전년동월대비 21.6만 명 증가**

- 30~50대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1.7월)-0.2→(8월)-0.1→(9월)13.0→(10월)12.0→(11월)5.3→(12월)21.6
- 50대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21.4만 명 증가하여 10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였고, 40대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증가 전환되어 1.3만 명 증가
- 반면, 30대의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는 -1.1만 명으로 22개월 연속 감소

■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29.0만 명 증가하여 전 연령대 중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증가폭은 소폭 축소**

- 60세 이상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1.7월)36.1→(8월)37.7→(9월)32.3→(10월)35.2→(11월)33.1→(12월)29.0

[그림 33] 연령별 취업자 수 증감 추이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상용직 취업자 수의 전년동월대비 증가세가 두드러지는 반면, 일용직은 감소세를 지속하여 어려움이 예상되며, 자영업자는 3개월 연속 전년동월대비 증가

■ **상용직 취업자 수는 3개월 연속 60만 명 이상의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임시직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11.9만 명 증가**

- 상용직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1.7월)36.1→(8월)32.4→(9월)51.5→(10월)61.5→(11월)61.1→(12월)65.2
- 임시직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1.7월)35.2→(8월)31.2→(9월)34.0→(10월)21.9→(11월)10.6→(12월)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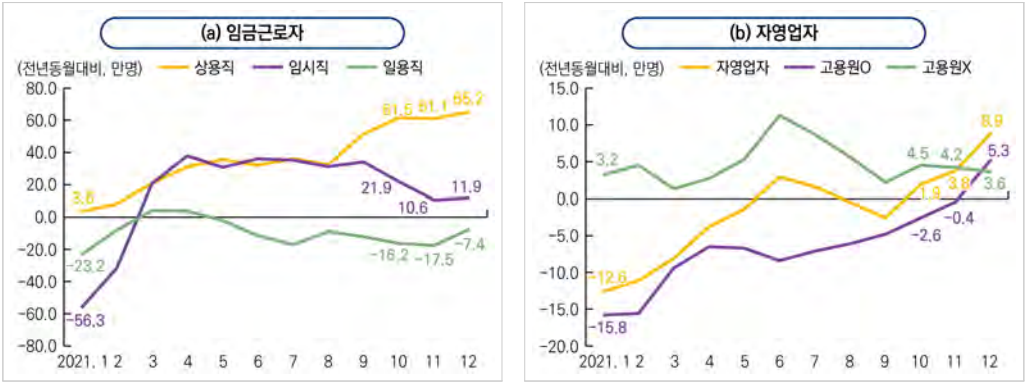
■ **일용직의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는 -7.4만 명을 기록하여 감소세가 소폭 개선되었지만, 어려움이 지속**

- 일용직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1.7월)-17.0→(8월)-8.9→(9월)-12.1→(10월)-16.2→(11월)-17.5→(12월)-7.4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수가 전년동월대비 증가 전환되었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또한 증가하여, 전체 자영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8.9만 명 증가**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1.7월)-7.1→(8월)-6.1→(9월)-4.8→(10월)-2.6→(11월)-0.4→(12월)5.3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1.7월)8.7→(8월)5.6→(9월)2.2→(10월)4.5→(11월)4.2→(12월)3.6

[그림 34]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수 증감 추이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21년 연간 고용동향]

■ **2021년 취업자 수는 전년대비 36.9만 명 증가하여, 2020년의 감소폭(-21.8만 명)을 크게 상회하였고,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등 고용지표도 2020년 대비 개선**

- 2021년 취업자 수는 2,727.3만 명으로 전년대비 36.9만 명 증가하였고, 코로나19 이전 고점인 2019년보다 15.0만 명 높은 수준을 기록

[연도별 취업자 수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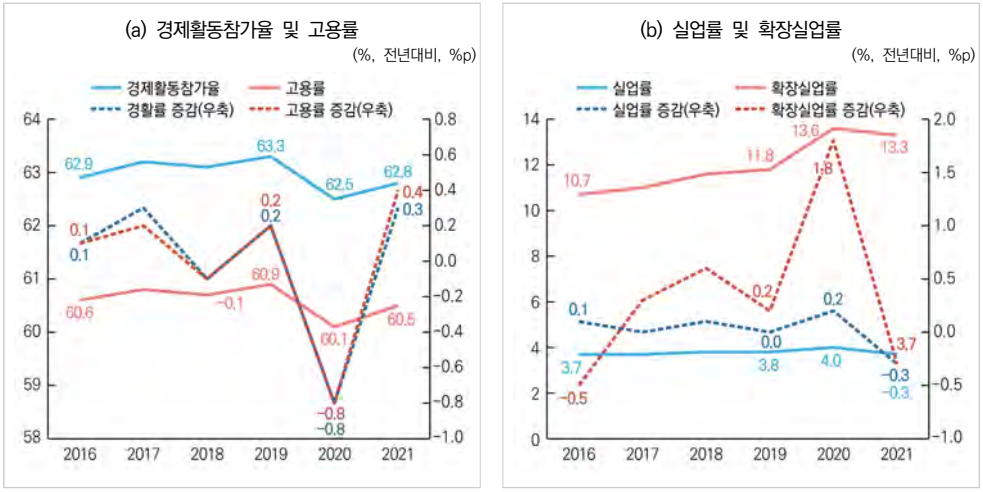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경제활동참가율은 62.8%로 전년대비 0.3%p 상승하였고, 고용률은 60.5%로 전년대비 0.4%p 상승
  - 반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경제활동참가율은 0.5%p, 고용률은 0.4%p 하락했다는 점에서, 코로나19의 영향이 지속된 것으로 판단
  - 2019년 대비 경제활동인구 수는 12.4만 명, 취업자 수는 15.0만 명 증가하였으나 동 기간 동안 15세 이상 인구가 더 큰 규모로 증가(57.6만 명)하여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이 하락
- 실업률은 3.7%, 확장실업률※은 13.3%를 기록하여 전년대비 각각 0.3%p 하락

※ 확장실업률(고용보조지표3)은 '일하고 싶은 욕구가 충분히 충족되지 못한 노동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현재 노동시장 참여자들이 체감하는 실업률을 제시

  - 2019년 대비 실업률은 0.1%p 낮은 반면, 확장실업률은 1.5%p 높음

[연도별 고용지표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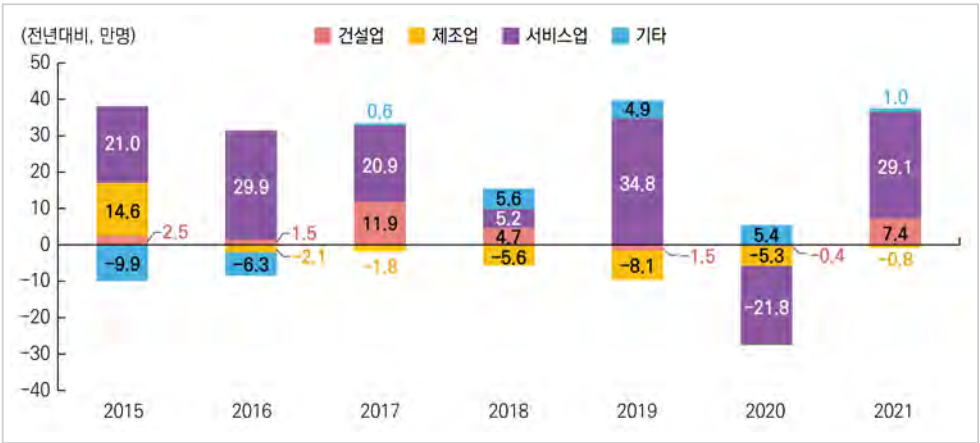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2021년 산업별 취업자 수 변화 특징은 다음과 같음

- 제조업 취업자 수는 2020년 대비 0.8만 명 감소하여 2016년부터 6년 연속 감소
- 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21.8만 명 감소하였으나 2021년에는 29.1만 명 증가하여,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7.3만 명 증가
- 건설업은 2019년과 2020년 취업자 수가 감소하였으나 2021년에는 7.4만 명 증가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 (연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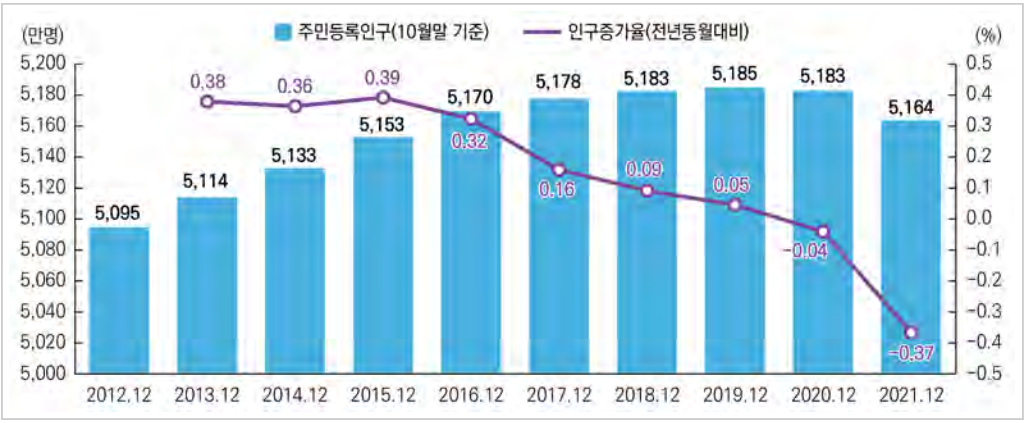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5. 인구

2021년 12월 주민등록인구는 5,164만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9만명(-0.37%) 감소

■ **각 연도 12월 말 기준 전년동월대비 인구증가율은 2015년 0.39%, 2017년 0.16%, 2019년 0.05%, 2020년 -0.04%, 2021년 -0.37%로 하락**

[그림 35] 주민등록인구 및 인구증가율 추이(2012.12~202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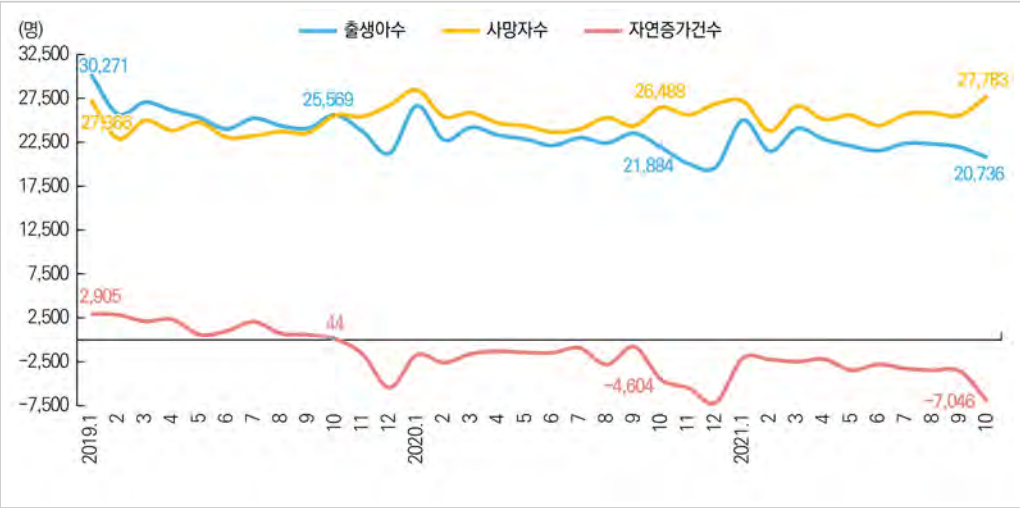
주: 각 연도 12월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임

자료: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은 인구 자연감소는 24개월째 지속

- 2021년 10월 출생아 수는 20,736명, 전년동월대비 1,148명(-5.2%) 감소
- 2021년 10월 사망자 수는 27,783명, 전년동월대비 1,295명(4.9%) 증가
-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7,046명 많아서 인구 자연감소가 발생하였으며, 2019년 11월 이후 24개월 째 인구 자연감소가 지속되고 있음

[그림 36] 월별 출생아 수, 사망자 수 및 자연증가건수 추이(2019.1~2021.10)



자료: 통계청(2021), 「국가통계포털(kosis.kr)」을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021년 10월의 혼인건수와 인구 천명당 조혼인률은 전년대비 감소

- 2021년 10월 혼인건수는 15,203건으로 전년동월대비 1,270건(-7.7%) 감소, 인구 천명당 혼인건수인 조혼인률은 3.5건으로 전년동월대비 0.2건 감소
- 2021년 1~10월까지의 총혼인건수는 155,660건으로 전년동기대비 17,526건(-10.1%) 감소
- 10월 기준 조혼인률은 2019년 4.7건, 2020년 3.8건, 2021년 3.5건으로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라고 볼 수 있음

[그림 37] 월별 혼인건수 및 조혼인율 추이(2019.01~2021.10)

주: 점선은 조혼인률의 추세선을 의미
자료: 통계청(2021), 「국가통계포털(kosis.kr)」을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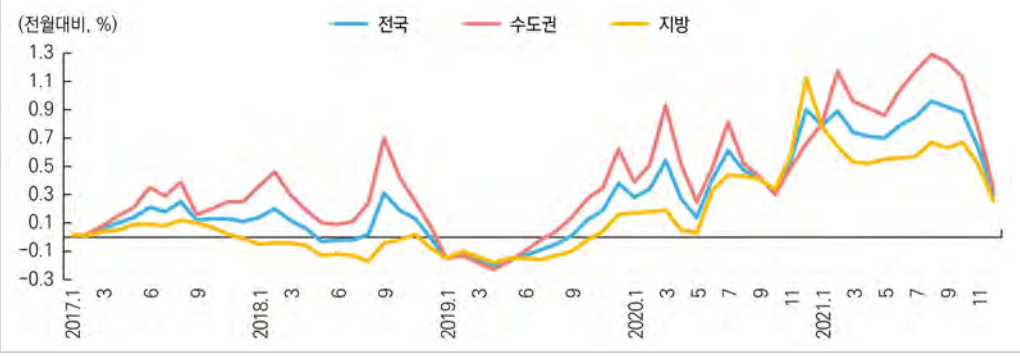
6. 부동산

12월 전국의 주택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및 전월세가격지수 변동률은 지난달 대비 상승폭 축소

■ **주택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전국 0.29%, 수도권 0.33%, 지방은 0.25%로 지난달에 비해 상승폭 축소**

- 수도권은 정비사업 및 개발사업 기대감이 있는 지역 위주로 상승했으나, 추가 금리인상 우려와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 영향으로 매수심리와 거래활동 위축세가 지속되면서 상승폭이 크게 축소
- 지방은 충남 0.43%, 충북 0.39%, 강원 0.37%, 경남 0.35% 순으로 높은 상승세를 보임

[그림 38] 권역별 주택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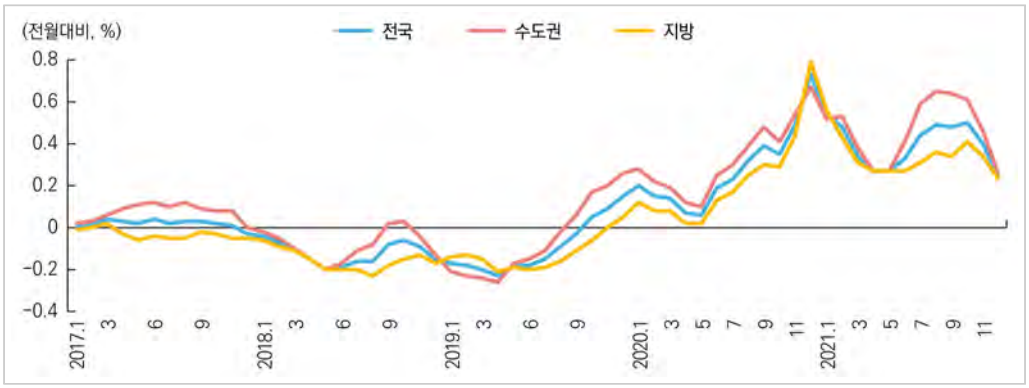


주: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이며,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지역, 지방은 수도권 이외 지역임
자료: 한국부동산원

■ **전국 주택 전월세 통합지수 변동률은 전국 0.24%, 수도권 0.25%, 지방 0.23%로 지난달에 비해 상승폭 축소**

- 수도권은 역세권 등 생활편의 선호도 높은 지역 위주로 전월세 가격이 상승했으나 계약갱신 사용 및 대출규제 등으로 상승폭이 축소되었으며, 지방도 대출규제 등의 영향으로 상승폭 축소

[그림 39] 권역별 주택 전월세 통합지수 변동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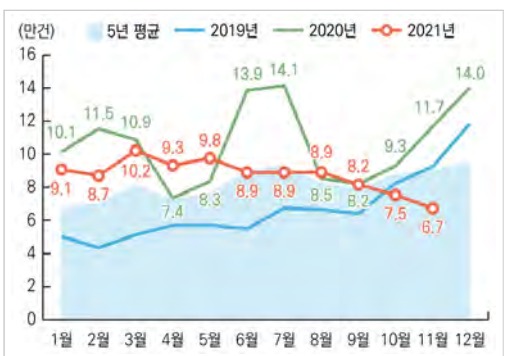
주: 전월세 통합지수 변동률이며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지역, 지방은 수도권 이외 지역임
자료: 한국부동산원

2021년 11월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소폭 감소했으나 전월세 거래량은 소폭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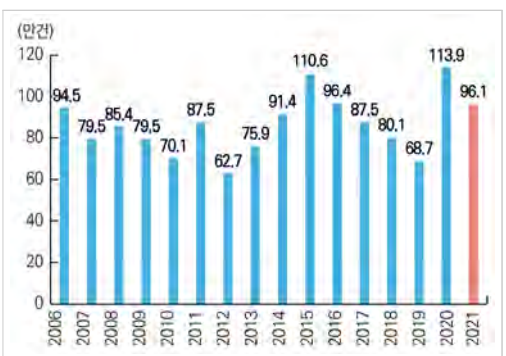
■ **주택 매매 거래량은 6만 7,159건으로 전월대비 10.8% 감소, 전년동월대비 42.5% 감소**

- 수도권(2.6만건)은 전월대비 17.6% 감소, 전년동월대비 35.9% 감소
- 지방(4.1만건)은 전월대비 5.8% 감소, 전년동월대비 46.1% 감소

[그림 40] 월별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



[그림 41] 연도별 11월 누적 주택 매매 거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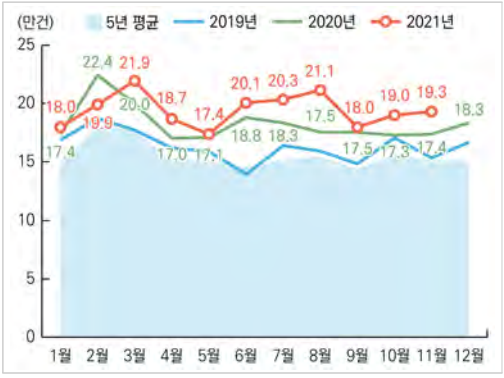


자료: 국토교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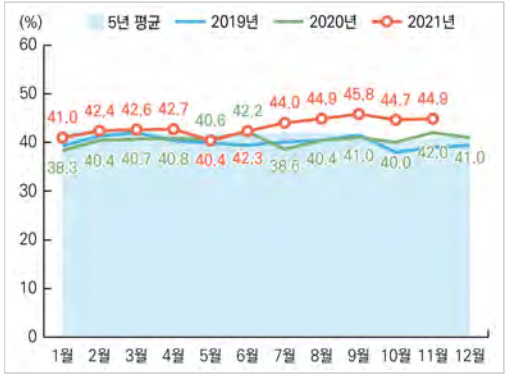
■ **전월세 거래량은 19만 2,990건으로 전월대비 1.6% 증가, 전년동월대비 11.2% 증가**

•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비중은 44.9%로 전월대비 0.2%p 증가, 전년동월대비 2.9%p 증가

[그림 42] 월별 전국 주택 전월세 거래량



[그림 43] 월별 전국 월세 비중



주: 임대차 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한 전월세 거래량

자료: 국토교통부

[2022년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주택 공시가격]

■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조사된 표준지·표준주택의 적정가격으로 국토교통부는 매년 1월 1일 기준 가격(안)을 공시**

•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

-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지 공시지가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토대로 비준표를 활용하여 시·군·구에서 산정

• 국토부는 표준지(전국 3,459만 필지 중 54만 필지) 공시지가(안)와 표준주택(전국 단독주택 414만호 중 24만호)의 공시가격(안)을 발표하였으며, 향후 결정·공시할 예정

-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2021.12.23.~2022.1.11.) 절차를 거친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월 25일 결정·공시 예정

■ **2022년 표준지 공시지가(안)는 전년 대비 전국 평균 10.16% 상승하여 전년도 상승률(10.35%)에 비해 상승폭이 0.19%p 감소**

• 지역별로는 서울(11.21%), 세종(10.76%),. 대구(10.56%), 부산(10.40%) 순으로 상승률이 높으며, 충남, 경남,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변동률이 작년보다 감소

〈시도별 표준지 공시지가(안) 변동률〉

(단위 : %)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22(안)	10.16	11.21	10.40	10.56	7.44	9.78	9.26	7.76	10.76
'21	10.35	11.35	11.10	10.96	8.83	11.4	10.48	7.51	12.40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2(안)	9.85	8.75	8.20	8.17	7.98	8.53	7.85	7.83	9.85
'21	9.74	9.30	8.25	7.25	8.69	9.67	8.44	7.73	8.33

자료: 국토교통부

■ **2022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전년 대비 전국 평균 7.36% 상승하여 전년도 상승률(6.80%)에 비해 상승폭이 0.56%p 상승**

- 지역별로는 서울(10.56%), 부산(8.96%), 제주(8.15%) 순으로 상승률이 높으며, 광주, 세종, 전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변동률이 작년보다 증가
  - 전체 표준주택의 약 97.8%가 9억원 이하로 재산세 특례(1세대 1주택 세율 과표구간 0.05%p 인하) 적용을 받으며, 98.5%가 11억원 이하로 종부세 대상 제외

〈시도별 표준주택가격(안) 변동률〉

(단위 : %)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22(안)	7.36	10.56	8.96	7.53	5.77	7.24	5.29	5.04	6.69
'21	6.80	10.42	8.41	6.46	5.39	8.38	5.21	3.28	6.94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2(안)	6.72	3.44	3.98	1.98	3.69	5.86	3.16	3.17	8.15
'21	6.01	3.24	2.61	1.19	3.43	6.00	2.71	1.64	4.62

자료: 국토교통부

해외경제 동향

경제분석국

최근 미국 경제는 견실한 성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며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시점이 빨라질 가능성도 점증하는 상황

- 11월 중 산업생산은 전월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나 공급망 제약이 완화되며 양호한 증가세를 이어갔고, 실질개인소비지출과 소매판매는 생산호조와 고용여건 개선세 지속 등에 힘입어 4개월 연속 증가
- 물가는 재화가격이 높은 상승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서비스 가격도 상승하며 PCE물가상승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전월에 이어 높은 수준을 이어감
- 미연준은 지난 12월 FOMC회의에서 정책금리 인상 시점이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였으며, 더 나아가 양적완화의 긴축 전환을 조기에 단행할 필요성까지 언급

중국경제는 주요 실물지표의 성장세 둔화 지속, 인플레이션 압력 확대 등으로 인해 저성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

- 11월 중국의 산업생산(3.8%), 소매판매(0.5%), 고정자산투자(5.2%)는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
- 11월 중국 소비자물가는 식료품 외 물가의 상승세가 유지되고 식료품 물가가 5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선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2.3% 상승
- 12월 중국의 종합PMI는 전월과 동일한 52.2를 기록

유로지역은 방역조치 완화로 실물지표가 개선흐름을 나타냈으나, 11월 중순부터 신규 확진자 증가로 소비심리가 둔화되는 등 회복세가 제약될 가능성

- 유로지역의 10월 중 산업생산은 전월대비 1.1% 증가, 11월 중 소매판매는 전월대비 1.0% 증가
- 그러나, 유로지역은 11월부터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주요국에서 봉쇄조치를 실시하는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면서 소비심리가 둔화

11월 일본경제는 코로나19 확산세 진정과 방역대책 완화로 회복세 시현

- 일본의 실물경제는 광공업 생산(7.2%)과 소매판매(1.2%)가 모두 전월대비 증가하며 개선되는 모습
- 소비자물가는 식료품과 광열·수도 등의 가격이 오르며 전년동월대비 0.6% 상승
- 노동시장에서는 비농업취업자수가 감소하고 실업률이(2.8%) 소폭 상승

III. 해외경제 동향

1. 미국

최근 미국 경제는 견실한 성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며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시점이 빨라질 가능성도 점증하는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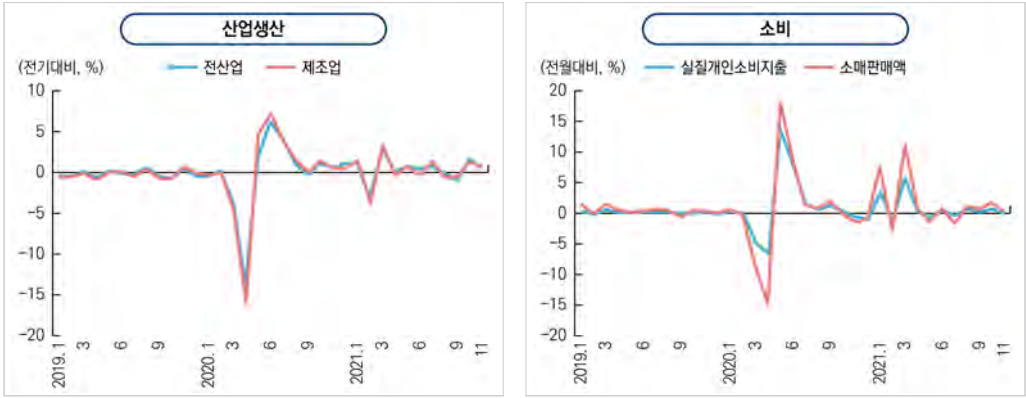
■ **11월 중 산업생산은 전월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나 공급망 제약이 완화되며 양호한 증가세를 이어갔고, 선행지표인 ISM제조업지수는 전월보다 소폭 증가**

- 전산업생산(전월비, %): ('21. 9월)-1.0→(10월)1.7→(11월)0.5
- 제조업생산(전월비, %): ('21. 9월)-0.5→(10월)1.4→(11월)0.7
- 선행지표인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기준치=50)는 12월 중 58.7로 전월(61.1)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

■ **11월 중 실질개인소비지출과 소매판매는 생산호조와 고용여건 개선세 지속 등에 힘입어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감**

- 실질개인소비지출은 서비스소비(0.5%)에서 늘며 전월 수준을 유지하였고, 소매판매는 전월(1.8%)보다 증가폭이 둔화되며 0.3% 증가
- 선행지수인 소비자신뢰지수(컨퍼런스보드 기준)는 11월 중 115.8로 오미크론 확산 속에서도 경기회복 기대감이 반영되며 전월(109.5)에 비해 상승

[그림 1] 미국의 산업생산 및 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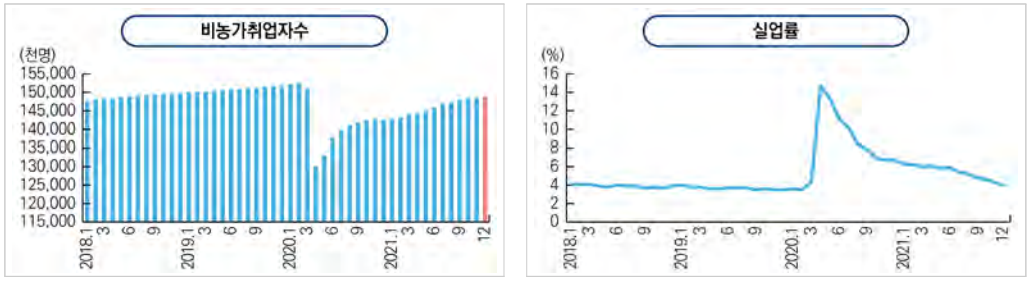


자료: FRB St. Louis 데이터베이스

■ **12월 중 노동시장은 비농가취업자수가 전월에 이어 예상치를 하회하며 증가폭이 축소된 반면 실업률의 하락 흐름은 지속되는 모습**

- 12월 중 비농가취업자수는 전월대비 19.9만명 증가하여 전월(24.9만명)에 이어 증가폭이 축소되었으나, 실업률은 3.9%로 전월에 이어 하락 흐름이 이어지며 팬데믹 직전 수준(2020년 2월 3.5%)에 접근하는 양상
- 민간부문 취업자수는 여가·호텔·식당 부문을 중심으로 21.1만명 증가하였고 정부부문 취업자수는 1.2만명 감소
- 비농가취업자수(전월대비, 만명): ('21.10월)64.8→(11월)24.9→(12월)19.9
- 실업률(%): ('21.10월)4.6→(11월)4.2→(12월)3.9

[그림 2] 비농가취업자수 및 실업률의 월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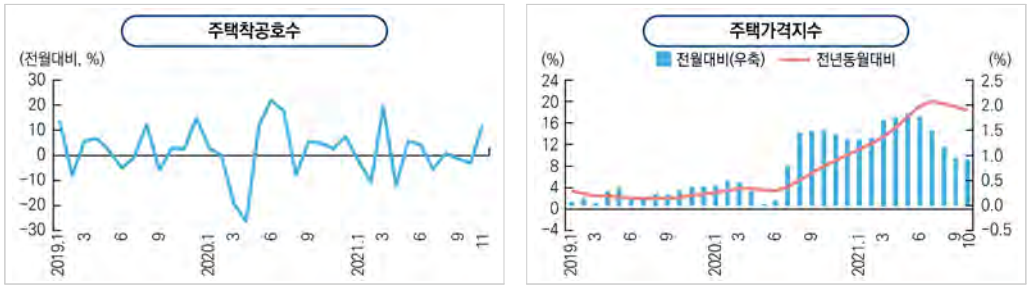


주: 월간 구인건수는 비농가기준
자료: FRB St. Louis 데이터베이스

■ **주택시장은 11월 중 신규주택착공호수가 3개월 만에 큰 폭으로 증가 전환되었고, 10월 중 주택가격은 3/4분기 이후 상승세가 빠르게 둔화되는 모습**

- 11월 중 신규주택착공호수는 전월대비 11.8% 큰 폭으로 증가 전환되며 2개월 연속 감소세에서 벗어나는 모습
- 10월 중 주택가격(S&P/Case-Shiller지수기준)은 전월대비 0.9% 상승하여 지난 6월(1.8%) 이후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둔화되는 양상이며, 전년동월대비로는 18.4% 상승

[그림 3] 주택착공호수 및 주택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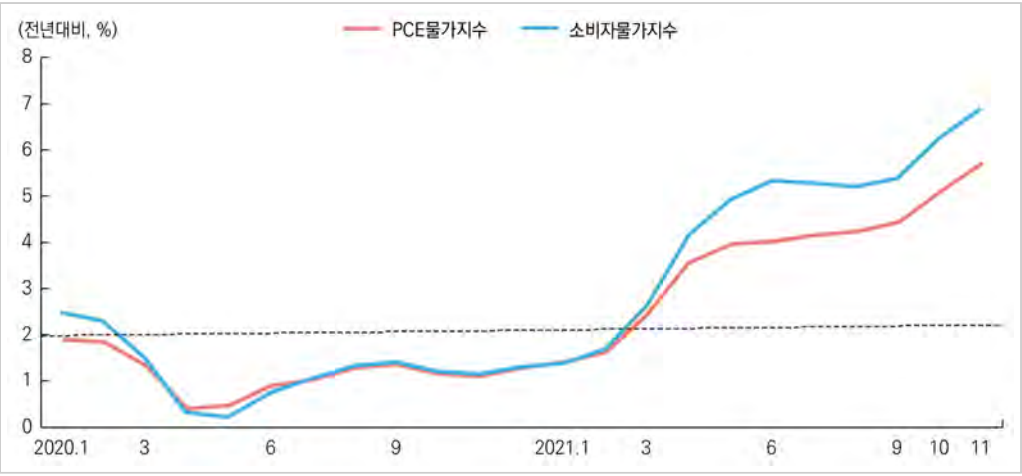


자료: FRB St. Louis 데이터베이스

■ **11월 중 물가는 공급망 제약에 따른 수급불균형으로 재화가격이 높은 상승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서비스 가격도 상승폭이 확대되며 PCE물가상승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전월에 이어 높은 수준을 이어감**

- 11월 중 PCE물가상승률은 5.7%로 전월(5.0%)보다 상승폭이 확대되었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내구재(14.9%), 비내구재(10.3%), 서비스가격(3.8%) 모두 전월보다 오름세가 확대되며 6.8%를 기록하여 6월 이후 6개월 연속 5%를 상회
- 근원PCE물가상승률은 4.7%로 연준의 장기목표 수준(2.0%)을 2%p 이상 상회하였고, 근원소비자물가상승률은 5.0%로 지난 1981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
- 물가 오름세가 확대됨에 따라 가계의 기대인플레이션 심리도 높은 수준에 이른 상황
- 기대인플레이션(미시건대 서베이 기준, %): ('21.10월)4.8→(11월)4.9→(12월)4.8

[그림 4] 미국의 개인소비지출(PCE)물가상승률 및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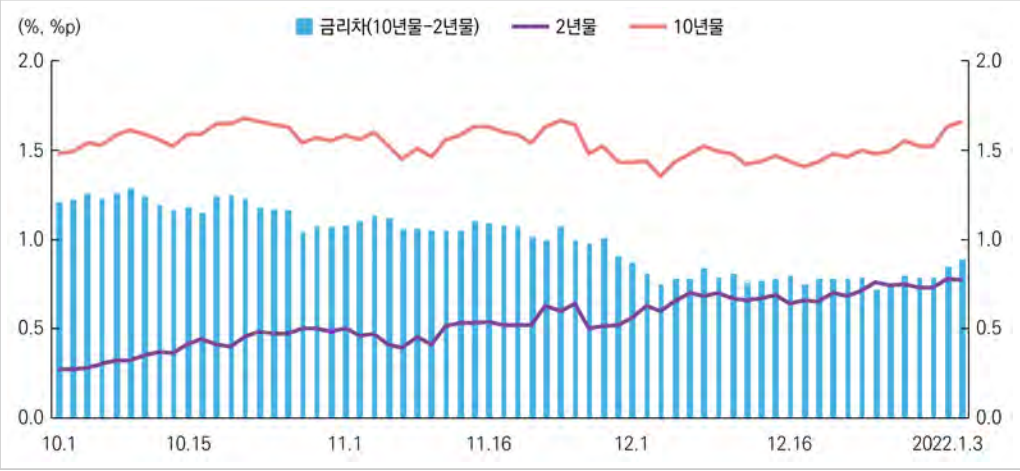
주: PCE(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 물가지수는 개인이 미국에서 소비한 모든 품목의 평균 가격 수준을 나타내며, 소비자물가지수에 비해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의료비와 주거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자료: FRB St. Louis 데이터베이스

■ **12월 중 시장금리는 통화정책 조기 정상화 가능성, 오미크론 변이 출현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 압력 지속과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 등이 부각되며 2년물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양상을 나타냄**

- 장기금리(10년물 기준)는 높은 물가상승압력 지속과 팬데믹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혼조 양상을 나타내며 전월대비 0.09%p 하락하여 월평균 1.47%를 기록
- 반면 2년물 금리는 전월에 이어 연준의 정책금리 조기 인상 가능성이 부각되며 전월(0.51%)보다 0.17%p 상승한 0.68%를 기록
- 기간금리차(국채10년물-2년물,%p):('21.10월)1.19→(11월)1.05→(12월)0.79

[그림 5] 미국 2년물과 10년물 국채금리와 기간금리차



자료: FRB St. Louis 데이터베이스

[미연준의 12월 FOMC 회의 결과 및 수정경제전망]

■ **미 연준은 12.14~15일 FOMC 회의에서 정책금리 목표범위를 현재 수준(0.00~0.25%)에서 유지하고 현재의 자산매입 프로그램 규모를 축소하기로 결정**

- 최근 미국 경제는 백신접종의 진전과 강력한 정책지원으로 경제활동 및 고용지표가 강화되었으나, 팬데믹에 가장 피해가 큰 부문은 코로나19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
- 팬데믹 및 경제 재개와 관련된 수급 불균형은 인플레이션 수준을 높이는 데 지속적으로 기여(have continued to contribute to elevated levels of inflation)
  - 인플레이션 상승이 일시적인 요인을 반영한다는 문구 삭제
- 완전고용과 인플레이션이 장기목표 수준을 상당기간 상회하였음을 고려하여 노동시장상황이 FOMC의 완전고용 평가에 부합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현재의 정책금리 목표 범위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기대
- 인플레이션 전개 상황과 노동시장 진전 등을 고려하여 현재의 자산매입 프로그램 규모를 매월 300억 달러씩 축소하기로 결정
  - 금년 1월부터 연준의 순자산 매입 속도를 국채의 경우 매월 200억 달러, MBS의 경우 100억 달러씩 축소하기로 결정
  - 현재의 테이퍼링 속도라면 3월 중 자산매입 프로그램이 종료될 전망

■ **이번 수정전망에서는 2021년 실질GDP 성장률(5.9%→5.5%)과 실업률(4.8%→4.3%)은 하향 조정한 반면 물가상승률(4.2%→5.3%) 전망치는 큰 폭으로 상향 조정**

- 실질GDP 성장률(4/4분기 전년동기대비 기준)은 2021년 5.5%에서 2022년 4.0%로 하락하고, 이후 2024년에는 2.0%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실업률은 2021년 4.3%(4/4분기 기준)에서 2022년 3.5%로 하락한 이후 2022년부터 장기 수준(4.0%)을 상당기간 하회할 것으로 전망
- PCE물가상승률은 2021년 5.3%(4/4분기 전년동기대비 기준)까지 상승한 이후 장기균형 수준(2.0%)을 상당기간 상회하여 2022년과 2023년에는 각각 2.6%, 2.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미 연준의 수정 경제전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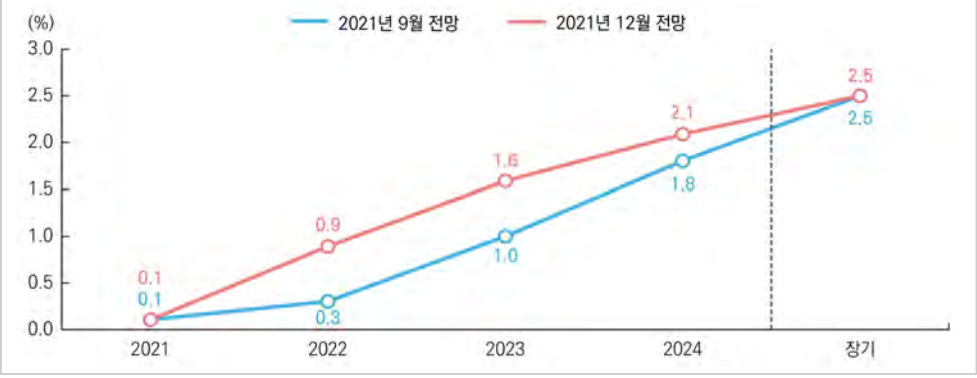
	2021	2022	2023	2024	장기
실질GDP성장률	5.5	4.0	2.2	2.0	1.8
('21년 9월전망)	5.9	3.8	2.5	2.0	1.8
실업률	4.3	3.5	3.5	3.5	4.0
('21년 9월전망)	4.8	3.8	3.5	3.5	4.0
PCE물가상승률	5.3	2.6	2.3	2.1	2.0
('21년 9월전망)	4.2	2.2	2.2	2.1	2.0
근원 PCE물가상승률	4.4	2.7	2.3		
('21년 9월전망)	3.7	2.3	2.2		

주: 회의참석자 예측치의 중간값(median) 기준임

■ 정책금리는 2022년 말까지 0.9%로 상승한 후 2023년 말 1.6%에 이를 것으로 전망

- 2021년 중 정책금리는 18명 전원이 동결을 제시하였지만 2022년 3회 (0.9%), 2023년 3회 (1.6%) 각각 인상 전망
  - 전원이 2022년까지 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9월의 경우 9명)하였으며, 대부분 0.75~1%의 금리 수준 전망
- 장기 균형금리는 지난 전망과 동일한 수준(2.5%)으로 예상

[미 연준의 정책금리 전망]



주: 회의참석자의 연말 정책금리 예측치의 중간값 기준임

■ 12월 FOMC 의사록에 따르면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금리 인상 시점이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양적 긴축을 조기에 단행할 필요성까지 제기됨

- 지난 1월 5일 공개된 12월 FOMC 의사록에 따르면 일부 참석자들은 '완전고용 목표가 달성되기 전에 정책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be appropriate for the Committee to

raise the target range for the federal funds rate before maximum employment had been fully achieved')고 언급

- 또한 현재의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감축(테이퍼링) 속도를 두 배로 높이는 것에 더해 일부 참석자들은 '정책금리 인상 시작 이후 비교적 빠르게 연준의 대차대조표 축소(양적 긴축)를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다'('be appropriate to begin to reduce the size of the Federal Reserve's balance sheet relatively soon after beginning to raise the federal funds rate')는 의견까지 제시
  - 세계금융시장은 미연준이 정책금리 인상에 그치지 않고 국채 등 보유자산(8조 7,600억달러 규모)을 축소하는 양적 긴축을 조기에 실시할 가능성에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모습

■ **미 연준의 테이퍼링 및 기준금리 인상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우선 외국 자본 유출 가능성과 금리인상 시기 및 속도 등에 대한 불확실성 확대로 금융시장과 환율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한국은행의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
-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가계대출 금리 및 회사채 금리 상승을 통해 가계부채 상환부담을 가중시키고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을 상승시켜 민간소비와 기업투자의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
- 또한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미국 및 주요 신흥국의 경제가 위축되면 수입수요 감소를 통해 우리나라의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2. 중국

중국경제는 주요 실물지표의 성장세 둔화 지속, 인플레이션 압력 확대 등으로 인해 저성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

■ **11월 중국의 산업생산은 전력난이 일부 해소되면서 광업, 제조업 등 주요 산업부문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3.8% 증가**

- 광업 생산은 석탄(9.6%), 비철금속(1.5%), 비금속광물(4.0%) 등에서 늘어나며 전년동월대비 6.2% 증가
- 제조업 생산은 전자기기(9.4%), 컴퓨터 및 통신기기(13.5%) 등에서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2.9% 증가

■ **11월 중국의 소매판매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외식업(-2.7%) 매출이 감소하며 전년동월대비 0.5% 증가에 그침**

- 자동차구매금액을 제외한 소매판매는 전년동월대비 5.4% 증가

■ **11월 중국의 고정자산투자는 설비투자(-3.7%)에서 7개월 연속 감소하였으나 인프라 투자 등 건설투자(9.5%)가 늘어나면서 전년동월대비 5.2% 증가**

[그림 6] 중국 산업생산 및 소매판매 추이

자료: CEIC

[그림 7] 중국 고정자산투자 추이

자료: CEIC

■ **11월 중국 소비자물가는 식료품 외 물가의 상승세가 유지되고 식료품 물가가 5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선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2.3% 상승**

- 변동성이 큰 신선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1.2% 상승

■ **11월 중국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중국 정부의 석탄증산으로 전력난이 일부 완화되면서 전월(13.5%)보다 상승폭이 축소된 12.9%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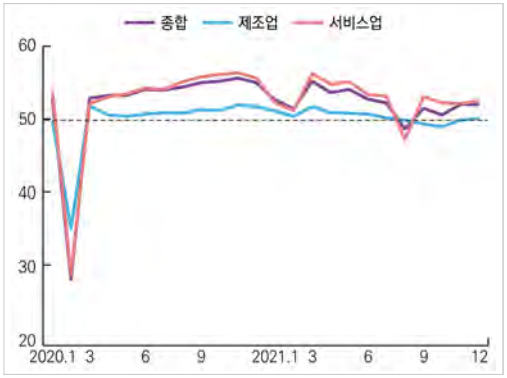
■ **12월 중국의 종합PMI(구매관리자지수)는 전월과 동일한 52.2를 기록**

- 12월 중국의 제조업 경기기대지수가 전월보다 상승한 54.3을 기록하면서 제조업PMI도 전월(50.1) 대비 소폭 상승한 50.3을 기록
- 종합PMI: ('21.10월)50.8→(11월)52.2→(12월)52.2

[그림 8] 중국 물가지수 추이

자료: CEIC

[그림 9] 중국 PMI 추이



자료: CE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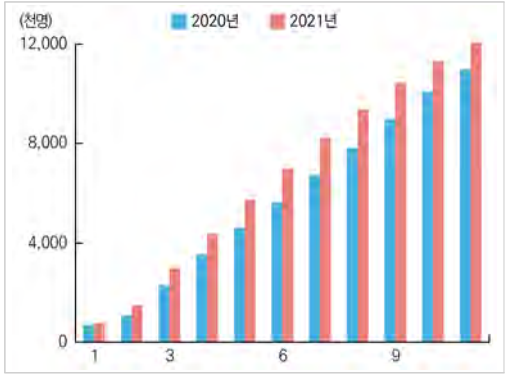
■ **11월 중국의 도시실업률(서베이)은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한 5.0%를 기록**

- 11월 중국의 도시지역 신규취업자수(누적치)는 1,207만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8% 증가
- 도시실업률(%): ('21.9월)4.9→(10월)4.9→(11월)5.0

■ **11월 중국의 수입은 석탄, 천연가스 등 국제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높은 증가세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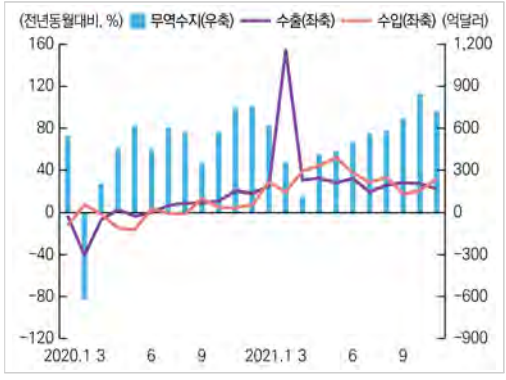
- 수출은 전자부품(28.3%), 가전제품(21,8%), 직물류(10.0%) 등에서 늘어나며 전년동월대비 22.0% 증가
- 수입은 석탄(762.6%), 천연가스(169.0%), 원유(80.1%) 등 원자재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31.7% 증가
- 11월 중국의 무역수지는 전년동월(742.5억 달러)보다 3.4% 감소한 717.1억 달러 흑자를 기록

[그림 10] 중국 신규취업자수 추이



자료: CEIC

[그림 11] 중국 수출입 및 무역수지 추이



자료: CEIC

3. 유로지역

유로지역은 백신접종 확대와 방역조치 완화로 실물지표가 개선흐름을 나타냈으나, 11월 중순부터 신규 확진자 증가로 소비심리가 둔화되는 등 회복세가 제약될 가능성

■ **유로지역의 10월 중 산업생산은 자본재와 내구소비재 생산 호조에 힘입어 전월대비 1.1% 증가**

- 부문별로는 중간재(-0.6%)를 제외한 자본재(3.0%), 내구소비재(1.7%), 비내구소비재(0.4), 에너지(0.1%) 모두 증가
- 산업생산(전월대비, %): ('21.8월)-1.7→(9월)-0.2→(10월)1.1

■ 11월 중 소매판매는 백신접종률 상승과 원활한 백신수급 등에 따른 방역완화 조치의 영향으로 2개월 연속 증가세

- 유로지역 소매판매(전월대비, %): ('21.9월)0.0→(10월)0.3→(10월)1.0
- 국가별 소매판매(전월대비, %): 스페인(4.9), 포르투갈(2.8), 네덜란드(1.3), 프랑스(1.1), 독일(0.6)

[그림 12] 유로지역 산업생산 추이

주: 건설업 제외
자료: Bloomberg, Eurost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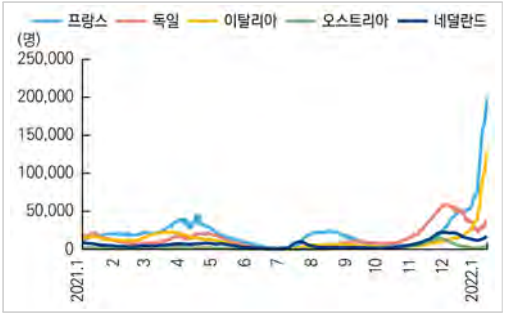
[그림 13] 유로지역 소매판매 추이

자료: Bloomberg, Eurostat

■ 유로지역은 11월 중순부터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주요국에서 봉쇄조치를 실시하는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면서 소비심리가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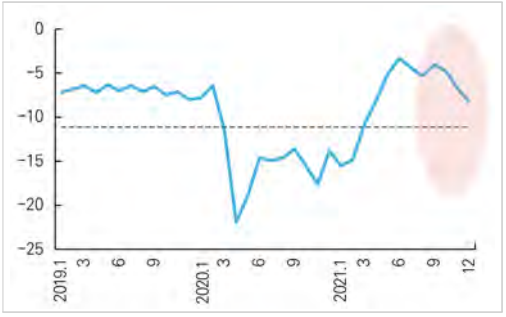
- 오스트리아는 11월 22일부터 12월 11일까지 외출제한, 영업시간 단축 등 봉쇄조치를 시행하였으며, 독일은 11월 19일부터 4개월간 백신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방역조치를 강화
- 네덜란드는 2022년 1월 14일까지 슈퍼마켓과 약국 등 필수상점을 제외한 비필수 상점과 술집, 식당, 영화관, 공연장, 박물관 등을 폐쇄하는 전국적 봉쇄에 돌입
- 12월 유로지역의 소비자신뢰지수는 -8.3으로 3개월 연속 하락

[그림 14] 유로지역 주요국 신규 확진자수 추이



주: 7일 이동평균
자료: Our World In Data

[그림 15] 유로지역 소비자신뢰지수 추이



주: 점선은 장기평균치(-11.1)이며, 소비자신뢰지수가 장기평균치보다 낮으면 경제상황과 전망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한 소비자가 많다는 의미
자료: EU 집행위

■ **11월 유로지역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에너지가격의 오름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요회복에 따른 서비스물가 상승 등으로 4.9% 올라 1999년 유로지역 출범 이후 최고치 경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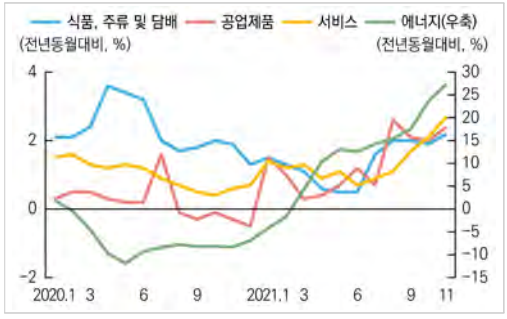
- 에너지 가격은 전년동월 큰 폭 하락(-8.3%)에 따른 기저효과가 나타난 가운데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27.5% 상승
- 수요가 점차 회복되면서 서비스 물가의 상승폭이 확대되어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도 2.7%까지 상승

  * 서비스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1.8월)1.1→(9월)1.7→(10월)2.1→(11월)2.7

[그림 16] 유로지역 소비자물가 추이

자료: Bloomberg, Eurostat

[그림 17] 유로지역 부문별 소비자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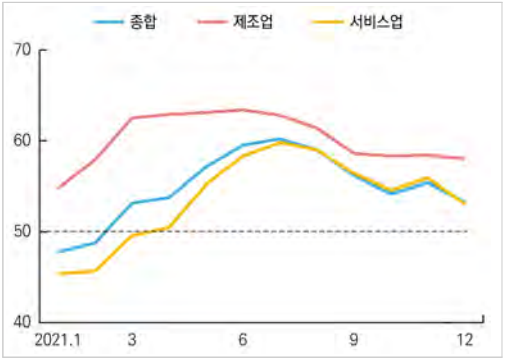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Eurostat

■ **12월 중 유로지역의 종합PMI는 방역조치 강화 등으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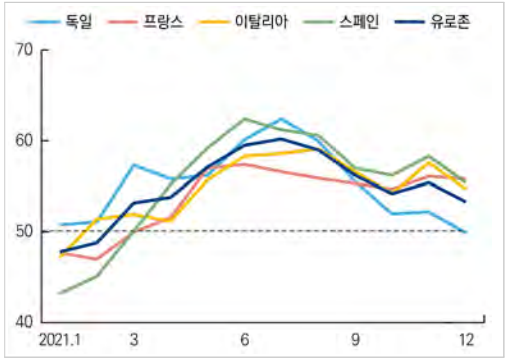
- 유로지역 종합 PMI는 서비스업과 제조업 PMI가 하락하면서 전월보다 2.1p 낮은 53.3을 기록
- 제조업 PMI는 일부 제조업체의 공급망 차질 등의 영향으로 전월보다 소폭(0.4p) 하락한 58.0을 기록
- 서비스업 PMI는 신규확진자수 증가로 봉쇄조치가 시행되면서 전월보다 2.8p 하락한 53.1을 기록

[그림 18] 유로지역 PMI 추이



자료: Bloomberg, Markit

[그림 19] 유로지역 국가별 종합 PMI 추이



자료: Bloomberg, Markit

4. 일본

일본경제는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와 방역대책이 완화되며 경제·사회활동이 정상화되는 가운데 생산과 소비가 모두 증가하며 회복세를 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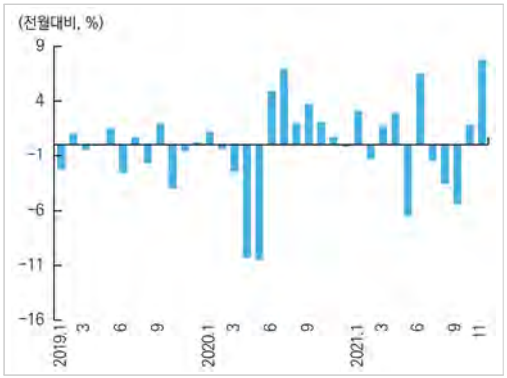
■ **11월 일본의 광공업 생산은 무기·유기 화학(-1.6), 석유·석탄 제품(-6.2%)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자동차(43.1%), 플라스틱 제품(9.5%) 등에서 늘어나면서 전월대비 7.2% 증가**

- 출하(7.4%)와 재고(1.7%) 모두 전월대비 상승하였으며 재고율(-2.6%)은 감소

■ **11월 일본의 수출과 수입은 각각 7조 4천억엔, 8조 3천억 엔을 기록하였으며 무역수지는 1조엔 적자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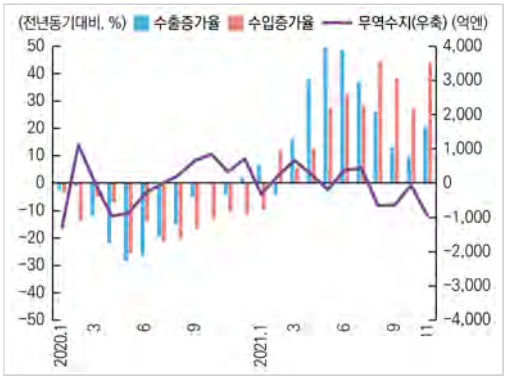
- 수출은 제철 및 제강(87.8%), 화학제품(20.2%), 반도체 기계(44.7%) 등이 증가하며 전년동월대비 20.5% 증가
- 수입은 석유(129.2%), LNG(136.1%), 석탄(195%) 등 광물연료(144.1%)와 반도체 등 전자부품(60.7%) 등이 증가하며 전년동월대비 45.4% 증가
- 무역수지(억엔): ('21.9월)-6,296→(10월)-685→(11월)-9,548

[그림 20] 일본 광공업 생산 추이



자료: 경제산업성

[그림 21] 일본 수출입 및 무역수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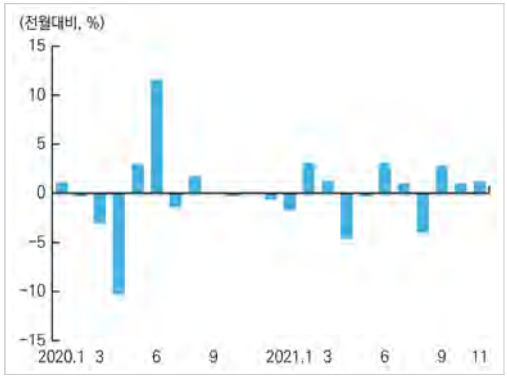
자료: 재무성

■ **11월 일본 소매판매액은 일반상품(4.2%), 직물·액세서리(7.5%), 자동차(7.2%) 등이 늘어나며 전월대비 1.2% 증가**

■ **11월 일본 소비자물가는 보건·의료(-0.2%), 교통·통신(-6.9%) 등에서 하락하였으나 식료품(1.4%), 광열·수도(9.2%) 등이 상승하며 전년동월대비 0.6% 상승**

- 변동성이 큰 신선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0.6% 하락

[그림 22] 일본 소매판매 추이



자료: 경제산업성

[그림 23] 일본 소비자물가 추이

자료: 총무성

■ **11월 일본 비농업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38만명 감소('20.11월: -44만명)하였으며, 실업률은 상승한 2.8% 수준**

- 실업률은 방역이 완화되고, 자발적 이직이 증가하며 전월대비 0.1%p 증가
- 비농업취업자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1.9월)-13→(10월)-17→(11월)-38

■ **12월 일본 종합PMI(구매관리자지수)는 전월(53.3)대비 0.8p 감소한 52.5를 시현**

- 제조업PMI는 전월(54.5)대비 감소한 54.3를 기록하였으며, 서비스업PMI 역시 전월(53.0)대비 감소한 52.1을 나타냄
- 일본의 서비스업 PMI는 2020년 1월 이후 약 2년만인 2021년 10월에 확장세에 진입하였으나 12월 들어 11월에 비해 소폭 하락을 시현

[그림 24] 일본 비농업취업자수 증감 및 실업률 추이

자료: 총무성

[그림 25] 일본 PMI 추이

자료: Bloomberg

[전 세계 코로나19 현황]

■ 2022년 1월 전 세계 코로나19는 오미크론 변이 출현 이후 재확산세가 가속되는 양상

- 1월 16일 존스홉킨스 대학 집계 기준 전 세계 누적 확진자 수는 3억 2,812만명이고, 일일 확진자 수는 약 190만명
  - 신규 확진자 수는 북미, 유럽, 아프리카에 이어 오세아니아, 남미, 아시아 등 모든 대륙에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대륙별 백만명당 일일 확진자 수가 많은 지역은 "오세아니아 〉 유럽 〉 북미 〉 남미 〉 아시아 〉 아프리카" 지역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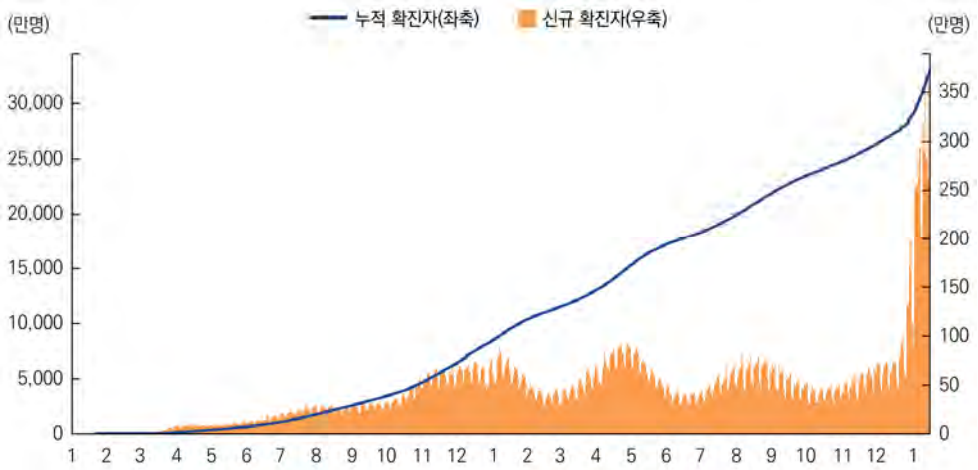
〈전세계 코로나19 누적 및 일일 확진자 현황(1.16. 현재)〉

(단위: 명)

구분	전세계	유럽	북미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확진	328,120,477	105,299,080	77,206,161	90,264,120	43,047,253	10,344,235	1,958,042
(일일)	1,901,436	793,183	313,599	492,817	224,231	17,657	59,949
백만명당 확진	41,666	140,593	129,414	19,294	99,128	7,531	45,304
(일일)	241	1,059	526	105	516	13	1,387
사망	5,539,660	1,575,755	1,251,321	1,276,072	1,198,266	233,236	4,995
(일일)	4,123	1,710	721	912	508	253	19

자료: Our World in Data, 존스홉킨스 대학교

〈전세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추이(1.16. 현재)〉



자료: Our World in Data, 존스홉킨스 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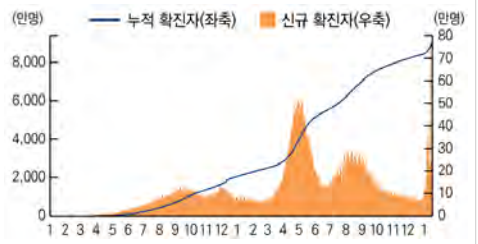
■ **대륙별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살펴보면, 작년 말 비교적 뚜렷한 재확산세가 나타났던 북미, 유럽, 아프리카 외 나머지 대륙에서도 1월 이후 확진자수의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음**

- **(북미·유럽)** 오미크론 변이 감염 확산에 따른 확진자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미국의 1월 5일 기준 신규 확진자수가 62만명을 돌파
- **(아시아)** 일본의 확진자수가 1월 16일 기준 2만 5,479명을 기록하는 등 오미크론 변이 감염에 따른 아시아 주요국(일본, 인도, 싱가포르, 태국 등)의 코로나19 확산세가 나타나고 있음
- **(남미)**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아르헨티나, 멕시코, 브라질 등 중남미 국가들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가속화되고 있음
- **(아프리카)** 오미크론 변이의 진원지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자연면역과 백신 접종률 증가에 따라 확산세가 다소 진화된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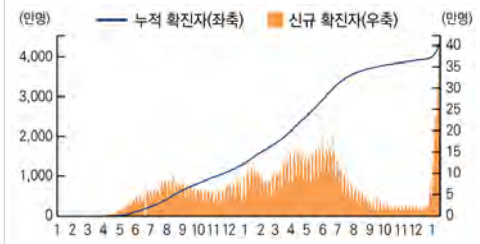
〈북미 지역〉

〈유럽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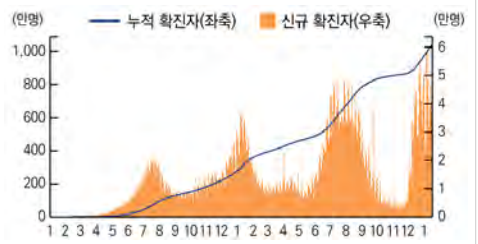
〈아시아 지역〉



〈남미 지역〉



〈아프리카 지역〉



〈오세아니아 지역〉

자료: Our World in Data, 존스홉킨스 대학교

주: 가로축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월 현재까지의 시계열을 월 단위로 표시한 것임.

[코로나19 전세계 확산 현황(1.16. 기준)]

순위	국가	누적 확진자 (명)	신규 확진자 (명)	100만명당 누적 확진자 (명)	누적 사망자 (명)	사망률 (%)
1	미국	65,703,875	258,441	197,359	850,608	1.3
2	인도	37,380,253	258,089	26,827	486,451	1.3
3	브라질	23,015,128	33,277	107,551	621,327	2.7
4	영국	15,253,183	70,160	223,630	152,109	1.0
5	프랑스	14,222,100	278,129	210,942	127,033	0.9
6	러시아	10,621,410	28,977	72,793	314,838	3.0
7	터키	10,459,094	54,100	122,986	84,758	0.8
8	이탈리아	8,706,915	157,465	144,232	141,104	1.6
9	스페인	8,093,036	162,508	173,131	90,759	1.1
10	독일	8,021,339	33,129	95,605	115,654	1.4
11	아르헨티나	7,094,865	65,241	155,569	118,040	1.7
12	이란	6,221,033	2,292	73,164	132,075	2.1
13	콜롬비아	5,543,796	32,317	108,138	130,996	2.4
14	멕시코	4,368,314	19,132	33,535	301,410	6.9
15	폴란드	4,313,036	14,661	114,111	102,305	2.4
16	인도네시아	4,271,649	855	15,457	144,170	3.4
17	우크라이나	3,936,582	6,632	90,565	104,765	2.7
18	네덜란드	3,577,529	36,231	208,322	21,230	0.6
19	남아공	3,559,292	2,659	59,280	93,364	2.6
20	필리핀	3,205,396	37,017	28,865	52,907	1.7
21	말레이시아	2,808,347	3,010	85,683	31,793	1.1
22	캐나다	2,765,668	14,926	72,651	31,572	1.1
23	페루	2,606,126	43,592	78,123	203,464	7.8
24	체코	2,596,439	9,292	242,102	36,853	1.4
25	벨기에	2,410,731	63,567	207,244	28,612	1.2
26	타이	2,308,615	8,158	33,003	21,898	0.9
27	이라크	2,114,313	3,630	51,344	24,247	1.1
28	베트남	2,023,546	15,684	20,613	35,609	1.8
29	루마니아	1,903,428	7,595	99,511	59,240	3.1
30	포르투갈	1,884,974	32,271	185,384	19,303	1.0
31	일본	1,881,481	25,479	14,926	18,429	1.0
32	칠레	1,876,610	9,509	97,677	39,394	2.1
33	이스라엘	1,792,130	18,501	192,889	8,318	0.5
34	오스트레일리아	1,786,007	59,891	69,257	2,692	0.2
35	스위스	1,666,441	32,183	191,204	12,469	0.7
36	그리스	1,660,871	10,783	160,150	21,984	1.3
37	방글라데시	1,617,711	5,222	9,728	28,144	1.7
38	스웨덴	1,560,363	25,566	153,577	15,513	1.0
39	오스트리아	1,443,589	15,419	159,635	13,920	1.0
40	세르비아	1,436,395	11,248	209,035	13,071	0.9
59	대한민국	696,032	3,858	13,567	6,333	0.9

자료: Our World in Data, 존스홉킨스 대학교

[주요 경제정책 동향]

■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12.11(토) 관계부처 합동으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산업·에너지 탄소중립 대전환 비전과 전략」을 발표[1)]**

- 정부는 2050년까지 석탄발전의 비중 축소, 재생에너지와 수소중심으로 에너지 발전체계 전환 등을 달성할 5대 전략을 제시

[산업·에너지 탄소중립 대전환 비전과 전략]

비전	저탄소 경제를 선도하는 세계4위 산업강국		
목표		2018년	2050년
	재생에너지 전원 비중	3.6%	70.8%
	청정수소 자급률	0%	60%
	친환경 고부가 품목 비중	16.5%	84.1%
	제조업 탄소집약도	496톤CO2eq/십억원	68톤CO2eq/십억원
	대한민국 수출 순위	6위	4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전략 1: 산업구조의 저탄소 전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탄소 중립기술 도입에 따른 기업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세제·금융 등 정부지원을 확대하며 저탄소 시대에 맞도록 규제를 정비
- **(전략 2: 탄소중립 기회 신산업 육성)** 친환경 인프라, 저탄소 소부장, 그린 엔지니어링 등 분야에서 신성장동력화를 추진

		주요 내용
친환경 인프라 구축	수소경제 인프라	• 수소운반선 상용화(30년), 장거리·대용량 액화수송(50년) 등 실현 • 청정수소자급율 60% 이상 달성(50년) 등 全주기 수소 생태계 구축
	친환경 모빌리티	•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공공선박 전환 등 → 조기 수요 확대 • 차부품(30년까지 1,200개사 전환), 이차전지 등 연관산업 동반 혁신
	재생에너지 인프라	• 50년까지 태양전지 효율 40%, 20MW급·長수명 풍력 개발 • 최저효율제·탄소인증제 고도화 → 고효율·친환경 시장 확대
저탄소 소부장	차세대 이차전지	• 신소재 기반 차세대 전지 상용화(30년), 생산능력 10배 확대(40년) • 사용후배터리 육성 + 친환경모빌리티 등 수요산업 연계 성장
	차세대 반도체	• SiC, GaN 등 화합물 기반 초저전력·고성능 반도체 개발 • '국가전략기술' 지정으로 최고수준 세제지원 → 혁신투자 유도
	바이오 소재	• 40년까지 바이오플라스틱 상용화, 50년 완전 상용화 추진 • 바이오 파운드리 전면도입(40년) + 인증 등 이용기반 신속 완비
그린 엔지니어링	그린 플랜트 EPC	• 40년 수소환원제철(300만톤급), 50년 전기분해가열로 상용화 • 「그린 플랜트 해외진출 파트너십」 구축 → 해외진출 역량 제고
	CCUS	• 대규모 저장소 조기확보(30년까지 9억톤), 동해가스전 등 활용 실증 • CCUS 법안 마련 등 재정적·제도적 지원기반 확충
	에너지 新서비스	• EaaS, 데이터 연계 관리·보안 등 新사업모델 창출 • 에너지IT R&D 지원 및 50년까지 에너지혁신기업 7천개 육성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전략 3: 탄소중립 확산 생태계 구축)** 안정적인 에너지 기반을 확보하고 탄소가치 반영 시장을 창출하며 탄소중립 공급망을 관리
  -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50년까지 72.1%로 확대하고 안정적 청정수소 공급기반을 확보하며 기업의 재생에너지 접근성을 확대 및 이용 인센티브를 마련
  - 제품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체계를 확립하고 안정적인 저탄소 시장수요 확보를 위해 「탄소중립 공공조달」 체계를 강화
  - 산업전환이 유발할 공급망 이슈에 대해 공급망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수입선을 다변화하며, 국내생산·기술자립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
- **(전략 4: 함께 도약하는 정의로운 전환)** 중소 및 중견기업의 저탄소 공정 전환을 촉진하고 전통산업 및 인력을 선제적으로 사업재편하며 지역경제의 녹색 균형발전을 추진
  - "(가칭)탄소중립 전환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기술보급 및 녹색경영을 촉진하고 친환경 생산설비를 보급
  -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사업재편 제도를 상시화하고 선제적 탄소중립 사업재편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를 보강
  - 그린뉴딜 투자와 연계하여 지역별 맞춤형 탄소중립 신산업을 육성하고 지역산업 거점을 중심으로 스마트그린산단을 지속적으로 확대
- **(전략 5: 산업 탄소중립 전환 거버넌스 확립)** 산업계 수요에 기반한 유연한 정책 보완 체계를 구축하고 「탄소중립 산업전환 촉진 특별법」을 제정
  - 「탄소중립 산업전환 촉진 특별법」은 탄소중립 전문기업 지정·육성, 저탄소 제품·기술 시장 조성, 규제특례·취약산업·기업지원의 근거 마련 등을 포함

■ **한국은행은 2021.12. 24(금) "2022년 통화신용정책 운용방향"을 발표[2)]**

- 금융당국은 기준금리 운용, 대출제도의 효율성 제고, 금융시스템 안정 유지 등 정책 방향을 제시
  - **(기준금리 운용)** 성장세와 물가상승률, 금융불균형 상황, 주요국의 통화정책 등을 고려하여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
  - **(대출제도의 효율적 운용)**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을 선별적으로 지속하고 정책효과 제고를 위해 노력
  - **(금융시스템 안정 유지)** 대내외 위험 요인의 전개에 따른 위험선호성향, 신용 및 자산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금융불균형 위험의 누적 정도를 평가
  - **(통화정책의 유효성 제고)** 현행 물가안정목표제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포스트 코로나 이후 인플레이션 환경 변화와 금융안정책무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방안을 모색
  - **(지급결제제도의 효율성·안전성 제고)** 디지털화의 빠른 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도입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고 지급결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확충 및 법적·제도적 개선을 시행

1)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에너지 탄소중립 대전환 비전과 전략」 발표,"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21.12.11.
2) 한국은행, "2022년 통화신용정책," 한국은행 보도자료, 2021.12.24.

NABO 경제·산업동향&이슈

NABO Economic·Industrial Trends & Issues

CONTENTS

경제·산업동향

경제·산업현안 | 2022년 경제정책방향 점검과 시사점
2022년 세계경제 전망과 위험 요인
미·중 무역분쟁의 현황 및 향후 영향 검토
장래 인구변화를 반영한 노동공급규모 전망

경제·산업이슈 | 환율이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본 원고의 내용은 저자 개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한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PART 2

Economic·Industrial Trends & Issues

경제·산업현안

Ⅰ. 2022년 경제정책방향 점검과 시사점 ····· 98

Ⅱ. 2022년 세계경제 전망과 위험 요인 ····· 104

Ⅲ. 미·중 무역분쟁의 현황 및 향후 영향 검토 ····· 113

Ⅳ. 장래 인구변화를 반영한 노동공급규모 전망 ····· 120

Ⅰ. 2022년 경제정책방향 점검과 시사점

경제분석국 경제분석총괄과 **진 익** 과장 (6788-3780)

1. 대내외 불확실성과 정부 경제정책방향

2022년 1월 한국경제는 다양한 대내외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음

■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하방충격이 발생한 이후, 2021년 방역체계 강화와 확장적 재정·통화정책에 힘입어 한국경제는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한국경제는 2021년 1/4분기에 위기 전 국내총생산 수준을 회복하였으며, 정부는 2020~21년 평균 성장률이 G20 선진국 중 최고 수준일 것으로 전망[1)]

■ **코로나19 변이 출현, 주요국의 양적완화와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 글로벌 공급망 차질에 따른 생산비용 상승 등의 잠재적 위험요인도 심화되고 있음[2)]**

- 백신 보급의 불평등은 코로나19 변이 출현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등 코로나19 대유행의 장기화를 야기하여 신흥·저개발국 실물경제의 조기 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음
- 선진국에서 지속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압력은, 통화정책 정상화의 필요성을 증가시켜 주요국 통화정책이 긴축기조로 전환되는 것을 가속화시킬 수 있음
- 국내외 통화정책의 기조 전환에 따라 국내투자 해외자본의 유출이 촉발될 수 있음

정부는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위기 극복을 넘어 일상과 경제를 되찾고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관련 정책방향을 제시

■ **정부는 2022년 경제 여건을 글로벌 경제 성장세 지속, 일상회복 추진 등으로 개선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대내외 불확실성도 높아지는 상황으로 평가**

- ① 소비·투자·수출의 고른 증가로 성장 회복세를 이어가고, ② 고용개선 흐름이 지속되겠으나 구조적 제약 요인이 상존하며, ③ 당분간 수요측·공급측 물가 상방압력이 지속되는 한편, ④ 경제 정상화 과정에서 전 세계적 위험이 확대될 수 있음[3)]

■ **완전한 경제 정상화와 선도형 경제기반 공고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는데, 그 중 2022년 한국경제의 핵심 과제인 경제 정상화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음[4)]**

※ 정부의 보도참고자료와 한국은행의 경제통계자료를 참조하여 작성

1) 관계부처합동, 「2022년 경제정책방향 주요 내용」, 2021.21.20.

2) 국회예산정책처, 「2021년 주요국 경제현황분석: 코로나19와 유동성 팽창에 따른 잠재적 리스크」

3) 「2022년 경제정책방향 주요 내용」은 오미크론 확산, 공급망 차질 장기화,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이 경기·물가·자본유출입 불확실성을 높일 가능성을 글로벌 리스크로 진단

- (경제 정상궤도로의 도약) 재정·통화·금융 정책조합 최적화, 피해부문 중심 내수 진작, 경제 전반의 투자 분위기 확산, 역대급 수출 호조세 지속 등
- (민생경제 회복 본격화) 소상공인 재도약 지원, 서민 생활물가 부담 완화, 고용시장 복원 및 안전망 확충, 신(新)양극화 대응 등
-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글로벌 공급망 변화 탄력 대응, 가계부채·한계기업 연착륙 지원,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기조 안착, 금융·외환시장 안정과 대외이슈 대응 등

현 경제상황을 지난 50년 동안 역성장을 경험하였던 경제위기 시기들과 비교함으로써 정책조합과 관련한 시사점을 확인하고자 함

■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제시한 정책과제이자, 한국경제가 2022년에 정상궤도로 도약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정책조합 최적화의 중요성을 살펴 봄**

2. 한국경제의 역성장 기간

한국경제는 1970년 이후 50년 동안 네 차례의 역성장 시기를 경험하였음

■ **과거 207개 분기(1970년 1분기~2021년 3분기) 동안 관측되었던 실질국내총생산의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을 기준으로 역성장 시기를 식별**

- 네 차례 역성장 시기의 시작 시점은 각각 1980년 2분기(2차 오일쇼크), 1998년 1분기(외환위기), 2008년 4분기(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2분기(코로나19 대유행)임
- 아래 표는 역성장이 시작되기 직전 분기 이후 6개 분기 동안의 추이를 보여줌

[표 1] 국내총생산 역성장 시기

(단위: %)

2차 오일쇼크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대유행	
분기	성장률	분기	성장률	분기	성장률	분기	성장률
1980 1	0.2	1997 4	4.3	2008 3	3.9	2020 1	1.4
1980 2	-3.5	1998 1	-3.2	2008 4	-1.6	2020 2	-2.7
1980 3	2.3	1998 2	-7.5	2009 1	-1.9	2020 3	-1.0
1980 4	-4.9	1998 3	-6.6	2009 2	-1.1	2020 4	-1.1
1981 1	3.7	1998 4	-3.7	2009 3	1.0	2021 1	1.9
1981 2	3.8	1999 1	6.4	2009 4	5.1	2021 2	5.8

자료: 한국은행 ECOS 자료를 사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4) 「2022년 경제정책방향 주요 내용」에 제시된 선도형 경제기반 공고화를 위한 정책방향은 ① 차세대 성장동력 보강, ② 미래 도전과제 선제 대응 등

역성장 시기별로, 역성장이 시작되기 직전 분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후 3개년(12개 분기) 동안 나타났던 주요 경제지표 증가율의 누적 변화 추이를 검토

■ **국내총생산 성장률, 인플레이션률, 협의통화량(M1) 증가율, 국내총생산의 정부소비지출 탄력성 관련 변화율 등의 누적 변화를 통해 경제상황을 진단함**

-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변화 추이와 이전 역성장 시기 변화 추이를 비교
- 분석대상 경제지표(i)에 대하여, 비교시점(t)의 증가율($g_{i,t}$)에서 기준시점(t=0)의 증가율($g_{i,0}$)을 차감하여 증가율 변화($\Delta g_{i,t}$)를 산정

$$\Delta g_{i,t} = g_{i,t} - g_{i,0} \qquad \text{식(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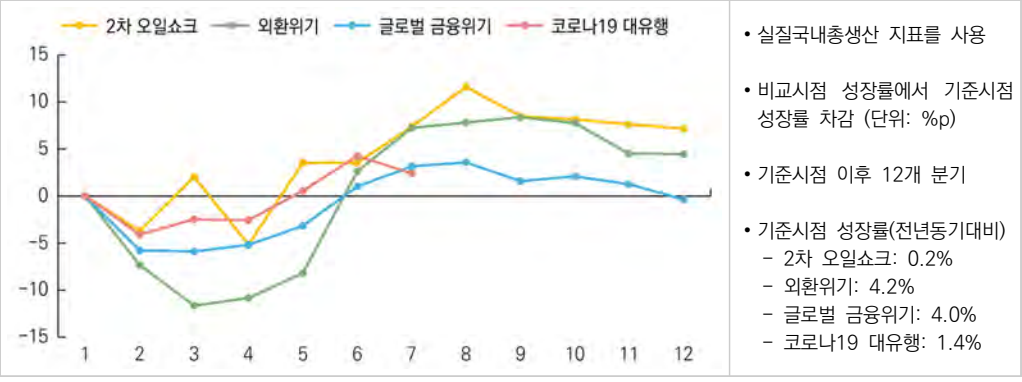
3. 2022년 경제상황 진단

코로나19에 따른 실물경제 충격은 이전 역성장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았던 반면, 현 시점의 인플레이션 상승압력은 이전 경제위기 기간 대비 상대적으로 큼

■ **국내총생산 성장률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작았고 하방충격 직전 수준으로의 회복도 빨랐으나 코로나19 변이 발생으로 성장 추세 지속 여부는 불확실한 상태**

- 향후 경기국면 예측 지표인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2021년 6월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경기국면의 전환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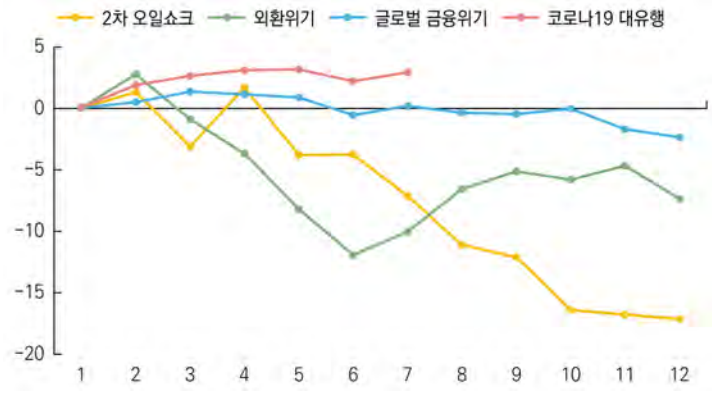
[그림 1] 역성장 시기별 국내총생산 성장률 변화



자료: 한국은행 ECOS 자료를 사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과거 경제위기와 달리 하방충격 이후 인플레이션 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요·공급 측면, 대내외 요인 등에서 상방압력이 동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림 2] 역성장 시기별 인플레이션률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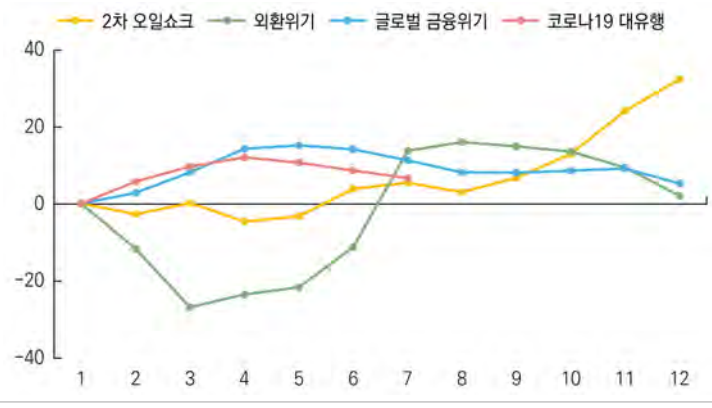
- 국내총생산 디플레이터를 사용
- 비교시점 변화율에서 기준시점 변화율 차감 (단위: %p)
- 기준시점 이후 12개 분기
- 기준시점 변화율(전년동기대비)
  - 2차 오일쇼크: 22.1%
  - 외환위기: 7.0%
  - 글로벌 금융위기: 2.8%
  - 코로나19 대유행: -0.6%

자료: 한국은행 ECOS 자료를 사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코로나19 이후 완화적 통화정책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컸으며, 국내총생산과 정부소비지출 사이 상관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되었던 결과로 볼 수 있음

■ 협의통화량(M1) 증가율이 대유행 발생 직전 분기에 비해 상승하였으며, 이는 하방충격에 대해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신속히 대응함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음

[그림 3] 역성장 시기별 협의통화량(M1) 증가율 변화



- 분기별 평잔을 사용
- 비교시점 증가율에서 기준시점 증가율 차감 (단위: %p)
- 기준시점 이후 12개 분기
- 기준시점 증가율(전년동기대비)
  - 2차 오일쇼크: 20.6%
  - 외환위기: 17.1%
  - 글로벌 금융위기: 2.1%
  - 코로나19 대유행: 12.0%

자료: 한국은행 ECOS 자료를 사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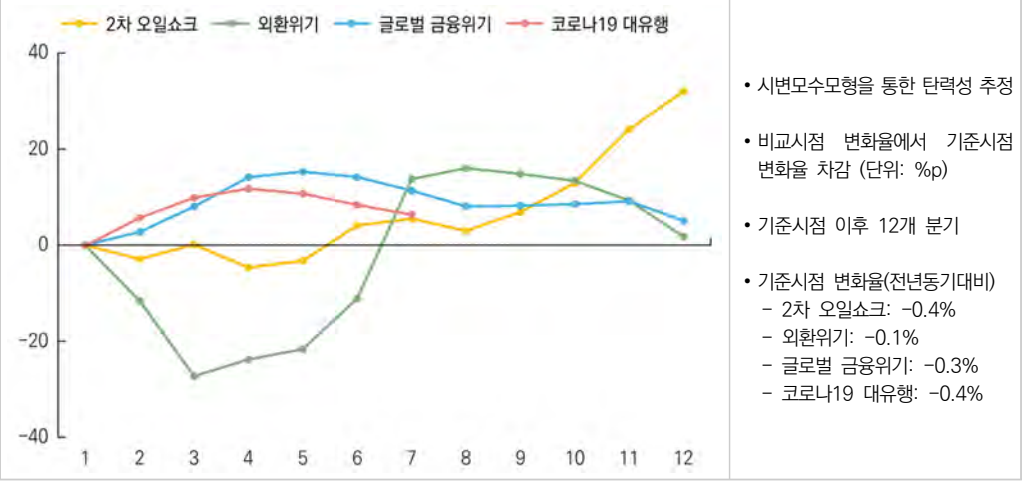
■ **지난 2년간 국내총생산의 정부소비지출 탄력성 관련 변화율이 대유행 시작 직전 시점에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으며 상승폭은 점차 둔화되고 있음**

- 지난 50년 동안의 자료를 대상으로 시변모수모형(time-varying parameter model)을 사용하여 국내총생산의 정부소비지출 탄력성을 추정
- 국내총생산 로그값(y_t)과 정부소비지출 로그값(x_t) 사이의 상관도를 보여주는 모수(β_t)가 시간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정식을 설정

$$y_t = \alpha + \beta_t x_t + \epsilon_t \quad , \quad \epsilon_t \sim N(0, \sigma_\epsilon^2)$$
$$\beta_t = \beta_{t-1} + \xi_t \quad , \quad \xi_t \sim N(0, \sigma_\xi^2) \qquad \text{식(2)}$$

- 상태-공간모형(state-space model)을 설정하고, 칼만필터링(Kalman filtering) 기법을 적용하여 최우추정법(MLE)을 통해 모수들을 추정[5)]

[그림 4] 역성장 시기별 국내총생산의 정부소비지출 탄력성 변화



자료: 한국은행 ECOS 자료를 사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5) 칼만필터링은 과거의 정보와 새로운 관측값을 사용하여, 관측값에 포함된 일시적 잡음(noise)을 제거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성이 높은 신호(signal)를 추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추정기법임.

4. 시사점

2022년 한국경제의 핵심 과제는 물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경제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는 재정·통화·금융 정책조합을 찾는 것임

■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은 재정정책의 적극적 기조를 견지하는 반면,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조정하고, 금융정책의 한시 지원조치를 정상화 하는 것임[6)]**

■ **완화적 재정정책과 긴축적 통화정책을 병행할 예정인 만큼 양 정책의 효과가 상쇄되지 않도록 정교한 정책조합과 정책방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모색**

- 경제 회복 강도, 인플레이션 상방압력 크기, 자산가격 안정화 속도 등에 따라 통화·금융정책의 정상화 속도가 달라질 수 있어 불확실성이 높은 상태
- 재정·통화·금융정책의 정상화 시기와 속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필요

총수요-총공급 균형 관점에서, 총수요의 정상화 속도에 맞추어 총공급의 원활한 증가를 지원함으로써 물가 안정과 경제 정상화의 동시 달성을 도모할 필요

■ **최근 경제 회복 과정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은, 총수요의 회복 속도에 비해 총공급의 증가 속도가 상대적으로 늦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음**

- 대외 불확실성, 경제 회복 추세 등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총수요의 회복과 더불어 총공급의 확대를 가속시키기 위한 노력이 요청됨
- 환율 안정, 대면서비스 공급 정상화, 규제 개선, 정책 예측가능성 제고,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대한 탄력적 대응 등

6) 관계부처합동, 「2022년 경제정책방향 주요 내용」, 2021.12.20.

Ⅱ. 2022년 세계경제 전망과 위험 요인

경제분석국 거시경제분석과 **이진희** 경제분석관(6788-4656)

1. 세계경제 전망

주요 국제기구는 2022년 세계경제가 회복세를 지속하나 성장 속도가 둔화되며 4.1~4.9%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세계경제는 2022년에도 회복을 이어가지만 정책 지원이 축소되고 2021년 기저효과가 반영되어 2021년보다 낮은 4.1~4.9% 성장이 기대됨**

- UBS는 2022년 세계 각국의 공공지출 감소 규모를 세계 GDP의 약 2.5%로 추정
- 2021년 세계경제는 백신 접종이 확대되고 팬데믹에 대한 경제의 회복력이 높아지며 2020년(-3.1%)에 비해 높은 5.5~5.9% 성장을 기록할 전망

[표 1] 2022년 세계 경제전망

경제성장률	2020년	2021년			2022년		
		IMF ('21.10월)	OECD ('21.12월)	WB ('22.1월)	IMF ('21.10월)	OECD ('21.12월)	WB ('22.1월)
세 계[1)]	-3.1	5.9	5.6	5.5	4.9	4.5	4.1
선진국	-4.5	5.2	-	5.0	4.5	-	3.8
- 미국	-3.4	6.0	5.6	5.6	5.2	3.7	3.7
- 유로존	-6.3	5.0	5.2	5.2	4.3	4.3	4.2
- 일본	-4.7	2.4	1.8	1.7	3.2	3.4	2.9
신흥개도국	-2.1	6.4	-	6.3	5.1	-	4.6
- 중국	2.3	8.0	8.1	8.1	5.6	5.1	5.1
- 인도	-7.3	9.5	9.4	8.3	8.5	8.1	8.7
저소득개도국	0.1	3.0	-	-	5.3	-	-

주: 1) IMF, OECD는 PPP환율, 세계은행(WB)는 시장환율 기준
2) ( )안은 전망시점
자료: 각 기관 경제전망 보고서

국가별로는 백신 접종률, 경제정책 지원 규모, 경제여건의 차이에 따라 2022년에도 세계경제는 불균등한 회복을 지속

■ **선진국은 백신을 신속하게 접종하여 대면 경제 활동이 정상화되고 있으며 인프라 및 복지를 위한 투자를 지속하여 2022년에 코로나19 이전 성장 경로를 추월[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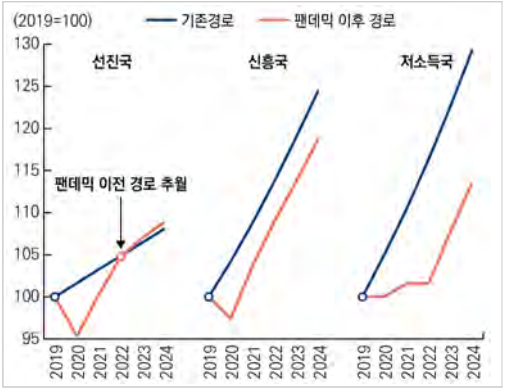
※ 본 보고서는 IMF, OECD, 세계은행, 한국은행의 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함
1) IMF 2021년 10월 전망 기준

- (미국) 인프라 투자 및 소비 등 민간부문의 회복과 고용 개선에 힘입어 3% 후반~5% 초반의 성장을 지속
  * 2021년 11월, 1.2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투자법안 의회 통과
  * 2021년 12월 실업률이 3.9%까지 하락하였고 2022년 중반에는 완전 고용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
- (유로존) EU 경제회복기금 집행, 민간 소비의 증가로 4% 초반의 양호한 회복세 지속
  * 2022년 경제회복기금의 보조금 규모(안): 1,435억 유로(승인기준)
  * 가계저축이 감소하고 민간소비가 활성화되며 성장을 견인할 전망
- (일본) 소비와 투자 등 내수를 중심으로 3% 내외의 성장 전망
  * 가계소득 확충·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역대 최대 규모(55.7조엔, GDP의 10.3%)의 경기부양책이 소비 회복을 촉진할 전망
  * 기후변화 대응과 경제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기 위해 친환경 및 IT 부문에서 투자가 증가할 전망

■ 신흥국은 아시아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지속하나 여타 지역은 높은 관광 의존도, 지정학적 갈등 등에 따라 다른 회복 양상을 보일 전망

- IMF 전망에 따르면, 2022년 신흥국 성장률은 아시아(6.3%), 유럽(3.6%), 중남미(3.0%), 중동 및 중앙아시아(4.1%),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3.8%) 간 큰 차이를 시현
- (중국) 공동부유 및 기후변화 대응 등 중국의 성장전략 전환이 단기적인 성장을 제약하는 가운데 전력난, 방역강화, 미·중 갈등이 지속되어 5%대의 낮은 성장 예상
- (인도) 백신 접종 속도가 높아져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고, 인프라 투자 확대에 힘입어 7~8%대 높은 성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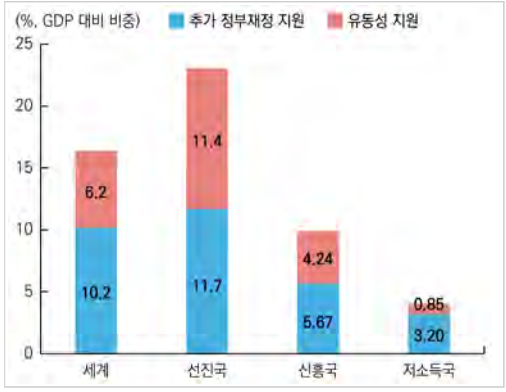
[그림 1] 코로나 전후 성장 경로 추이



주: 기존경로와 팬데믹 이후 경로는 각각 IMF 2020년 1월 전망과 2021년 10월 전망을 기준으로 함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그림 2]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지원 규모



주: 1) 추가 정부재정지원: 정부지출 및 세수 감소분 포함
2) 유동성지원: 자본확충, 대출 및 보증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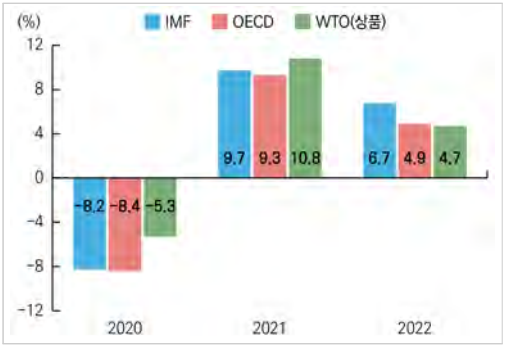
자료: IMF

2022년 세계교역량(상품 및 서비스)은 2021년보다 낮은 5~7% 수준의 증가율을 보이지만 팬데믹 이전(2013~2019년 평균 3.4%[2])보다는 높은 성장 예상

■ 2022년 세계교역은 관광, 운송 등 서비스 교역이 일부 회복 국면에 진입하나 2021년 기저효과와 운송비용 상승 등으로 2021년보다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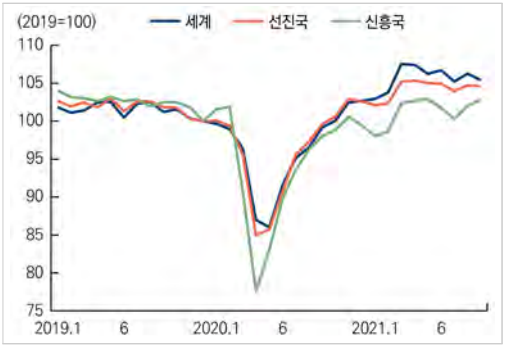
- 국경 봉쇄 및 여행 규제가 완화되어 일부 선진국은 서비스 교역이 회복되지만 신흥시장국과 개발도상국의 서비스 교역은 부진한 상태를 지속
- 2021년 세계교역은 상품 교역의 증가에 힘입어 9%대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냄
- IMF 상품 교역량 전망(%): ('20년)-5.3→('21년)10.8→('22년)4.7
- IMF 상품 및 서비스 교역량 전망(%): ('20년)-8.2→('21년)9.7→('22년)6.7

[그림 3] 주요 국제기구의 교역 성장률 전망



주: IMF, OECD는 상품 및 서비스, WTO는 상품
자료: IMF(2021.10), OECD(2021.12), WTO(2021.10)

[그림 4] 세계 상품 교역 추이



주: 수입물량 기준
자료: CPB

글로벌 인플레이션 상승세는 2022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하반기에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

■ IMF는 2021년에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고점(4.3%)을 기록하고 2022년(3.8%) 중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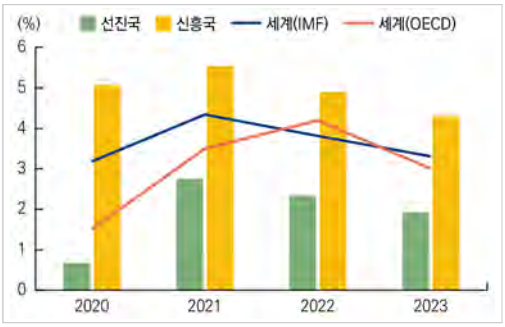
- 2021년 선진국의 인플레이션은 2.8%로 2008년(3.4%)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 후 2022년과 2023년에 각각 2.3%와 1.9%로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
- 신흥국의 인플레이션도 2021년에 5.5%까지 상승한 후 2022년 4.9%, 2023년 4.3%로 완만하게 하락할 전망

2) OECD 2021년 12월 Economic Outlook 기준

■ **OECD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2021년 말에 정점을 기록하고 이후 낮아질 것으로 예상**

- 2022~2023년 중 수요 정상화, 생산 여력 증대, 근로자의 노동시장 복귀 등으로 공급측 제약이 해소되며 물가 상승압력이 낮아짐

[그림 5] 글로벌 인플레이션 전망



주: 선진국과 신흥국은 IMF 기준
자료: IMF, OECD

[그림 6] 주요국 인플레이션 추이

자료: Bloomberg

2. 2022년 세계경제의 주요 위험 요인

가. 백신 불균형과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

저소득 국가의 낮은 백신 접종률은 저소득국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의 회복을 제약

■ **WHO(국제보건기구)는 저소득국가의 낮은 접종률이 변이에 취약한 환경을 만들어 코로나 종식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경고(2021.8)**

- 변이 바이러스 확산은 경제 봉쇄 조치 강화로 이어져 세계경제 회복을 지연시키는 요인
- 코로나19 주요 변이 바이러스는 영국에서 최초로 확인된 알파 변이를 제외하고 남아공(베타), 브라질(감마), 인도(델타), 페루(람다), 보츠와나(오미크론) 등지에서 발생

■ **저소득국 등 특정 경제권의 부진은 분업화된 글로벌 공급망을 매개로 전 세계 생산 능력과 가격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NBER(2021)[3]에 따르면 2021년 백신의 불공평한 분배로 인해 발생하는 전 세계 손실의 13~49%를 선진국이 부담하는 것으로 추정

3) Çakmaklı, C., Demiralp, S., Kalemli-Özcan, Ş., Yeşiltaş, S., & Yıldırım, M. A. (2021). The economic case for global vaccinations: An epidemiological model with international production networks (No. w28395).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나. 글로벌 공급 차질과 인플레이션 가속화

코로나19에 대응한 경제 활동 제약과 방역조치 강화의 영향으로 글로벌 공급망은 불안정한 모습을 지속

■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특정 지역의 방역 강화 및 경제 봉쇄 조치는 공장 생산 및 물류 차질을 초래하여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 전 세계로 확산됨**

- 일례로 2020년 초 자동차 부품 기업이 밀집한 중국 우한[4]이 봉쇄되었을 때 일본, 미국, 유럽, 한국의 자동차 생산 공장 가동이 중단된 바 있음

■ **2021년 들어 경제가 회복국면에 진입한 이후에는 생산 및 물류시스템이 급격한 수요증가를 뒷받침하지 못하며 수급 불균형 발생**

- 생산 측면에서는 감염우려로 근로자의 노동시장 복귀가 지연되고 원자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물류 측면에서는 선박 부족에 운수·창고업 인력난이 더해져 운송에 어려움이 발생

글로벌 공급 차질과 세계 경제 회복 과정에서 빠른 수요확대로 글로벌 인플레이션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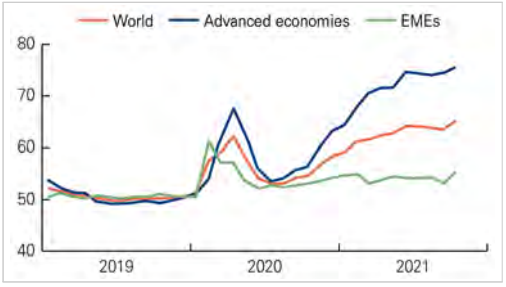
■ **비대면 서비스 수요가 내구재 소비 수요로 전환되며 재화 부족 현상이 심화**

■ **세계 경제 활동이 재개되면서 원유 등 원자재 수요가 증대하였으나 공급 부족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

■ **이에 따라 2021년 하반기 이후 주요국의 소비자 및 생산자 물가는 역사적으로 높은 상승세를 지속**

- 2021년 12월 미국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7% 상승하여 1982년 6월(7.1%) 이후 최고치 경신
- 2021년 11월 중국 생산자물가는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인 전년동월대비 13.5% 상승

[그림 7] 제조업 운송 시간 지연 추이



주: 100에서 운송시간이 동일하거나 단축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을 차감한 수치
자료: OECD

[그림 8] 국제유가 및 상품 가격 추이

자료: Bloomberg

4) GM, 혼다, PSA 그룹, 현대·기아차 등 글로벌 자동차 생산 라인과 자동차 부품의 중심지

다. 통화 정책 긴축 속도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고자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를 높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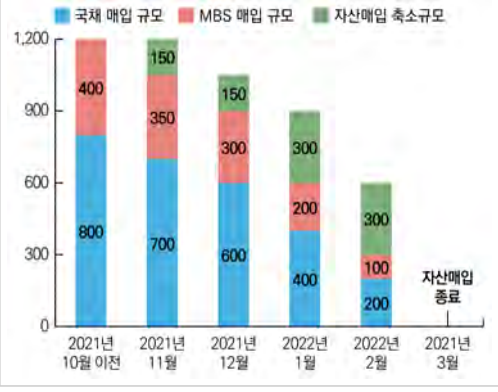
■ **미 연준은 2021년 12월 FOMC에서 테이퍼링(자산매입축소), 금리인상, 양적 긴축(Quantitative Tightening)[5]을 논의**

- 2022년 1월부터 자산순매입 축소 규모를 기존(150억 달러)보다 2배 많은 300억 달러로 확대하여 테이퍼링 종료시점을 종전 6월에서 3월로 앞당김
- 점도표상 2022년 금리 수준은 0.75~1.00%로 나타나 연중 3차례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음
- 2022년 1월 11일에 개최된 청문회에서 Powell 의장은 2022년 하반기에 대차대조표를 축소하는 양적 긴축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 양적 긴축은 국채시장 수급에 영향을 주어 장기금리를 높이는데, 1월 11일 미 연준 Powell 의장이 긴축을 언급한 후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연초(1.5%)보다 30bp 상승한 1.8%까지 상승

■ **영란은행(BOE)은 2021년 12월 기준금리를 0.1%에서 0.25%로 15bp인상**

[그림 9] 미 연준 자산매입 축소 계획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그림 10] 코로나 19 이후 미 연준 통화정책 전개

2020년 3월 3일	기준금리 0.5p 인하(1.00~1.25%)
2020년 3월 15일	기준금리 1.0p 인하(0.00~0.25%)
2020년 3월 23일	국채 및 MBS 무제한 양적완화 발표
2020년 8월 27일	평균물가안정 목표제 도입(장기평균 2%)
2021년 4월 FOMC	테이퍼링 논의 시작
2021년 7월 FOMC	연내 테이퍼링 시사
2021년 11월 FOMC	테이퍼링 시작 발표
2021년 12월 FOMC	2022년 1월부터 테이퍼링 월 300억 달러 점도표상 2022년 3회 금리인상 시사 대차대조표 축소 논의 시작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5) 양적 긴축은 양적 완화(Qauntitative Easing)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국채 및 MBS 등 중앙은행이 보유 중인 자산을 축소하는 조치를 말함

미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한 자금유출 등으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일부 취약 신흥국의 경우는 경제여건과 무관하게 통화가치 하락과 자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정책금리를 인상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

- IMF는 달러화 가치가 높을수록 신흥국으로의 자금흐름이 약화되기 때문에 신흥국에게 미국 긴축정책에 대비해 자본유출과 통화가치 하락에 대비할 것을 권고

■ **2013년 5월 버냉키 의장이 자산매입 규모를 축소할 것(tapering)이라는 계획을 발표한 직후 취약 신흥국에서 긴축 발작(Taper Tantrum)이 발생**

-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터키,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취약 신흥국 5개국(fragile 5)에서 대규모 자본유출이 발생

■ **신흥국은 긴축 발작 시기뿐만 아니라 국제금융시장 충격이 발생할 때마다 주가와 통화가치가 하락하고 국채 가산금리(EMBI+)가 상승하는 등 큰 변동성을 보임**

[그림 11] 신흥국 주가 및 통화가치 추이

자료: Bloomberg

[그림 12] 미국채 금리 및 신흥국 국채 가산금리

자료: Bloomberg

라. 중국 경제성장률 하락

중국경제는 고강도 방역정책 고수, 기업규제 강화, 미·중 갈등 등으로 성장 둔화 위험에 직면

■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고강도 방역정책(제로 코로나)은 제조업의 생산 차질을 가져오고 소비회복을 제약**

- 2021년 12월 22일 시안을 시작으로 2022년에는 허난성 위저우, 안양시에 전면 봉쇄 조치가 이어짐

■ **중국 정부는 공동부유(共同富裕)의 목표를 제시하고 부동산업을 비롯해 플랫폼기업, 교육, 게임 산업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분배를 개선하고자 함**

- 2020년 8월 레버리지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단속을 강화하였고 부동산 개발업체인 헝다가 파산하는 등 부동산업이 위축되는 모습
- 부동산업뿐만 아니라 텐센트(2021년 3월)와 알리바바(4월)에 반독점 위반 과징금을 부과하고 메이퇀과 디디추싱의 경영진을 소환(5월)해 예약면담(約談)[6]을 실시하는 등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

■ **미·중 갈등 양상이 무역에서 첨단기술 갈등으로 확대되었으며, 미국은 공급망 구축 4대 품목(반도체, 배터리, 핵심 광물, 의약품)을 설정하여 중국을 견제**

- 특히 양국은 반도체 주도권을 둘러싸고 첨예한 갈등을 보이고 있는데 미국은 반도체 핵심기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며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무력화시키려는 전략을 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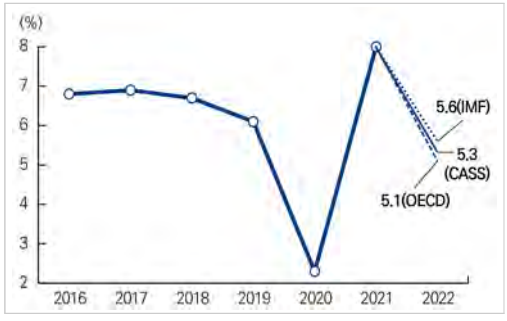
■ **이에 따라 2022년 중국경제성장률은 IMF 5.6%, OECD 5.1% 등으로 2021년 8.0% 대비 큰 폭으로 둔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중국사회과학원(CASS)은 중국경제가 코로나19 불확실성, 공급측면의 구조적 개혁, 부동산 기업부채 등으로 5.3% 성장할 것으로 전망**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의 가파른 성장률 하락은 대중국 무역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주변국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

■ **OECD(2021)는 중국 내수성장률이 향후 2년간 연 2%p 하락 시 세계경제성장률은 연평균 0.4%p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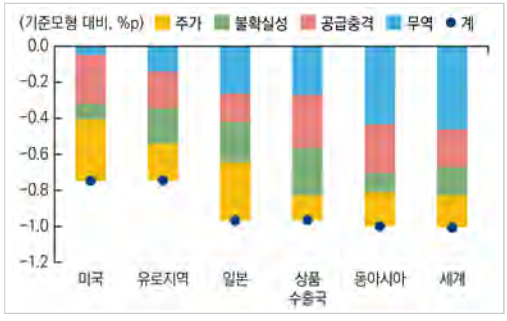
- 또한 중국의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인한 공급충격, 글로벌 주가 하락, 불확실성 증대 등의 직간접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경우 세계경제성장률 하락폭은 연평균 약 1.0%p로 확대됨

[그림 13]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



자료: IMF, CASS, OECD

[그림 14] 중국 내수성장률 하락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자료: OECD

6) 중국 당국이 문제의 소지가 있는 기업과 기관의 책임자들을 불러놓고 상황 설명을 듣고 해명을 요구하는 행정 행위

3. 시사점

2022년 세계 경제 환경 변화와 위험요인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우리 경제의 정상화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

- 코로나 변이(오미크론)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 확산이 대내외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를 고조시키는 상황에서 국내 경제의 회복세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방역정책과 경제 활성화 정책 간의 균형있는 접근이 필요

- 글로벌 공급망 병목 현상이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하여 국내 공급 여건을 점검하는 한편 국제 상품 가격 상승과 내수회복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을 관리하여 기대인플레이션을 안정적으로 유지

-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고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 및 기업 부채의 부실화 가능성을 사전에 관리할 필요

- 중국 성장률 하락은 중국 정부의 위기 관리능력과 세계경제 회복세 지속 등을 고려할 때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대중국 수출의존도 개선과 공급망 다변화 전략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필요

III. 미·중 무역분쟁의 현황 및 향후 영향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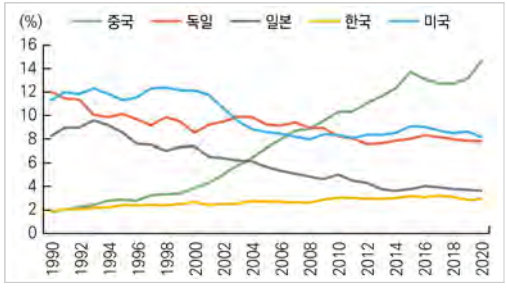
경제분석국 산업자원분석과 **김용균** 경제분석관(6788-4791)

1. 미·중 무역분쟁 전개과정 및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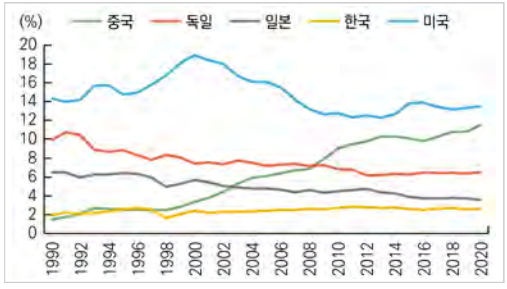
미국과 중국은 세계 교역 시장에서 가장 큰 두 교역국으로 이 두 국가의 교역 정책은 세계 교역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

■ **2020년 미국과 중국의 세계 교역 시장에서의 교역 비중은 각각 8.13% 와 14.7%로 두 국가의 교역량이 전 세계 교역량의 23%를 차지함**

[그림 1] 주요 국가별 세계 수출시장 비중



[그림 2] 주요 국가별 세계 수입시장 비중



출처: UNCTAD 자료를 기초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2018년 7월 미국이 대중국 수입품목에 대하여 추가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미국과 중국 간 무역분쟁이 본격적으로 촉발됨

■ **2017년 8월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무역법 301조에 의거하여 중국의 기술이전 및 지적재산권 관련법, 제도, 관행으로 인한 미국의 피해 여부 조사를 시작**

■ **2018년 3월 발표된 301조 조사 결과[1]를 바탕으로 2018년 7월 중국산 818개 수입품목에 대하여 340억 달러의 추가 관세를 부과**

※ 본 보고서는 USTR, UNDP,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 한국은행, 산업은행,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무역협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함

1) Findings of the Investigation into China's Acts, Policies, and Practices Related to Technology Transfer, Intellectual Property, and Innovation Under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 2018년 3월 22일

■ 중국이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에 대응하여 마찬가지로 미국산 545개 수입품목에 대하여 340억 달러의 추가 관세를 보복적으로 부과함으로 본격적으로 미·중 무역분쟁이 시작됨

[표 1] 미·중 무역분쟁 전개 과정

발효 시점	미국의 대중 관세 부과	중국의 대미 과세 부과
2018.7	• 818개 품목, 340억 달러, • 25% 추가 관세 부과	• 545개 품목, 340억 달러, • 25% 추가 관세 부과
2018.8	• 279개 품목, 160억 달러, • 25% 추가 관세 부과	• 333개 품목, 160억 달러, • 25% 추가 관세 부과
2018.9	• 5,745개 품목, 2,000억 달러, • 10% 추가 관세 부과	• 5,140개 품목, 534억 달러, • 5%, 10% 추가 관세 부과
2019.5	• 5,745개 품목, • 25%로 관세 인상 발표	-
2019.6	-	• 5,140개 품목, • 5%, 10%, 20%, 25%로 관세 인상 발표
2019.9	• 3,250개 품목, 1,120억 달러, • 15% 추가 관세 부과 • 542개 품목, 1,600억 달러, • 15% 관세 부과 예고	• 1,717개 품목, 255억 달러, • 5%, 10% 차등관세

자료: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자료를 기초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2020년 1월 미국과 중국이 미·중 경제무역협정[2]에 서명함으로써 악화일로로 치닫던 미·중 무역분쟁은 소강 국면

■ 2020년 1월 15일에 미국과 중국이 소위 1단계 무역협정이라 불리는 미·중 경제무역협정에 서명하였고, 협정은 2020년 2월 14일부터 발효

■ 1단계 무역 합의안의 핵심 의제는 농축산물 등 대미 수입 확대, 환율 조작 중단, 금융서비스 시장개방,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와 기술이전 강요 금지로 구성

- 미국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 목적

■ 양국은 2020년과 2021년 2년간 중국이 미국산 상품 및 서비스 수입을 2017년 수준 대비 약 2,000억 달러 확대하는 것에 합의

- 2017년 수입 규모를 기준으로 2020년에 767억 달러, 2021년에 1,233억 달러로 2021년 12월까지 2년간 2,000억 달러 규모의 상품 및 서비스를 미국으로부터 '추가' 수입하기로 합의
- 미국은 약 1,600억 달러 규모의 대중국 수입품에 부과하기로 예정됐던 15%의 관세 부과 계획을 철회하고, 1,120억 달러 규모 수입품에 부과하던 관세를 15%에서 7.5%로 인하함

2)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표 2] 미·중 경제무역협정 합의 내용

(단위: 억 달러)

품목		2020년 추가수입액	2021년 추가수입액	2년 총 추가수입액
상품 수입	공산품 (산업기계, 전기장비, 의약품, 항공기, 수송기계 등)	329	448	777
	농산품 (대두, 육류, 곡류, 면, 수산물, 기타)	125	195	320
	에너지 (LNG, 원유, 정유제품, 석탄)	185	339	524
서비스 수입	서비스 (지적재산권이용료, 여행·관광, 금융·보험, 클라우드 등)	128	251	379
합 계		767	1,233	2,000

자료: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자료를 기초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2021년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 바이든 행정부 출범

■ **2021년 1월 20일 바이든 행정부가 새롭게 출범하였으나 일단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무역정책기조를 유지**

2.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무역정책기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무역정책은 중국에 부과하였던 추가 관세를 유지하고 전략적 경쟁자로서 중국을 견제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승계하는 모습

■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이후 9개월만에 처음 대중국 무역정책 방향성을 밝힘**

-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이후 중국과의 무역분쟁을 격화시키지 않도록 신중한 모습을 보인 채 패권경쟁을 지속

■ **2021년 10월 4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 캐서린 타이 대표는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하며 무역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하여 중국과의 적극적인 논의에 임할 것임을 밝힘**

- 경제 및 무역 정책에 있어 미국의 자국 내 투자 확대
- 중국의 미·중 1단계 무역협정 합의 이행[3]을 촉구
- 표적관세 배제 프로세스(TTEP) 재도입
- 중국의 정부 중심적이며 비시장적 무역정책들에 대한 우려 표명
- 중국견제를 위한 동맹국 공조

3) Why Biden will try to enforce Trump's phase one trade deal with China,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 2021년 12월 15일

■ **미국은 자국 첨단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국 첨단산업의 성장을 견제하려는 모습 보임**

- 백악관은 「공급망 100일 조사 보고서」를 발간하고 반도체 공급망 리스크 분석을 통해 미국 내 반도체 생산역량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
- 미 상원에서는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증진과 R&D 지원에 5년 동안 520억 달러를 편성한 「미국혁신경쟁법(U.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을 통과시킴
- 미국 반도체 제조 산업 기반의 재건 및 미래 경쟁력 우위 확보를 위한 대규모 연방자금 투여를 골자로 하는 「반도체지원법(CHIPS for America Act)」을 입법

■ **2021년 10월 22일 미국 무역대표부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진행된 무역정책검토(Trade Policy Review)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면서 중국의 12가지 비시장적 관행을 지적**

[표 3] 미국 무역대표부의 WTO 무역정책검토(TPR) 성명 내용

항목	내용
TPR 12개 지적 사항	1. 대외 경쟁에 있어 경쟁의 장을 왜곡하고 세계무역에 대한 시스템적 문제를 일으키는 산업 정책 2. 특히 철강 및 알루미늄 부문에서 심각하고 지속적인 초과 생산 3. 대외경쟁의 불공정한 경쟁을 부추기는 공기업 우대 4. 강제적인 기술 이전 5. 지식재산권의 부적절한 집행 6. 주요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 7. 부적절한 규제 투명성 8. 보호무역주의를 위해 설계된 지나치게 광범위한 사이버 보안 체제 9. 국가 간 데이터 제한 및 데이터 지역화(data localization) 요건 10. 중국의 몇몇 분야에서의 강제 노동력 사용 11. 중국의 독점금지법을 산업 정책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12. 여러 문제적 '위생 및 식물위생(SPS)' 조치
후속 질문	중국 산업에 대한 대규모 금융 지원을 위한 수단으로 정부 지도 자금(government guidance funds)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행위, 중국제조2025 계획, 국영기업, 부가가치세, 수출리베이트 및 관세, 외국인투자 제한리스트(FINL), 서비스 시장 접근 등

자료: 미국 무역대표부(USTR)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3. 미·중 무역분쟁의 영향 및 한국의 대응과제

미국과 중국 양국이 세계 교역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미·중 무역분쟁이 글로벌가치사슬(GVC)*에 미치는 영향 또한 매우 큼

■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분쟁은 GVC를 교란하여 국제 교역을 위축시킴**

- 2021년 6월 발표된 유엔개발계획(UNDP)의 보고서[4]에 의하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분쟁은 세계 교역시장에서 3~5년의 글로벌 가치 사슬 성장을 후퇴시킨 것으로 평가하였음

■ **미국의 대중국 추가 관세부과 이후 미국 수입시장에서의 공급망 재편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 미국은 대중 무역정책에 있어 대중국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자 하고 있으며, 특히 기술패권의 경쟁국으로서 중국의 첨단 제품을 견제하고자 함
- 미국의 대중국 제재 이전인 2018년 상반기에 비하여 2020년 상반기 중국산 제품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4.04%p 하락한 반면 베트남, 대만, 한국산 제품은 각각 1.30%p, 1.04%p, 0.87%p 상승[5)]

■ **한국은 전체 무역 중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61.8%[6)]로 GVC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교역 구조를 갖고 있음**

* 글로벌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GVC)이란 기획에서부터 소비자에게 이르기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중간재 및 서비스가 여러 국가나 지역에 걸쳐 투입되어 최종재화를 완성하는 분업체계를 일컬음

미국의 대중국 수입 제재로 인하여 한국의 대미 수출은 그 반사이익을 누렸지만, 그 크기는 크지 않음

■ **미국의 대중국 수입은 특정 품목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들 품목은 미국이 한국에서 수입하는 제품들과 주로 경쟁하는 품목들임[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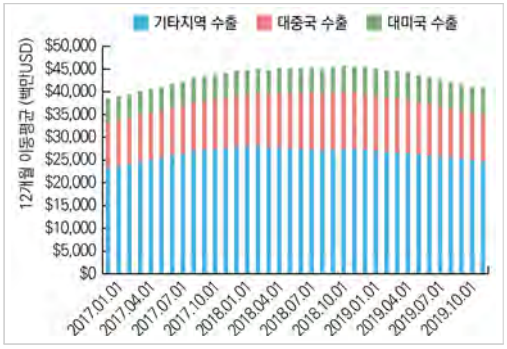
- 미국의 대중국 제조업 수입 전체 품목 중 한국의 점유율은 0.9% 상승하였고, 수입 제재 제조업 품목 중 점유율에서는 1.0% 상승(무역분쟁 시작 전 18개월과 시작 이후 18개월 비교)
- 미국의 대중국 수입 제재 전체 제품 품목에 있어서 중국의 시장 점유율은 4.12%p 하락한 반면 한국은 0.57%p 상승(무역분쟁 시작 전 18개월과 시작 이후 18개월 비교)

■ **한국의 대미 수출은 미국의 대중국 추가 관세 부과 이후 증가한 반면 대중 수출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그림 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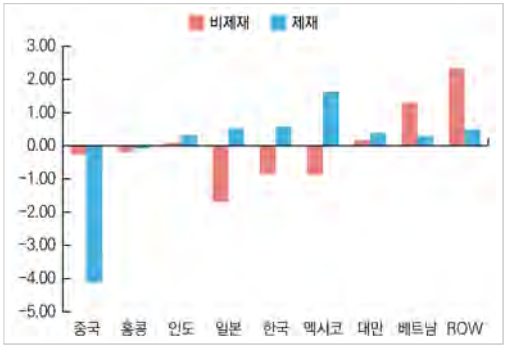
■ **미국의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는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해 한국 수출업체에게 긍정적 효과가 보이긴 하지만 그 크기는 크지 않으며 오히려 미국으로 최종재를 수출하는 중국으로의 중간재 수출이 줄어들어 향후 부정적 효과가 더 클 수 있다고 분석[8)]**

4) The Post Covid-19 Future for Global Value Chain, Policy Brief, UNDP, 2021년 6월 17일
5) 미국의 대중국 무역제재(관세부과)이후 미국 내 수입시장 점유율 변화와 시사점, Trade Focus, 한국무역협회, 2020년 10월 21일
6)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계산
7) Collateral Benefits? South Korean Exports to the United States and the US-China Trade War, Policy Brief,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 2021년 7월 27일
8) Collateral Benefits? South Korean Exports to the United States and the US-China Trade War, Policy Brief,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 2021년 7월 27일

[그림 3] 한국의 제조업 수출 2017~2019



[그림 4] 미국의 국가별 수입 시장 점유율 변화



자료: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재작성

경제성장에 있어 수출의 비중이 큰 한국은 최대 수출대상국인 중국이 직면한 다양한 상황을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소비재보다는 중간재 위주로 이루어진다는 구조적 특징을 가짐**

- 2021년 한국의 대중 수출 중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79.6%임[9)]

■ **GVC 체계의 재편이 이루어지면서 중국의 세계의 생산기지 역할이 줄어들고 중국 내 자급률이 높아지고 있음**

- '쌍순환 전략'과 '중국제조 2025' 등 중국은 자국 제품의 내수시장 개발 정책을 펴고 있음

■ **중국의 자국 산업 육성 전략과 중국 내 산업의 고도화가 맞물려 한국의 대중국 수출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으며 수출 품목 또한 중국에 비해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첨단 제품 위주로 변화하고 있음[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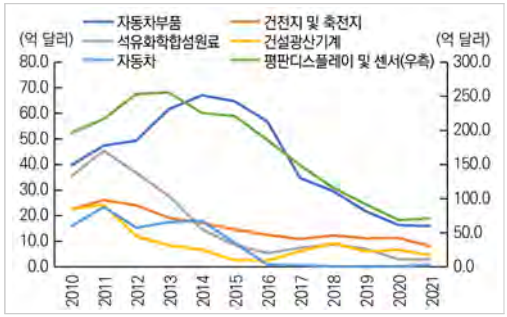
- 디스플레이, 자동차부품, 건설기계는 중국의 자국 산업으로의 수입 대체율이 상승하고, 건전지 및 축전지(2차전지 등)는 중국의 자국 산업에 대한 지원으로 인하여 한국의 대중 수출이 감소
-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 정밀화학원료 등 중국에 비해 기술적 우위를 갖는 품목에 있어서는 한국의 대중 수출이 증가

■ **중국의 최근 실물경기지표가 둔화되고 헝다그룹 파산 위기, 전력난, 기업규제 강화 등의 중국 경제에 대한 다양한 하방압력이 부각되며 한국의 교역경로의 다변화 필요성이 대두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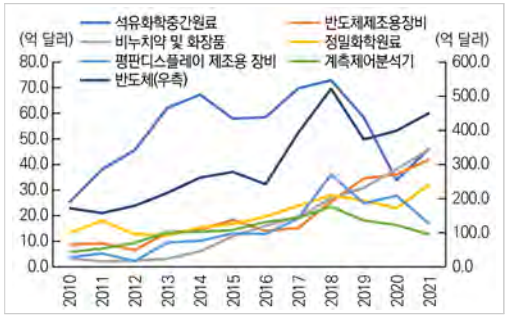
- 중국의 실질 GDP 성장률(전년동기대비): 2021.1/4분기 18.3% → 2/4분기 7.9% → 3/4분기 4.9%[11)]

9)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계산
10)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 특징 변화, 이슈브리프, KDB미래전략연구소, 2020년 2월 17일
11) 대중 수출의 구조적 특징과 시사점, BOK 이슈노트,, 한국은행, 2021년 11월 4일

[그림 5] 대중 수출 감소 품목



[그림 6] 대중 수출 증가 품목



자료: 무역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국제 교역시장의 불안정성에 대응하고 한국 경제의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필요가 있음

■ **GVC 체계의 교란, 타국의 급변하는 무역정책 등 대외경제 불안정성에 대한 회복력(resilience)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교역시장의 변동성, 통상정책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소비재[12]의 수출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중국에 대한 교역의존도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신남방정책과 인도 시장 개척 등 새로운 시장 개발에 대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함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2개의 거대 무역 협정은 국가 간 무역을 촉진할 것으로 평가됨**

- CPTPP 참여국들은 12년간의 GVC 성장에 상응하는 효과를 누리며, RCEP 참여국들은 약 5년간의 GVC 성장에 상응하는 효과를 볼 것으로 추정[13]

■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캐서린 타이는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를 통하여 전략적으로 중국에 대응해 나갈 것을 시사[14]**

- 경제번영네트워크(EPN), 쿼드+(Quad+) 등을 통해서도 우호국 간 동맹을 견고히 하여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고 있음

■ **경쟁국들에 대한 기술우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에 대한 지속적이며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가 필요함**

12) 세계 소비재시장 잠재력 분석 및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 현황, Trade Focus, 한국무역협회, 2019년 10월 23일
13) The Post Covid-19 Future for Global Value Chain, Policy Brief, UNDP, 2021년 6월 17일
14) USMCA helps North America compete with China, Tai says, POLITICO, 2021년 7월 7일

Ⅳ. 장래 인구변화를 반영한 노동공급규모 전망

경제분석국 인구전략분석과 **유근식** 경제분석관(6788-4753)

1. 장래 인구변화 개요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2020~2070년)는 총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의 인구변화가 기존 추계보다 빠른 속도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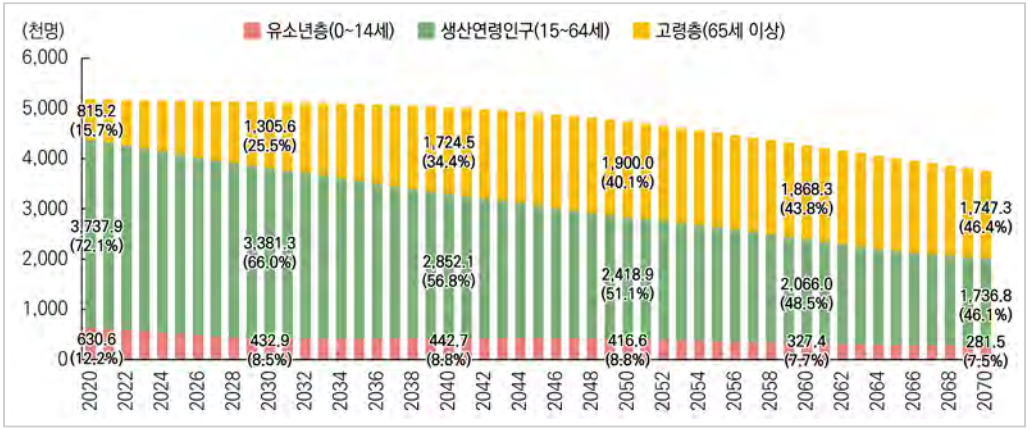
■ **통계청은 2021년 12월 9일, 2020~2070년 기간에 대한 장래인구추계를 발표하였고, 2021년부터 총인구 감소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

- 2021년 장래인구추계의 총인구 감소 시기는 2019년 특별추계에서 전망한 2029년보다 8년 빨라짐
- 총 인구 규모는 2021년부터 점차 감소하여 2050년에는 2020년의 91.4%(약 4,735.9만 명), 2070년에는 72.6%(약 3,765.6만 명) 수준이 될 것으로 추계

■ **더불어 빠른 고령화로 인해 2070년에는 고령인구의 비중이 생산연령인구 비중을 능가할 것으로 전망**

-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2020년 생산연령인구의 비중은 72.1%이지만, 2050년 51.1%, 2070년 46.1%로 감소
-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0년 15.7%에서 빠르게 증가하여 2050년 40.1%, 2070년에 46.4%에 달할 것으로 전망

[그림 1]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0~2070)의 인구변화 전망(중위추계)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0~2070년)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0~2070년), 경제활동인구조사 및 고용 관련 보고서를 참조하여 작성

인구변화는 노동투입의 변화를 통해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장래인구 추계를 바탕으로 노동공급규모를 전망해볼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2021)[1], Maestas et al.(2016)[2] 등 다수의 연구에서 총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노동투입의 변화를 통해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시**

■ **따라서,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0~2070년)에서 제시된 인구전망을 바탕으로 장래 노동공급규모를 예측해 보고자 함**

- 본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노동공급규모 전망은 다양한 가정을 바탕으로 하며 노동의 수요 측면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지만, 정책적으로 유용한 기준추계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

2. 노동공급규모 추정 방법론

성별·연령별 노동공급 패턴이 현재 수준으로 고정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인구변화로 인한 노동공급규모를 추정한 이철희·이지은(2017)[3]의 방법론을 활용하여 2021~2050년 동안의 노동공급규모를 추정

■ **장래 노동공급규모 추정을 위한 구체적인 수식은 다음과 같음**

- t기의 총 노동공급량은 성(j)별·연령(a)별 생산성(λ: 노동자의 시간당 평균 재화·서비스 생산), 노동시간(H), 취업률(E: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자 비율), 경제활동참가율(P), 인구 수(N)에 의해 결정

$$L_t = \sum_j \sum_a \lambda_{jat} H_{jat} E_{jat} P_{jat} N_{jat} \qquad (1)$$

- 경제활동참가율 및 취업률, 노동시간, 생산성 등은 시간에 따라 변화할 수 있지만, 해당변수들의 초기상태가 변화하지 않는다는 가정을 통해 식 (1)을 다음과 같이 수정

$$\widetilde{L_t} = \sum_j \sum_a \lambda_{ja0} H_{ja0} E_{ja0} P_{ja0} N_{jat} \qquad (2)$$

- 위의 수식을 통해, 다른 요소들이 고정된 상태에서 인구변화에 따른 노동공급량을 도출할 수 있음

1) 국회예산정책처. (2021).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OECD국을 중심으로–. 국회예산정책처 기획보고서
2) Maestas, N., Mullen, K. J., & Powell, D. (2016). The effect of population aging on economic growth, the labor force and productivity (No. w22452).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3) 이철희, 이지은. (2017). 인구고령화가 노동수급에 미치는 영향. BOK 경제연구. 한국은행.

■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망의 오차가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노동공급규모 전망 기간은 2021~2050년으로 한정하였음**

- 전망 기간 동안의 생산연령인구 대부분은 이미 태어나 있기 때문에 현재 추정치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해당 기간 동안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변화는 비교적 정확하게 예상할 수 있음(이철희·이지은, 2017)

■ **인구 외 노동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의 초기값은 2021년의 값을 사용하였으며, 생산성은 시기, 성, 연령에 따른 정확한 추정치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전망에서 고려하지 않았음**

- 노동공급규모 전망을 위해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통해 구한 2021년의 성별·연령별(5세별) 경제활동참가율과 취업률, 노동시간 등을 활용하였으며 구체적인 수치는 [표 1]에 제시

[표 1] 2021년 성별, 연령별 고용지표

(단위: %, 시간)

	남성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취업률	주당 평균 노동시간	경제활동참가율	취업률	주당 평균 노동시간
15~19세	6.6	90.2	26.1	9.5	92.0	21.0
20~24세	31.4	90.4	35.0	50.6	92.3	30.9
25~29세	71.5	91.6	41.5	74.9	93.9	38.6
30~34세	89.1	96.4	42.7	68.8	95.7	36.7
35~39세	92.2	97.6	43.2	59.3	97.0	36.0
40~44세	92.6	97.7	43.3	63.4	97.3	36.2
45~49세	91.8	97.8	43.2	68.1	97.6	37.9
50~54세	89.4	97.9	43.0	68.7	97.5	38.8
55~59세	86.9	97.0	41.3	63.3	97.3	38.1
60~64세	72.7	96.0	40.3	51.0	96.8	36.9
65~69세	62.8	96.5	39.0	39.8	97.4	31.8
70~74세	44.7	96.6	35.2	33.4	95.4	25.1
75세 이상	30.5	96.6	27.0	18.7	93.6	18.4

주: 1.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제시되는 인구수는 현역군인, 사회복무요원, 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 의무경찰 등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고용지표 값을 도출함에 있어 성별·연령별 경제활동인구 및 취업자 수는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활용하되, 인구수(분모)는 장래인구추계의 수치를 이용하였음.

2. 취업률은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자 비율을 나타내며, 노동시간은 주당 평균 노동시간을 의미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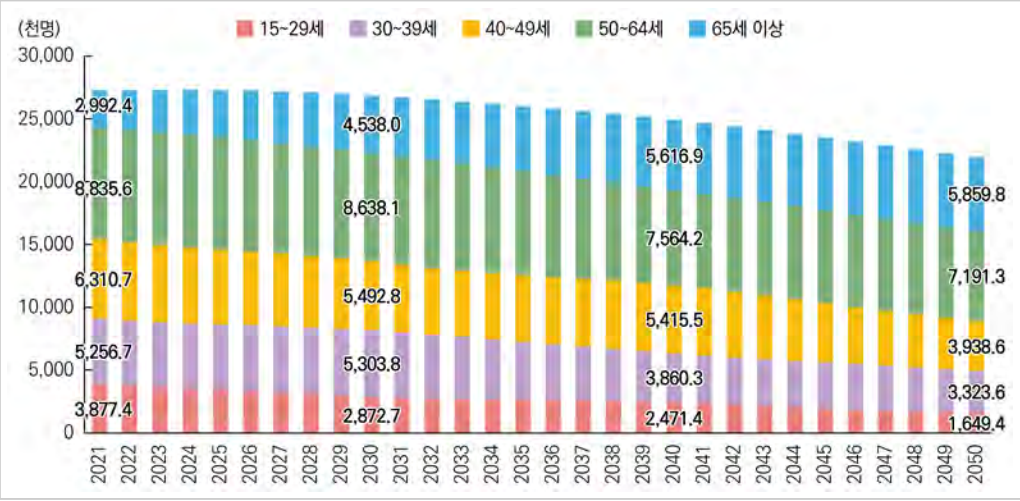
3. 장래 노동공급규모 전망

(기준 전망) 2021년과 같은 성별·연령별 노동공급 패턴이 유지된다면, 2050년의 취업자 수는 현재(2021년)의 80.5%, 총 노동시간은 76.8%가 될 것으로 예상

■ **2021년 기준 2727.3만 명인 취업자 수는 2030년까지 현재의 98.4% 수준을 유지하지만 점차 감소세가 확대되며 2040년에는 현재의 91.4%, 2050년에는 80.5%로 감소**

- 2050년의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는 현재의 42.5% 수준으로 감소하며, 30~64세 취업자는 70.8% 수준으로 감소
- 반면, 65세 이상 취업자 수는 현재의 195.8% 수준으로 증가하여 전체 취업자 중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11.0%에서 2050년 26.7%로 상승

[그림 2] 2021~2050년 취업자 수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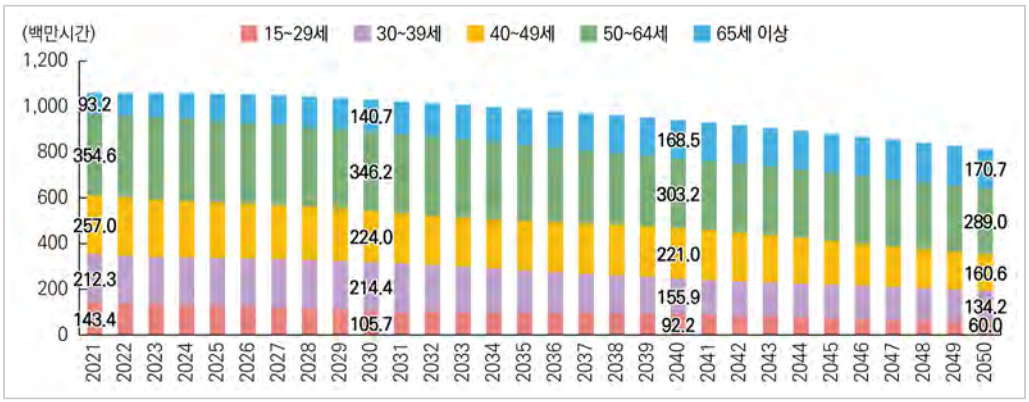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0~2070년) 및 경제활동인구조사(2021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추정

■ **생산 활동에 투입되는 주당 총 노동시간은 2021년 기준 10.6억 시간이지만 2030년에 현재의 97.2% 수준으로 감소한 후 점차 감소세가 빨라져 2040년에는 현재의 88.7%, 2050년에는 76.8%로 감소**

- 2050년의 청년층(15~29세) 총 노동시간은 현재의 41.8%, 30~64세 총 노동시간은 70.9% 수준으로 감소
- 65세 이상 취업자의 노동시간은 현재의 183.2%로 증가
- 평균 노동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은 고령층 취업자의 증가로, 총 노동시간은 취업자보다 빠르게 감소

[그림 3] 2021~2050년 주당 총 노동시간 전망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0~2070년) 및 경제활동인구조사(2021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추정

추정된 노동공급규모 전망치는 2017년에 수행된 연구 대비 크게 감소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예상보다 노동공급의 감소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을 제시

■ 2021년의 노동공급패턴과 최신 장래인구추계를 통해 추정한 장래 노동공급규모는 동일한 방법론을 통해 수행된 선행연구 대비 낮은 수준

- 이철희·이지은(2017)에서 2016년의 노동공급 패턴과 당시의 장래인구추계[4]를 바탕으로 추정한 2050년의 취업자 수 및 주당 총 노동시간 규모는 각각 2,367.3만 명과 9.6억 시간
- 반면, 2021년 가용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정한 2050년의 취업자 수 및 노동시간은 각각 2,196.3만 명과 8.1억 시간으로, 선행연구의 전망보다 취업자는 171.1만 명, 노동시간은 1.5억 시간 감소

■ 이러한 차이는 장래 노동공급의 감소 규모가 기존의 예상보다 클 수 있음을 시사

[표 2] 2050년 노동공급 규모 추정 (선행연구와의 비교)

(단위: 만명, 억시간, %, %p)

	2021년 현재	2050년 예측치		
		기준전망 (A)	이철희·이지은(2017) (B)	차이 (A-B)
취업자 수	2,727.3 (100%)	2,196.3 (80.5%)	2,367.4 (86.8%)	-171.1 (-6.3%p)
주당 총 노동시간	10.6 (100%)	8.1 (76.8%)	9.6 (90.3%)	-1.5 (-13.5%p)

주: 1. 괄호안의 값은 2021년 대비 상대적 규모를 의미
2. 2021년 대비 규모는 하위 단위(명, 시간)의 데이터를 통해 도출하였기 때문에, 위 표에서 제시된 취업자 수 및 노동시간 데이터를 통해 도출한 비율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3. 기준전망은 노동공급 패턴이 2021년과 동일하다는 가정을 통해 도출한 예측치를 나타냄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0~2070년) 및 경제활동인구조사(2021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추정, 이철희·이지은(2017)

4)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5~2065년)

인구변화로 인한 노동공급 감소에 대응하여 고령층 노동참여 확대가 이루어지는 경우 노동공급 감소 충격은 완화될 것으로 전망

■ **국회예산정책처(2021)는 우리보다 앞서 인구고령화 및 인구감소를 경험한 OECD 국가들이 해외이주민 유입, 자동화, 고령층 노동참여 확대 등을 통해 대응해 왔음을 제시**

-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인구변화에 대응하여 고령층 노동참여가 확대되는 경우 예상되는 장래 노동공급규모의 변화를 살펴보았음

■ **고령층의 노동참여가 확대되어 60~74세 인구의 성별·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과 취업률, 평균 노동시간이 각각 연령이 5세 낮은 집단과 동일해지는 경우[5] 2050년 취업자 수는 현재의 85.1%, 총 노동시간은 현재의 82.9%가 될 것으로 전망**

- 이 경우 2050년 취업자 수는 기준전망 대비 123.5만 명 증가하고, 2021년 대비 취업자 규모는 4.6%p 상승
- 2021년 대비 총 노동시간은 기준전망의 76.8%보다 6.1%p 높은 82.9%가 될 것으로 전망

[표 3] 2050년 노동공급 규모 추정 (시나리오별)

(단위: 만명, 억시간, %, %p)

	2021년 현재	2050년 예측치		
		고령층 노동참여 확대 (A)	기준전망 (B)	차이 (A-B)
취업자 수	2,727.3 (100%)	2,319.8 (85.1%)	2,196.3 (80.5%)	123.5 (4.6%p)
주당 총 노동시간	10.6 (100%)	8.8 (82.9%)	8.1 (76.8%)	0.7 (6.1%p)

주: 1. 괄호안의 값은 2021년 대비 상대적 규모를 의미
2. 2021년 대비 규모는 하위 단위(명, 시간)의 데이터를 통해 도출하였기 때문에, 위 표에서 제시된 취업자 수 및 노동시간 데이터를 통해 도출한 비율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3. 기준전망은 노동공급 패턴이 2021년과 동일하다는 가정을 통해 도출한 예측치를 나타냄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0~2070년) 및 경제활동인구조사(2021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추정

4. 요약 및 시사점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를 바탕으로 노동공급규모를 추정한 결과, 인구변화로 인해 2050년 취업자 수 및 총 노동시간은 현재의 5분의 4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

5) 본 시나리오는 고령층의 노동참여 확대로 인해 2050년 60~64세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취업률, 평균 노동시간이 2021년 55~59세와 같아지고, 65~69세는 기존의 60~64세와, 70~74세는 기존의 65~69세와 동일해 지는 상황을 나타냄.

■ 2021년의 노동공급 패턴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향후 10년간은 인구변화로 인한 노동공급 감소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2030년 취업자 수는 2021년의 98.4%, 총 노동시간은 97.2%가 될 것으로 전망

■ 하지만 이후 빠른 속도로 감소하여 2050년 취업자 수는 2021년의 80.5%, 노동시간은 76.8% 수준으로 감소

추정된 장래 노동공급규모가 선행연구의 추정치보다 작아, 장래 노동공급의 감소가 기존 예상보다 클 수 있음을 시사

■ 2021년의 노동공급패턴과 최신 장래인구추계를 통해 추정한 장래 노동공급규모는, 동일한 방법론을 통해 2017년에 수행된 선행연구 대비 낮은 수준

■ 이러한 차이는 장래 노동공급 감소 규모가 기존의 예상보다 클 수 있음을 제시

인구변화에 대응하여 고령층 노동참여 확대 등이 이루어진다면, 충격의 규모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

■ 고령층 노동참여가 확대되는 시나리오를 적용할 경우, 장래 취업자 수 및 노동시간 감소폭이 축소

■ 다만, 고령층의 노동참여 확대는 취업자 중 고령층의 비중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고령층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동반될 필요가 있음

제시된 노동공급규모 전망은 확정된 미래가 아닌 하나의 실현 가능한 상황 정도로만 해석할 필요

■ 본 보고서의 노동공급규모 추정은 2021년 수준의 노동공급 패턴이 유지된다는 높은 수준의 가정을 바탕으로 하며 생산성을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오차가 있을 수 있음

- 자동화 등으로 생산성이 상승하는 경우, 실질 노동공급규모는 제시된 전망치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또한, 미래의 노동수요가 어떻게 변화할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노동공급규모의 감소가 반드시 노동력 부족으로 이어질 것이라 단언할 수 없음

PART 3

Economic·Industrial Trends & Issues

경제·산업이슈

Ⅰ. 환율이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 분석 ····· 128

I

환율이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경제분석국 거시경제분석과 박선우 경제분석관(6788-3733)

우리나라의 경우 설비투자의 높은 수입자본재 의존도, 수출주도 산업구조 등으로 인해 환율이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게 나타남

■ **설비투자에 대한 환율의 영향은 신규 설비투자 수요와 투자비용 경로를 통해 상반되게 나타날 수 있음**

- 제조업 설비투자의 대부분은 반도체, 자동차 등 수출주도 품목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환율하락으로 수출이 감소할 경우 신규 설비투자 수요가 감소
- 국내 설비투자의 높은 수입자본재 의존도로 인해 원화환율의 하락은 설비투자의 비용하락으로 이어지며 설비투자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실질실효환율의 상승은 수출감소를 통해 실질설비투자를 감소시키나 이와 같은 효과는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

■ **실질실효환율 상승충격(원화가치 절상)은 수입자본재 비용을 하락시키며 충격발생 초기에 실질설비투자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떨어짐**

■ **원화가치 절상이 수출을 감소시켜 실질설비투자를 감소시키는 효과는 약 8분기 정도의 시차를 두고 나타나며 이후 18분기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추정**

- 18분기 이후에는 실질설비투자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며 실질실효환율 충격의 효과가 거의 사라지는 것으로 보임

■ **주요 비용변수인 자본재 상대가격과 회사채 금리 상승은 충격 발생 초기부터 실질설비투자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향후 변이바이러스 확산세 지속, 미국 통화정책 변화 등으로 인해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될 경우 환율변동을 통해 설비투자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2022년 국내경제 여건은 경제회복 과정에서의 인플레이션 압력 지속, 변이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방역강화 등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된 상황**

■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의 경상수지 흑자 누적, 미국 금리인상 지연 등이 원화환율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설비투자의 위축과 함께 국내경제의 회복세도 둔화될 수 있음**

- 향후 국내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내외 경제상황 및 외환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환율 변동성 관리에 유의할 필요

1. 국내 설비투자 동향 및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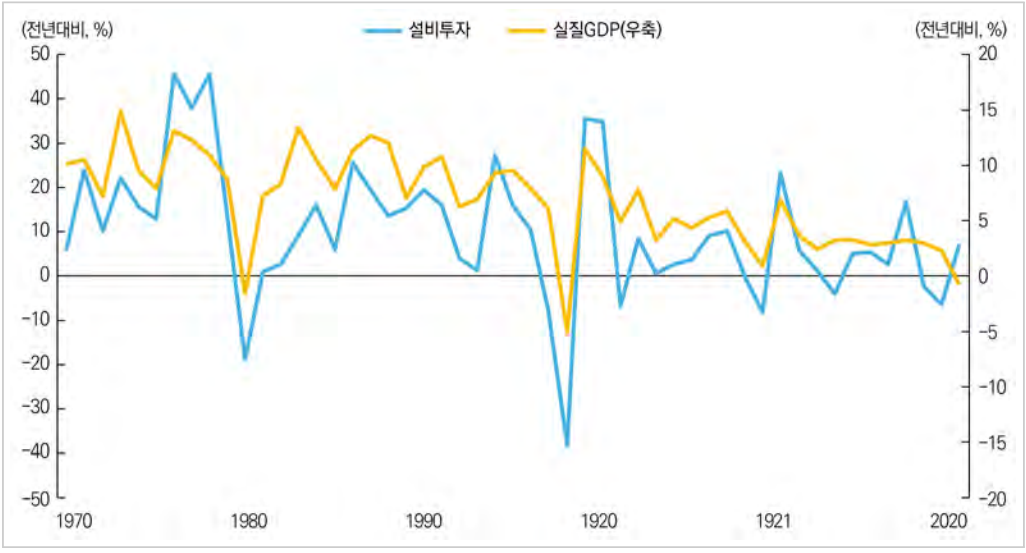
설비투자는 국민계정의 주요 구성요소 중 하나로 자본의 생산능력 증대, 내수 촉진 등을 통해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작용

■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1970년대 이후 고속성장 과정에서 이루어진 중화학공업 육성[1], 수출지원 정책 등의 영향으로 설비투자와 실질GDP가 높은 동행성을 보임**

- 1970~2020년 기간 중 설비투자와 실질GDP의 시차상관계수는 동분기(0.7759)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며 설비투자가 실질GDP와 높은 동행성을 보임

■ **이에 따라 1970년대 이후 설비투자의 높은 증가세는 우리나라 경제의 주요 성장동력으로 작용해왔으며, 특히 1970~1980년 고속성장기 설비투자와 실질GDP 연평균 성장률은 각각 16.1%, 9.7%를 기록**

[그림 1] 실질GDP 성장률 및 설비투자 증감률 추이



자료: 한국은행

※ 본 보고서는 설비투자 관련 시계열 자료 및 주요 연구 보고서를 참조하여 작성

1) 1970년대 이루어진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은 중화학공업 업체에게 저금리 자금 대출, 세제 혜택, 관세 감면, 보조금 지급 등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하였으며 이를 통해 중화학공업 기업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설비투자가 이루어짐.

2020년 이후 코로나19 회복 과정에서는 설비투자의 높은 증가세가 국내경제의 회복세를 견인

■ 2020년 국내 설비투자는 코로나19 충격에도 불구하고 7.1%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설비투자의 성장기여도 또한 2020년 1/4분기부터 플러스(+) 값을 유지

- 실질GDP 성장률의 경우 2020년 -0.9%로 역성장을 기록하였으나, 이후 설비투자의 높은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2021년 1/4분기부터 플러스 성장률로 전환

■ 다만 2021년 3/4분기 들어 국내 설비투자의 증가세는 둔화되는 모습

- 2021년 3/4분기 국내 설비투자 증가율은 4.2%로 1/4분기(12.4%)와 2/4분기(12.8%) 대비 큰 폭으로 둔화
- 설비투자와 실질GDP 사이의 높은 동행성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설비투자 증가세 둔화는 실질GDP 성장률의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

[표 1] 지출항목별 성장기여도

(단위: %p)

기간	실질GDP 성장률	최종소비지출	총자본형성	설비투자	순수출
2020.1/4	1.5	-1.1	0.6	0.6	0.2
2/4	-2.6	-0.9	0.0	0.4	-3.4
3/4	-1.0	-1.5	0.0	0.8	-1.4
4/4	-1.1	-2.8	0.2	0.5	-0.7
2021.1/4	1.9	1.0	0.2	1.1	1.2
2/4	6.0	2.7	0.0	1.2	4.3
3/4	4.0	2.6	0.8	0.4	2.1

자료: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경우 설비투자의 높은 수입자본재 의존도, 수출주도 산업구조 등으로 인해 환율이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게 나타남

■ 2010년 이후 국내 설비투자의 수입자본재 의존도[2]는 2011년 49.3%로 최고수준을 기록한 후 점차 하락하여 2019년에는 39.4%를 기록하고 있음

- 2010~2019년 기간 중 설비투자의 평균 수입자본재 의존도는 44.0%로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높은 수입자본재 의존도로 인해 원화환율의 상승은 설비투자의 비용상승으로 이어짐

2) 산업연관표의 투입산출표(통합대분류, 실질금액 기준)를 사용하여 주요 제조업 품목(기계 및 장비, 운송장비, 전기 및 전자기기, 정밀기기 등)의 총고정자본형성 중 수입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

■ **제조업 설비투자의 경우 반도체, 자동차 등 수출주도 품목에 대한 설비투자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남**

- 2020년 기준으로 제조업 설비투자에서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제조업(51.3%)과 운송장비 제조업(14.6%)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6%로 제조업 설비투자 대부분이 반도체, 자동차 등 수출주도 품목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수출주도 품목에 대한 높은 설비투자 집중도로 인해 환율하락으로 수출이 감소할 경우 설비투자의 증가세 또한 둔화될 수 있음

[그림 2] 설비투자 수입의존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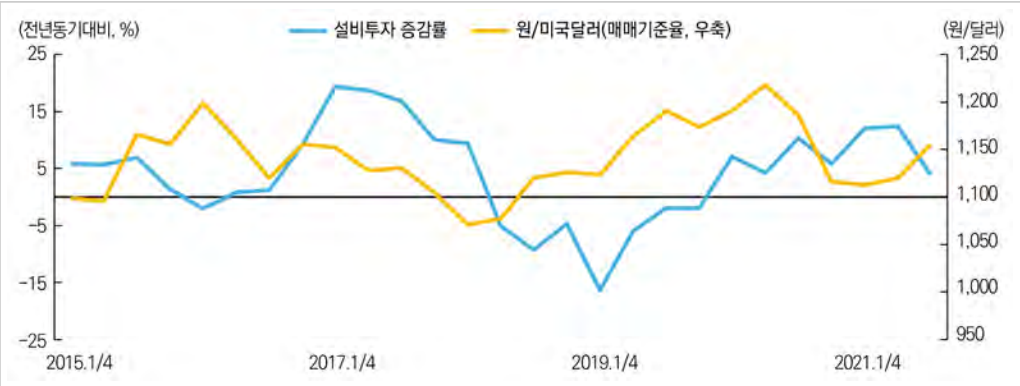
주: 1) 품목: (2010년~2014년) 기계 및 장비, 운송장비, 전기 및 전자기기, 정밀기기
(2015년~2019년) 기계 및 장비, 운송장비, 전기장비,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2) 산업연관표의 총고정자본형성 중 수입거래 비중

자료: 한국은행 산업연관표를 사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자체 계산

■ **이와 같은 국내 설비투자의 특징으로 인해 향후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환율이 급격히 상승 또는 하락할 경우 설비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

- 이에 본고에서는 환율이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모형을 통해 분석하고, 향후 환율충격이 주어졌을 때 국내 설비투자가 어떤 경로를 통해 영향을 받게 되는지 면밀히 살펴보고자 함

[그림 3] 설비투자와 원달러환율 추이



자료: 한국은행

[참고] 우리나라의 환율제도

■ **우리나라는 1945년 해방 이후 총 5차례의 환율제도 변화를 거치면서 현재의 자유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 1945년 해방 이후 외환시장 형성 초기에는 미국 1달러당 15원의 공정환율(official exchange rate)을 중심으로 하는 고정환율제도 선택
- 고정환율제도로 외환시장의 수급상황이 신속하게 조절되지 못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1964년 5월 미국 1달러당 255원을 하한으로 하는 단일변동환율제도 도입
- 단일변동환율제도 하에서 환율이 미국 달러에만 연계되어 결정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80년 2월 주요 교역상대국의 통화가치 변동에 원화 환율을 연동시키는 복수통화바스켓제도 도입
- 1990년 3월부터는 외환시장의 수급여건에 따라 환율이 일정 범위 내에서 변동하는 시장평균환율제도를 도입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은행간시장에서의 외환수급에 따라 환율이 결정되는 자유변동환율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

구분	기간
고정환율제도	1945.10.1.~1964.5.2
단일변동환율제도	1964.5.3.~1980.2.26
복수통화바스켓제도	1980.2.27.~1990.3.1
시장평균환율제도	1990.3.2.~1997.12.15
자유변동환율제도	1997.12.16~

2. 환율과 설비투자의 관계

설비투자에 대한 환율의 영향력은 신규 설비투자 수요와 투자비용 경로를 통해 상반되게 나타날 수 있음

■ **원화환율의 상승은 원화가치의 평가절하를 통해 수출제품의 가격경쟁력을 상승시키며 이에 따라 생산 및 설비투자 수요가 증가**

- 수출과 설비투자의 인과관계(causality) 검정 결과 수출이 설비투자를 유발(cause)하기는 하지만 2000년대 들어 그 상관관계가 점차 약화되는 모습[3)]
- 분석기간을 최근으로 확장한 박종현(2018)의 연구 결과에서도 수출의 설비투자 유발효과는 금융위기 이후로 점차 약화되고 있으며[4)] 이는 해외직접투자 증가, 설비투자의 수입의존도 증가[5)], 기업의 투자심리 위축 등에 기인
- 실제로 설비투자와 수출의 상관계수는 2000년 1/4분기~2021년 3/4분기 기간 동안 0.4443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하여 2015년 1/4분기~2021년 3/4분기에는 0.1576을 기록

[표 2] 설비투자와 수출의 상관계수

기간		상관계수
1980년대	1980.1/4~1989.4/4	0.3543
1990년대	1990.1/4~1999.4/4	0.0126
2000년대	2000.1/4~2009.4/4	0.5617
1980.1/4 ~ 2021.3/4	1980.1/4~2021.3/4	0.2900
	1990.1/4~2021.3/4	0.2668
	2000.1/4~2021.3/4	0.4443
	2005.1/4~2021.3/4	0.4275
	2010.1/4~2021.3/4	0.3036
	2015.1/4~2021.3/4	0.1576

주: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기준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자료를 사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자체 계산

3) 조주현, 「설비투자 부진 요인과 활성화 방안」, 국회입법조사처, 2011

4) 박종현, 백재민, 유기한(2018)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기간을 나누어 설비투자함수에서 수출의 계수값 변동 추이를 관찰한 결과 금융위기 이후 수출의 계수값이 크게 하락하였으며 유의성도 사라진 것으로 나타남. 또한 1996년부터 2017년까지 기간을 대상으로 이동회귀(rolling regression) 분석을 진행한 결과, 2012년 이후 수출의 계수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마지막으로 전체 설비투자가 아닌 국산 설비투자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수출의 계수값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5) 박종현, 백재민, 유기한(2018)에 따르면 금융위기 이후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디스플레이패널 등 수입중간재 투입 비율이 높은 IT업종을 위주로 수출 증가가 이루어지면서 수출에 따른 국내 부품공급 업체로의 후방연쇄효과가 약화된 것으로 보임.

■ 비용 측면에서 원화환율의 상승은 수입자본재 가격상승으로 이어지며 신규 설비투자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윤재형(2009)에 따르면 실질환율 상승 충격은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를 모두 감소시키며 두 변수 모두 약 5분기가 지나서야 안정상태에 도달함[6]
- 박영준(2019)의 연구결과에서도 환율상승 충격은 설비투자의 비용적 요인(수입자본재 가격상승)을 통해 설비투자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원화환율 상승에 따른 영향은 외화채권 경로를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으나, 국내 설비투자의 경우 내부자금과 간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이 주를 이루고 있어 외화채권 원리금 상승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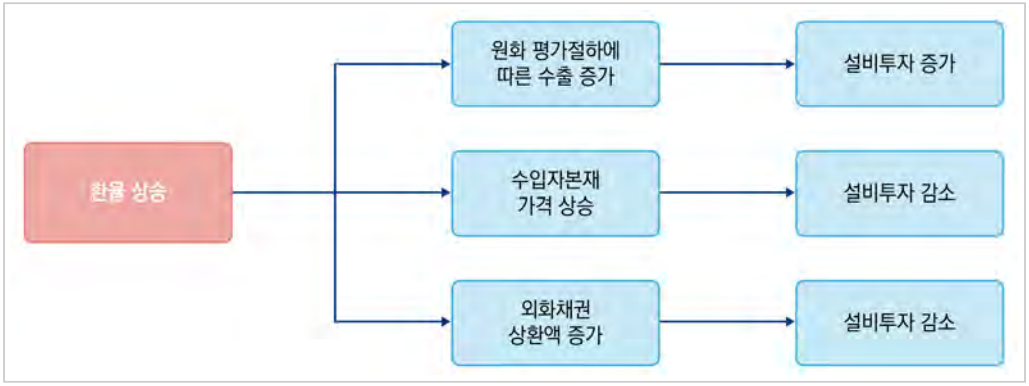
[표 3] 국내기업의 설비투자 자금조달 방법

(단위: %)

구분	구성비			
	2019	2020	2021(잠정치)	2022(계획 전망치)
전체	100.0	100.0	100.0	100.0
내부자금	72.9	73.9	75.1	76.2
외부자금	27.1	26.1	24.9	23.8
직접금융	7.3	7.0	7.3	7.4
주식	0.1	0.1	0.1	0.1
회사채	7.2	6.9	7.2	7.3
간접금융	19.8	19.1	17.6	16.4

자료: 산업은행 「2021년 설비투자 계획조사」(2021.12.)

[그림 4] 환율상승이 설비투자에 미치는 파급효과 경로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6) 윤재형(2009)은 VAR 모형을 사용하여 실질환율 충격이 민간소비, 설비투자,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충격반응함수 결과에 따르면 실질환율 상승 충격은 민간소비와 설비투자에 대해 초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설비투자의 반응이 민간소비보다 더 크게 나타남.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자본재의 해외의존도가 소비재의 해외의존도보다 훨씬 높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됨.

3. 환율이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본고에서는 환율이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주요 비용변수[7]들을 중심으로 설비투자함수 모형을 설정

■ **설비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비용요인으로 자본재 상대가격[8], 회사채 금리, 실질실효환율을 선택하였으며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유의하지 않은 변수로 나타난 실질 이자율은 변수에서 제외[9]**

[표 4] 분석에 사용된 변수 정의

변수	설명	자료출처
설비투자	실질 설비투자액(계절조정)	한국은행
자본재 상대가격	설비투자 디플레이터/GDP 디플레이터	한국은행
회사채 금리	회사채(장외3년, AA-등급) 금리	한국은행
실질실효환율	교역상대국(세계 60개국)과의 교역규모, 물가 변동을 모두 고려하여 산출된 환율	BIS

[표 5] 기초통계량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관측수
설비투자(십억원)	27,982.97	8,928.97	11,274.20	45,748.30	111
자본재 상대가격	1.12	0.11	0.95	1.39	111
회사채 금리	6.16	4.10	1.67	20.71	111
실질실효환율	109.64	10.83	76.62	131.69	111

〈BOX 1〉 실질실효환율

■ **실질실효환율(REER: Real Effective Exchange Rate)이란 세계 주요국 물가와 교역량을 고려해서 산출한 환율을 의미**

- 2개국 이상을 대상으로 한 원화가치의 종합적인 가치 변동을 측정하기 위해서 실질실효환율을 사용

7) 주요 비용변수들의 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 설비투자에 대한 환율의 영향력을 관찰하기 위함. 수요변수인 실질GDP를 내생변수에 포함하여 분석한 경우에도 충격반응함수의 결과는 동일하게 나타남.
8) 소비재 대비 자본재의 상대가격으로 설비투자의 실질비용을 나타냄.
9) 장광수·전봉걸(2000), 윤석현(2004) 등은 분석모형에서 금리변수를 제외하였으며, 박재곤·변창욱·허문구·최형재(2008)의 분석에서는 실질이자율의 상승이 오히려 설비투자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이론과 상반되는 결과를 보임.

- 실질실효환율은 다음과 같은 공식에 따라 계산할 수 있음

$$NEER_i = \prod_{j=1}^{N}\left(\frac{e_i}{e_j}\right)^{w_j}$$

$NEER_i$: i국(기준국가)의 명목실효환율
e_i : i국의 계산화폐($numeraire$)에 대한 명목환율
e_j : j국의 계산화폐($numeraire$)에 대한 명목환율
w_j : j국(교역상대국)가중치
N: 교역국의 수

$$REER_i = \prod_{j=1}^{N}\left(\frac{e_i}{e_j}\times\frac{P_i}{P_j}\right)^{w_j}$$

$REER_i$: i국(기준국가)의 실질실효환율
P_i : i국의 물가수준
P_j : j국의 물가수준

- 국제결제은행(BIS)에서는 대규모(Broad: 세계 60개국)-소규모(Narrow: 세계 27개국), 명목(Nominal)-실질(Real) 기준으로 계산된 국가별 실질실효환율 자료를 제공
  - 실질실효환율 지수가 100보다 높으면 기준년도(2010=100)보다 원화가 평가절상(원화강세)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100보다 낮으면 원화가 평가절하되었다는 것을 의미

■ **분석기간은 1994년 1/4분기부터 2021년 3/4분기까지이며 분기자료를 사용**

■ **분석대상이 되는 시계열 변수들을 자연로그 변환한 뒤 단위근 검정을 수행한 결과 모든 변수에 단위근이 존재하는 불안정 시계열인 것으로 나타남**

- 단위근 검정 결과, 모든 변수의 1차 차분값이 안정적인 시계열로 나타남에 따라 동일한 적분차수(order of integration) I(1)을 가진 시계열 변수들을 대상으로 공적분 검정을 수행

■ **요한슨 공적분 검정 결과 설비투자, 자본재 상대가격, 회사채 금리, 실질실효환율 사이에 1개의 공적분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요한슨 공적분 검정의 최적 시차(k)는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에 따라 k=3으로 결정

[표 6] 공적분 검정 결과

$H_0 : r$	대각합(Trace) 검정		최대고유치(Maximum Eigenvalue) 검정	
	λ_{TRACE}	λ_{TRACE}(5%)	λ_{MAX}	λ_{MAX}(5%)
None*	65.1091	47.8561	37.6443	27.5843
At most 1	27.4648	29.7971	16.3839	21.1316
At most 2	11.0810	15.4947	10.809	14.2646
At most 3	0.2710	3.8415	0.2710	3.8415

주: * 표시는 5% 수준에서 영가설($rank(\Pi) \leq r$)을 기각함을 의미

공적분 검정 결과 4개 변수(설비투자, 자본재 상대가격, 회사채 금리, 실질실효환율) 사이에 장기적인 균형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벡터오차수정모형(VECM)으로 분석을 진행

■ **비정상 시계열들 사이에 장기적인 균형관계(공적분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단순 벡터자기회귀모형(VAR)을 벡터오차수정모형(VECM)으로 변환하여 추정**

- VECM은 불안정 시계열을 안정시계열로 변환(차분)하지 않고도 분석을 수행할 수 있어 시계열이 가진 정보의 손실이 적다는 장점이 있음

■ **Granger-Causality 검정 결과에 따라 변수의 순서는 환율, 자본재 상대가격, 회사채 금리, 설비투자 순으로 구성**

■ **VECM에서 차분변수의 시차(k)는 AIC에 따라 k=3으로 결정하였으며, 잔차검정을 통해 시차의 유의성을 확인**

〈BOX 2〉 벡터오차수정모형(VECM)

■ **공적분 관계가 존재하는 4개 변수(설비투자, 자본재 상대가격, 회사채 금리, 실질실효환율)로 구성된 VECM은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음**

$$y_t = \alpha_0 + \sum_{i=1}^{p} \Pi_i y_{t-i} + e_t$$

$$\triangle y_t = \phi_0 + \Pi y_{t-1} + \sum_{i=1}^{p-1} \Gamma_i \triangle y_{t-i} + e_t$$

단, $\Pi = \alpha\beta' = -I_n + \Pi_1 + \Pi_2 + \cdots + \Pi_p$, $\Gamma_i = -(\Pi_{i+1} + \Pi_{i+2} + \cdots + \Pi_p)$

- $\Pi = \alpha\beta'$에서 β는 내생변수들의 공적분 관계를 나타내는 공적분 계수이며 α는 균형으로의 조정속도를 나타내는 조정계수(adjustment coefficient)를 의미
- Γ_i는 후행 차수가 현재기에 미치는 단기효과 계수를 나타냄

■ **VECM의 추정계수를 바탕으로 충격반응함수(IRF)를 통해 변수 간의 파급효과를 분석할 수 있음**

- 실질실효환율, 자본재 상대가격, 회사채 금리 각각에 표준편차 1단위의 충격이 가해졌을 때 설비투자가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봄

충격반응함수 분석 결과, 실질실효환율에 표준편차 1단위의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 실질설비투자는 시차를 두고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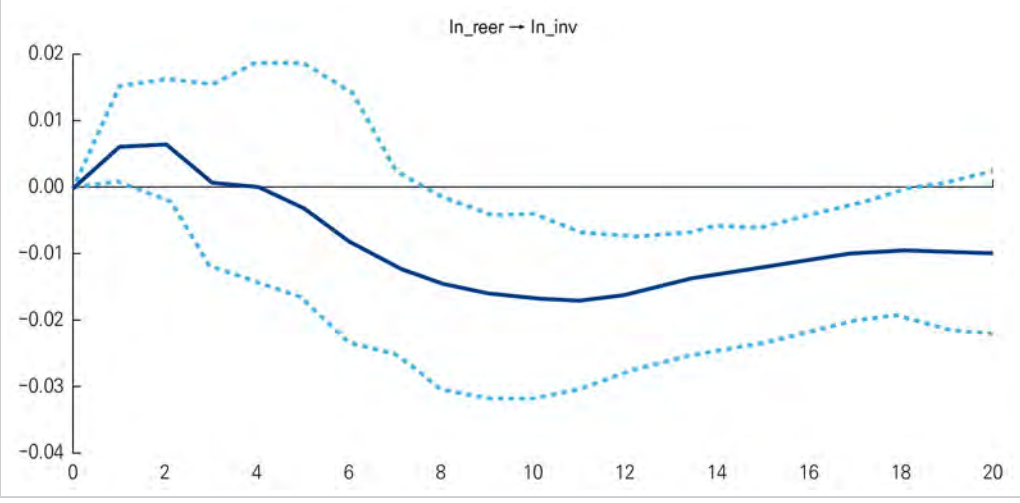
■ **실질실효환율 상승충격 발생 초기에는 실질설비투자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떨어짐**

- 실질실효환율 상승충격 초기에 실질설비투자가 증가하는 것은 실질실효환율 상승(원화가치 절상)으로 수입자본재 가격이 하락한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 **원화가치 절상이 수출을 감소시켜 실질설비투자를 감소시키는 효과는 8분기가 지난 이후에야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됨**

- 원화가치 절상이 수출을 감소시켜 실질설비투자를 감소시키는 효과는 약 8분기 정도의 시차를 두고 나타나며 이후 18분기까지 지속
- 18분기 이후에는 실질설비투자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며 실질실효환율 충격의 효과가 거의 사라지는 것으로 보임

[그림 5] 실질실효환율 충격이 실질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



주: 점선은 충격반응함수의 90% 신뢰구간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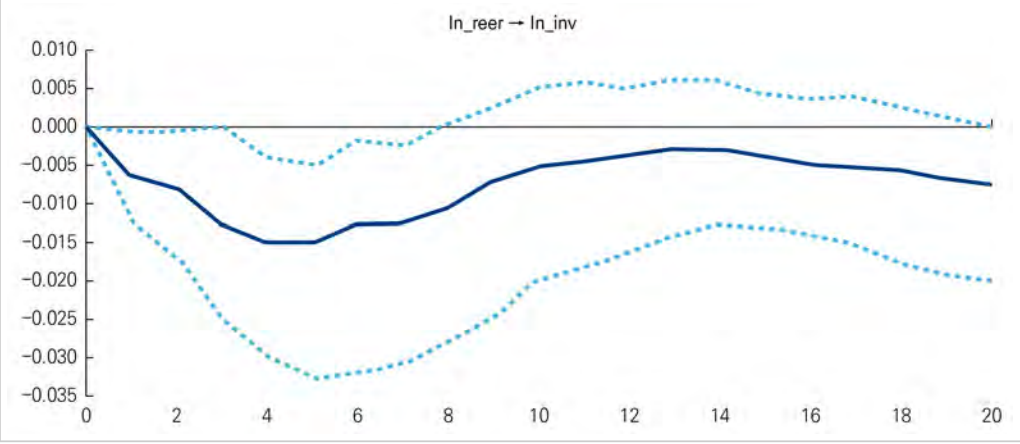
■ **환율변수로 실질 원/달러환율을 활용한 주요 선행연구에서도 원화가치의 절하는 충격발생 초기에 설비투자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윤재형(2009)의 연구 결과에서는 실질 원/달러환율 상승충격(원화가치 절하) 발생 이후 4분기 동안 설비투자가 감소하였으며, 황종률(2018)의 연구 결과에서는 충격 발생 이후 3분기 동안 설비투자가 유의하게 감소

자본재 상대가격과 회사채 금리에 표준편차 1단위의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 실질설비투자는 감소함

■ **자본재 상대가격 상승충격 발생 시 일부 구간에서의 유의성이 낮게 나타나기는 하지만 약 8분기까지 실질설비투자가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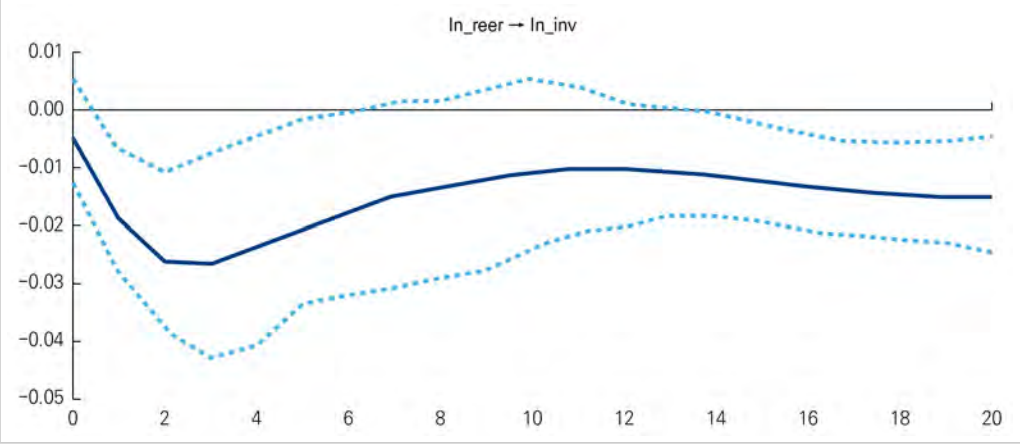
[그림 6] 자본재 상대가격 충격이 실질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



주: 점선은 충격반응함수의 90% 신뢰구간을 의미

■ **회사채 금리 상승충격 발생 시 실질설비투자가 감소하는 효과는 6분기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7] 회사채 금리 충격이 실질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



주: 점선은 충격반응함수의 90% 신뢰구간을 의미

4. 요약 및 시사점

우리나라의 경우 설비투자의 높은 수입자본재 의존도, 수출주도 품목에 대한 투자 집중 등으로 인해 설비투자가 환율변동에 민감하게 반응

■ **환율상승(원화가치 절하)으로 수입자본재 가격이 상승할 경우 신규 설비투자 수요는 감소하게 됨**

- 그러나 환율상승은 수출제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생산 및 설비투자 수요를 증가시키는 효과도 존재

■ **향후 환율충격이 발생하는 경우 실질설비투자가 어떤 경로를 통해 변화하게 되는지에 대한 분석을 수행**

분석 결과, 실질실효환율 상승 충격은 수출감소로 인해 실질설비투자를 감소시키나 이와 같은 효과는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

■ **실질실효환율 상승충격(원화가치 절상)은 수입자본재 비용을 하락시키며 충격발생 초기에 실질설비투자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떨어짐**

■ **원화가치 절상이 수출을 감소시켜 실질설비투자를 감소시키는 효과는 약 8분기 정도의 시차를 두고 나타나며 이후 18분기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추정**

- 18분기 이후에는 실질설비투자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며 실질실효환율 충격의 효과가 거의 사라지는 것으로 보임

■ **설비투자의 주요 비용변수인 자본재 상대가격과 회사채 금리 상승 충격은 충격 발생 초기부터 실질설비투자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향후 변이바이러스 확산세 지속, 미국 통화정책 변화 등으로 인해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될 경우 환율변동을 통해 설비투자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2022년 국내경제 여건은 경제회복 과정에서의 인플레이션 압력 지속, 변이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방역강화 등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된 상황**

■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의 경상수지 흑자 누적, 미국 금리인상 지연 등이 원화환율을 하락(원화가치 절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설비투자의 위축과 함께 국내경제의 회복세도 둔화될 수 있음**

- 향후 국내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내외 경제상황 및 외환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환율 변동성 관리에 유의할 필요

nabo Economic·Industrial Trends & Issues
경제·산업동향&이슈

2022년 1월호 | 통권 제25호

발행일 2022년 1월 27일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임익상
편 집 경제분석국 경제분석총괄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02-2070-3114)
제 작 ㈜케이에스센세이션(02-761-0031)

ⓒ 국회예산정책처, 2021

NABO STATS
재정경제통계시스템

www.nabostats.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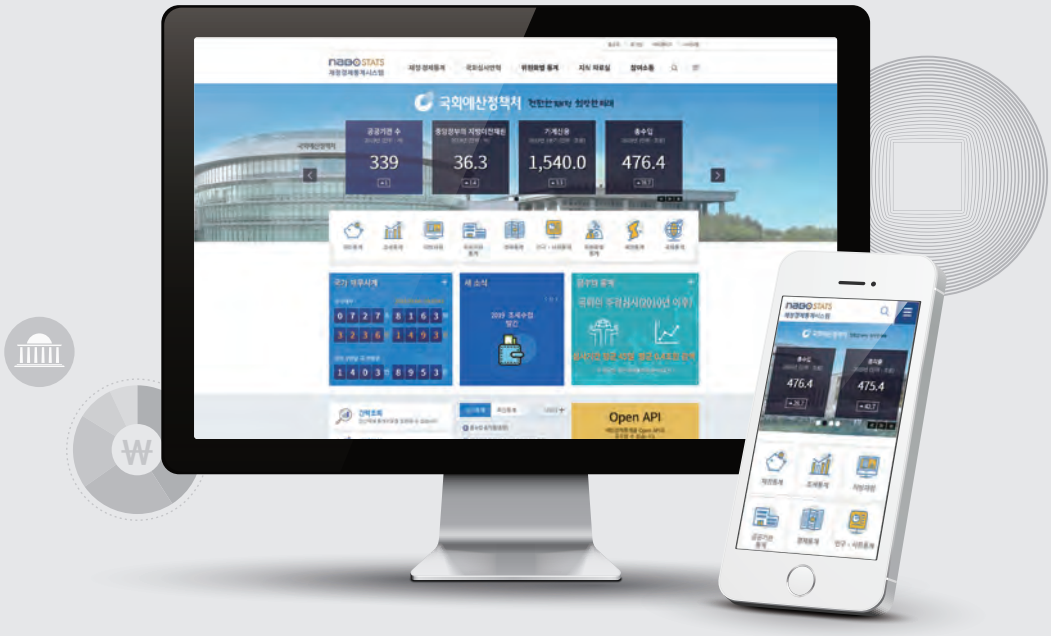
NABOSTATS(재정경제통계시스템)은
국회예산정책처가 의정활동 및 학술연구에 필요한 재정·경제 통계,
국회의 예·결산 심사연혁 등을 One-Stop으로 제공하는 **통계정보시스템**입니다.

재정·경제 통계

예·결산 심사연혁 제공

국제통계 (OECD·IMF 등)

북한통계



* NABOSTATS의 모든 통계정보는 모바일 웹 또는 앱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으며,
엄선된 주요 통계는 매년 경제재정수첩, 조세수첩 등 책자로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발간등록번호	31-9700372-001546-08
ISSN	2734-0287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